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청년층 ‘불안지대’의  
형성 조건과 과정

- 주거 불안 경험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석준기

# 청년층 ‘불안지대’의 형성 조건과 과정

- 주거 불안 경험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인 권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석 준 기

석준기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전 상 인

부위원장      정 현 주

위      원      박 인 권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 형성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탐색한 연구이다. 불안정은 생산-재생산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시공간을 형성하며 도시 공간 속 청년들의 삶과 깊이 천착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경험에 내재한 불안 요소들이 교차, 중첩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불안이 심화 되는 조건과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불안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들의 경로를 살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폭넓게 인식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그 주거 공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지위와 같은 다차원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며 발현된다.

둘째, 불안의 요소들은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불안을 더욱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조건이 되며 이는 도시 공간 내에 일정한 시공간을 형성한다.

셋째, 해당 시공간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며 이는 주거 불안을 중심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시공간 내에 장기간 고착되는 현상은 청년층 내에서 불안에 대한 격차와 불평등을 형성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넷째, 불안을 둘러싸고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년들은 해당 시공간에 진입·이탈의 과정을 갖는다.

다섯째, 청년들은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포기, 순응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대처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다양한 1인 가구의 필요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삶의 안정성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정책적 대상을 불안의 측면에서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다차원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속되는 1인 가구와 그에 따른 다양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청년의 생애 측면에서 도출하였다는데 그 함의가 있다.

셋째, 주거정책의 계획에 있어 청년들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청년층, 불안지대, 불안계급, 불안정 노동, 주거 불안정성, 주거정책  
**학 번** : 2018-26890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3
1) 연구 방법 .....	3
2) 연구 대상 .....	3
3) 연구 윤리 및 연구자의 위치성 .....	9
3. 논문의 구성 .....	10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2
1. 불안정 시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2
1) 불안정성의 개념과 배경 .....	12
2) 불안제공이론 .....	14
3) 불안정 시공간적 확장 .....	16
4) 불안지대(precairous zone) .....	20
2. 청년 주거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3
1) 노동과 소득 요인 .....	23
2) 사회적 요인 .....	26
3) 주거 이동 요인 .....	28
4) 연구의 차별성 .....	31
3. 연구 분석 틀 .....	33
III. 연구방법 및 자료 .....	35
1.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	35
1) 근거이론 방법의 필요성 .....	35
2)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 .....	36

2. 연구문제의 구체화 과정 .....	40
3. 연구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자의 선정 .....	43
1) 자료 수집 방법 .....	43
2) 연구 대상자의 선정 .....	44
<b>IV. 청년층 ‘불안지대’의 형성 과정 분석 .....</b>	<b>47</b>
1. 범주의 발견 .....	47
2. 원인 : 불안의 형성 .....	48
1) 노동 불안정성 .....	48
2) 주거 불안정성 .....	58
3) 지위 불안정성 .....	65
3. 조건 : 불안정성의 상호 교차 .....	72
1) 노동-주거 불안의 교차 .....	72
2) 지위-주거 불안의 교차 .....	78
3) 지위-노동 불안의 교차 .....	84
4. 중심현상 : 도시 공간 속 불안지대의 형성 .....	89
1) ‘자리 잡기’의 시간성 .....	91
2) ‘자리 잡기’의 공간성 .....	93
3) 불안정 시공간의 장기화 .....	98
5. 작용/상호작용 : 불안지대의 진입과 이탈 .....	100
1) 경제적 차원 .....	100
2) 정책적 차원 .....	107
3) 사회적 차원 .....	112
6. 결과 : 포기, 순응, 대안의 탐색 .....	116
1) 포기-순응하기 .....	116
2) 대안 탐색하기 .....	121
<b>V. 결론 .....</b>	<b>127</b>

1. 요약 및 결론 .....	127
2. 정책적 함의 .....	130
3. 연구의 한계 .....	132
참고문헌 .....	134
부록 .....	143
Abstract .....	156



## 표 목 차

[표 1] 연령 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6
[표 2] 청년층과 그 외 연령층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 .....	7
[표 3] 법률적, 제도적·행정적 차원에 따른 다양한 청년층의 기준 ..	8
[표 4] 각 코딩 절차에 대한 학자 간 비교 .....	37
[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 .....	46
[표 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세대 별 전용면적 .....	63
[표 7]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세대원 수별 세대수 권장 비율 .....	63

## 그 림 목 차

[그림 1] 근로형태별 정규직·비정규직 집계 구조 .....	5
[그림 2]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이 .....	6
[그림 3] 전통적 노동계급의 분화로 출현한 불안계급의 구조도 .....	14
[그림 4] 불안지대의 개념도 .....	23
[그림 5] Wright의 국가·시장·시민사회 모형 .....	31
[그림 6] 연구 분석 틀 .....	34
[그림 7] 고급 코딩 과정의 이론적 코딩 틀 .....	40
[그림 8] 청년층의 불안경로에 따른 질문지의 구성 .....	41
[그림 9] 연구 문제 구체화 과정 .....	43
[그림 10] 근거이론의 분석 틀에 따른 범주화 과정 .....	47

[그림 11] 전년도 동월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감률 .....	53
[그림 12] <원인>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72
[그림 13] <조건>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89
[그림 14] 연구 대상자 B의 주거 이동 경로 .....	95
[그림 15] 연구 대상자 G의 주거 이동 경로 .....	97
[그림 16] <중심현상>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100
[그림 17] 임대주택 재고 현황 .....	105
[그림 18]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115
[그림 19]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 형성 모형 .....	129
[그림 20]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의 범주 구성표 .....	147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많은 청년들이 벗어나기 힘든 불안정한 삶에 놓여 있다.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취업의 문턱은 높아지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전전한다. 생산과 노동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하여 삶은 늘 불안하다. 이로 인해 주거 빈곤율이 증가하고 혼인율, 출산율은 감소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증가(최은영, 2017)하고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지.옥.고로 불리는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 쪽방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간다(정민우, 이나영, 2011).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년층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세대가 겪었던 청년기에 비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박미선, 2017) 기생족(parasite single), 임차세대(generation rent)로 불리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Hoolachan, et al., 2017).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주거 공간의 제공 없이 자력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이소영, 이창무, 2019)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국내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Standing(2011)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계층을 불안계급(precariat)이라고 명명하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와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이론화를 전개한다. 청년들도 여성, 노인, 소수민족 및 장애인 등과 함께 불안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로 설명되며 파편화되는 노동의 시간, 고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소진하는 과정을 그린다. 뿐만 아니라 4A(Anger, Anxiety, Alienation, Anomie)로 불안계급이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까지 함께 논의하며 청년들이 처한 다층적인 상

황을 드러낸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청년층의 삶이 현재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깊은 함의를 제공한다.

이때 주거 공간은 도시 내에서 대표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는 공간이자, 불안정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기에(이영아, 2017) 청년들이 겪는 주거 경험은 청년층의 불안정성 과정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정화(precarization)된 요소들은 도시 내에서 특정한 시공간을 형성한다. 어느 누구에게는 일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안정 시공간 속에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은 점차 지속되고 장기화된다. 또한 각기 다른 불안정한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될 때,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특히 청년층의 독립과 그에 따른 노동과 주거 경험 과정은 무척 복잡하다. 학업, 취업 등에 따라 지위가 수시로 변하고, 거주 조건도 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특정한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청년만이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개별 과정에서도 성격이 다른 복수의 불안정성이 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는 삶의 조건 중 큰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의 과정에 대한 복합적이고 폭넓은 설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계급 중 하나로 상정된 청년들을 특정한 거주지, 환경에 고정된 정태적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condition)에 따라 노동,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동태적인 행위자로 바라본다. 청년들의 주거 이동 과정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공간을 개념화한다.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경험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며 불안의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1)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현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내 주거 공간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주거 경험을 살핌으로써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이 어떻게 도시 공간 내에서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현되는지, 그 경로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소득 불안에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보고서,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논의되는 노동과 경제적 차원의 선행연구들이 어떻게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쇄적인 불안의 위기로 인해 청년들이 어떻게 불안을 심화하게 되는지, 그 경험의 과정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온 근거이론의 과정 중에 가장 통합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Birks & Mills(2015)의 ‘초기코딩’, ‘중간코딩’, ‘고급코딩’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적인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집단의 특징을 짚고자 한다.

#### (1)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불안정, 또는 비정규 노동(precarious work)이란 정규적인 고용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노동 총칭하는 용어(umbrella term)로, 임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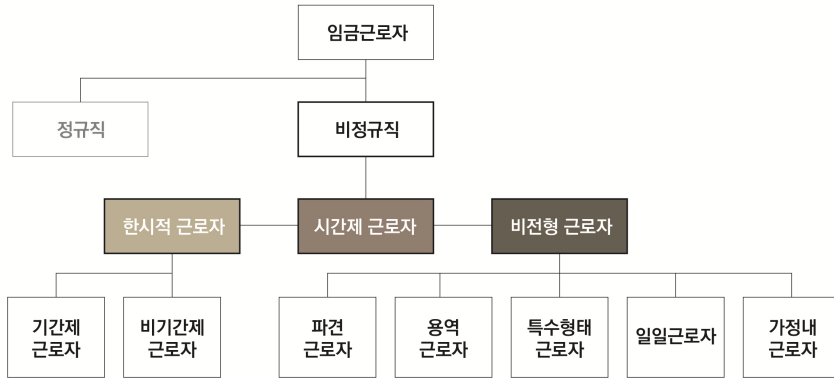
(temporary work) 및 자영업자(self-employed), 파트타임(part-time), 프리랜서(freelancer),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깃(gig), 플랫폼(platform) 노동자를 모두 포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ILO, 2016; OECD, 2018).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명의 고용주가 존재하거나 위장되고 모호한 고용관계,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 및 혜택 부족, 낮은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법적, 실질적 장애”로 정의된다(ILO, 2012).

그동안 이원화된 틀에서 정규직에 대비된 비정규 노동으로 정의(이병훈 외, 2001; 안주엽, 2001; 채구묵, 2003)되어 왔으나, 최근 변화하는 노동 형태와 조건들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지시되는 추세이다. 고용 형태는 ‘정형·비정형 노동’으로, 근로조건 또는 고용 지위는 ‘정규·비정규 노동’으로 부르며 모두 유효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정의환, 2003), 발생 원인과 내포되는 노동 유형의 범위에 따라 비정형, 비전형, 불안정 노동 등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명명<sup>1)</sup>되는 등 그 논의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서정희, 2015;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김수영, 하은솔, 김영, 2020). 다시 말해 ‘불안정’이라는 것에는 다층적인 속성이 내재해 있고, 어느 측면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정의하는 개념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은 임시적이고 짧은 기간, 독립된 계약, 일의 불확실성 등 복수의 속성들을 공유한다(Kalleberg, 2000). 일의 형태와 종류는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김안나, 홍현우, 2019).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고용과 소득을 영위하는 노동 형태를 총칭하여 불안정 노동이란 단어로 정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

1) 아직 국내에서는 노동의 용어와 관련하여 영문과 한글 간의 혼용이 존재한다. 학자에 따라 Non standard work를 비전형, 비정형으로 부르기도 하고, 비정형을 atypical, amorphous로 보기도 한다. 비정규도 irregular, contingent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각 용어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논의에서는 그 노동의 속성에 주목하여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을 주요 용어로 사용하는 만큼 본 논문에서도 이 용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혼용된 개념으로 지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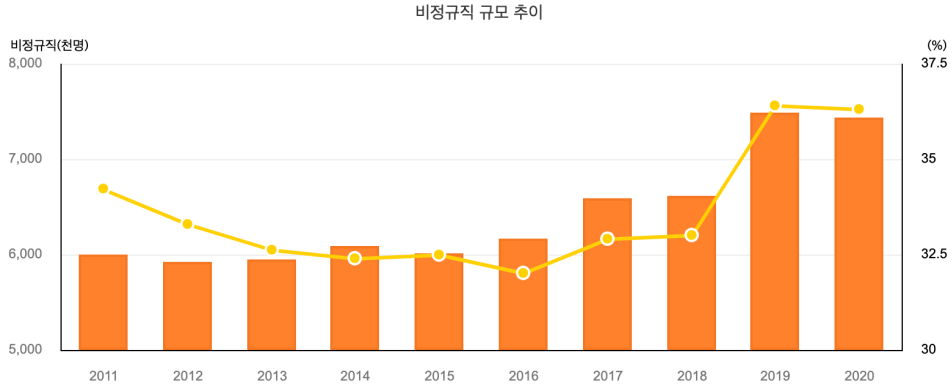


[그림 2] 근로형태별 정규직·비정규직 집계 구조 (연구자 작성)  
(출처 : 고용노동통계, 2021)

또한 학계의 논의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는 노동의 규모와 소득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로서 비정규직을 통합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이는 다시 3가지 중분류로 나누는데, 각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방식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파트타임과 같이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 제공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파견, 용역, 특수고용, 재택, 호출 근로자와 같이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분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되는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이 현 불안정 노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계층 내에서 종사비율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기준, 전체 고용 형태 대비 약 36.3%의 비율에 이르고 있다. 이때 큰 폭으로 증가한 2019~2020년의 경우 COVID-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20대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전년도 대비 약 6%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즉,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동 불안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경향을 띠는 것이다.



[그림 3]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단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1년	69.6	31.6	24.4	30.5	39.7	70.6
2012년	76.1	30.5	23.1	29.1	37.5	70.4
2013년	74.8	31.1	22.2	27.2	37.1	67.3
2014년	70	32	21.8	26.6	34.6	68.5
2015년	74.3	32.1	21.2	26	34.6	67.2
2016년	75.2	32.2	21.1	26.1	34.2	67.9
2017년	73.4	33.1	20.6	26	33.9	67.3
2018년	74	32.3	21	25.3	34	67.9
2019년	77.8	<b>38.3</b>	23.7	27	35.5	71.6
2020년	84.1	<b>37.7</b>	22.8	26.7	34.3	71

[표 1] 연령 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더 큰 문제는 청년층 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의 양극화이다. 2021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에서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 비율이 발표되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용 관계(E), 임금(W), 사회보험(S)으로 두고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표 2]와 같이 2002년에 비해 2018년 매우 불안정 집단과 안정 집단의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즉, 청년층에서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의 증가 뿐 아니라, 그 상대적인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우 불안정	불안정	약간 불안정	안정	매우 불안정	불안정	약간 불안정	안정
연도	2002년				2018년(증감)			
19세~34세 (%)	19.2	23.9	29.3	27.6	31.4 (△)	8.1 (▽)	18.7 (▽)	41.7 (△)
34세~64세 (%)	17.7	27.3	25.1	29.8	16.8	21.4	23.8	38.0

[표 2] 청년층과 그 외 연령층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배포자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노동 불안의 특성에 집중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고, 학계의 논의와 인구통계학적 용례를 함께 고려하여 ‘불안정’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로 연구 대상을 지시하였다.

## (2) 청년층(youth-age)

청년층을 정의하는 과정은 크게 생물학적 연령 접근과 사회학적 생애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가령 OECD의 구분<sup>2)</sup>과 같이, 청년층(youth-age)을 단순히 15세에서 19세 또는 20세에서 24세의 연령으로 보고 국가 간 비교를 시행하기도 하나 이를 현재의 청년층에 적용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는 청년들을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생애 과정(life course)으로 이를 바라보는 연구 흐름이 대두되었고, 이는 연령만으로 세대를 나누는 것에 비해 복합적인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데 훨씬 유용한 측면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통상적 의미의 청년기는 사회 진출 시기의 변화와 맞물리며 점차 유동적인 의미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이 노동과 주거,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규범을 완수하는 것에

2) OECD, Youth stocktaking report, p.4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과거의 규범적 틀에서 점차 비껴가고 있는 생애 과정 속의 지연과 고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서의 청년의 현재성에 주목한다.

	구분	나이
법률적 차원	청년기본법	19세 ~ 34세 (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세 ~ 29세 (제2조제1호) 15세 ~ 34세 (제5조제1항,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5세 ~ 34세 (제5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민법상 미성년이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 (제3조제1호)
제도적, 행정적 차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 29세
	한국고용정보부, 청년패널조사	15세 ~ 29세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수당	18세 ~ 34세
	서울특별시, 창업자금지원	19세 ~ 39세 (40세 이상으로 시범 확대 중)
	서울특별시, 청년임대주택	19세 ~ 39세

[표 3] 법률적, 제도적/행정적 차원에 따른 다양한 청년층의 기준 (연구자 작성)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표 3]과 같이 그 정책 대상자의 청년 연령기준도 법률적,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부족한 능력의 정도에 따라 청년의 지위가 결정되는 한편, 기존 연령과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청년층의 정의는 다층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통상 만 29세까지로 설정되었던 청년층의 기준은 현재 만 34세, 39세 등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40세 이상까지 일부 확대되는 움직임도 보이는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청년층은 약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연령 구간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위치한다.

이런 측면에 따라 청년을 단순히 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고 하여 아직 연령에 의한 구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앞서 불안정 노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연령의 청년 내에도 각각 마주한 삶의 불안정성에 따라 서로 다른 청년의 집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청년이 부딪힌 문제들은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은 서로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이라는 단일한 호명을 경계하고, 그들 앞에 놓인 다층적인 불안의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둔 후 ‘청년’이라는 대상을 지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윤리 및 연구자의 위치성

#### (1) 연구윤리

연구자는 연구에 앞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011/003-014)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인터뷰 참여의 확정 및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내용이 본 연구논문에 사용될 수 있음을 ‘연구 대상자용 설명문’을 통해 안내받았다. 또한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인터뷰 후에도 연구 대상자 본인의 자료가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자료는 연구에 사용되지 않으며 요청 시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일부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인터뷰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 (2) 연구자의 위치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연구자의 주관이나 경험을 철저히 배제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생성된 모든 자료와 지식은 상황적이고 관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연구자의 위치성을 밝히고 연구 대상자들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

친 상황적인 맥락들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Cook et al, 2005; 박순용,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자의 위치성은 ‘서울 외 지역 출신’, ‘독립 후 12년의 1인 가구 거주 경험’, ‘공유주택 기획 및 관리, 운영의 업무 경험’, ‘프리랜서(사진촬영)’,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대학원생’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위치성은 연구 대상자와의 공감대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일, 그리고 독립 후 겪었던 거주 경험은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과 동시대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에 빠르게 공감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현재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하고 있다는 소개를 듣고 일부 연구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공간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림을 통해 도면에 가까운 주거 공간을 묘사하기도 하였고 도시·지역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주거 공간 경험을 풀어내 주었다.

###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과 함께 각 장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연구자의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주거 불안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불안정화 과정과 경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수립하고자 이론적 논의를 실시한다. 이론적 논의는 크게 불안정한 노동에 진입하는 집단과 그 특징을 다룬 ‘불안계급 (precariat)’이론과 공간, 시간(역사), 사회적 차원을 함께 포괄하여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의 두 이론적 준거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재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불안지대 (precarious zone)라는 시공간적 개념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여기서 이론화

과정은 본 논문의 연구 프로세스 특성상 귀납적으로 진행된 측면<sup>3)</sup>이 있다. 즉, 4장 연구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중심현상으로 도출된 ‘자리 잡기의 어려움’을 시공간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요컨대 사전적으로 분석 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론을 검토,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주거 불안을 형성하는 노동과 소득 요인, 사회 규범적 요인, 공간 이동 요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 경향과 내용,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3장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초기-중간-고급코딩의 범주들을 생성하고, 그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구성한다. 또한 초기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선정한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 수집 과정과 그 특성을 서술한다.

4장은 분석 결과를 다룬다. 도출된 범주들로 구성된 분석 틀을 그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각각 원인-조건-중심현상-작용/상호작용-결과로 이어지며 불안지대의 개념은 분석의 과정이자 결과로 구체화된다. 청년들의 불안정화 과정은 불안지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노동, 주거, 지위로 나타난 불안정성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불안정 시공간을 이룬다. 이는 현재의 청년들이 불안을 지속하게 되는 조건을 이루며, 자리 잡기의 어려움을 통한 불안지대의 형성이라는 중심현상을 발현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의 과정을 통해 주거 위기가 불안정 시공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후 불안지대의 진입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을 작용/상호작용으로 살펴본 뒤,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이 가지는 연구의 함의 및 한계를 밝히고 도시계획·정책적 의의를 숙고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

3) 근거이론방법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 속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바는 실질이론(substantive theory)의 출현이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범주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들을 참고하여 개념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잘 설명하고 일정한 이론적 기여를 시도한 것이나, 연구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과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 불안정 시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불안정성의 개념과 배경

불안정성(precariety)의 개념은 통상 196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주의(laborism)에서 처음 태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드주의(fordism)의 생산 속에서 노동자가 자본의 규율 속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노동 거부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1970년대를 지나며 자율주의(autonomism)를 통해 그 관념이 구체화되었고(Berardi, 2009), 이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안정성은 노동 빈곤과 관련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Pitrou, 1978). 이후 노동 뿐 아니라 사회적인 삶 전반에 걸쳐 자본에 종속되어 생활과 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착취 구조에 노출되는 과정에 따라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하면서(Gill & Pratt, 2008) 불안정성의 개념은 고용 상태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 현상을 지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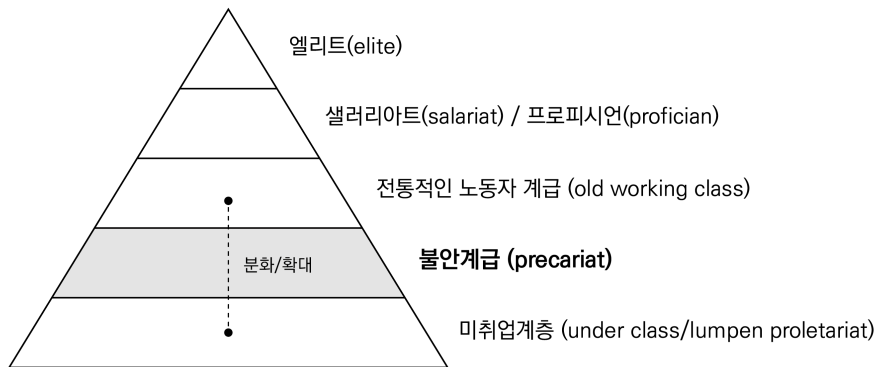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 포디즘 시대의 전형적인 고용계약에서 벗어나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형태의 비정규 노동(non-standard work)이 확산되면서 점차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장기 실업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임시노동(contingent work)(Polivka & Nardone, 1989), 일용노동(disposable work)(Gordon, 1996)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 비표준적, 비정규적 노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은 불안정해지는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에 있다고 보았다. Rodgers(1989)는 노동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들을 분석한 후 이를 4가지 차원으로 제시

하였는데, 각각 ①고용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 ②노동자의 근로조건 또는 업무속도에 대한 통제가 떨어지는 일, ③해고, 차별, 사회보장수급에 관한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일, ④저임금과 임금의 편차가 심한 일로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산업 기반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자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노동 이동성과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의 지속성은 점차 상실되었다. 특수한 노동 형태였던 비정규 노동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동시에 소득 문제뿐 아니라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Waite, 2009).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는 서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고용과 실업 위기, 기업복지 축소는 일상화되었고 종신 고용은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이를 상징했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었다(이수연과 노연희, 2006; Lim & Jang, 2006). 또한 점차 심화되는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단순히 노동의 문제 뿐 아니라 실존적 불안정성 상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모든 불안정성이 철저히 개인화(individualize)되어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야 하는 구조 속에 처하기 때문이다. Lorey(2011)는 이를 불안정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precariousness)로 명명하며 리스크가 개인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Gergen & Williams(1991)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흔들리는 안정성으로 인해 자아가 분산적, 파편적, 다중적, 불연속적, 일시적, 충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Berardi(2009)는 개인에게 강제되는 경쟁과 착취로 인해 소외감, 정신적 고통, 우울증, 공황, 고독 등을 경험하고 성공 욕망을 자극하는 구조 속에서 과도한 자아실현의 이데올로기가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 논의들은 현재 점차 개인들의 삶의 수준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 2) 불안계급이론

불안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 흐름 속에서 Standing(2011, pp.8-10)은 불안계급(precariat)을 통해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론화하였다. 불안계급은 불안정( precarious)개념과 전통적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개념을 혼합한 조어로, 포드주의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했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과 차별되어 만성적이고 개인화된 불안정성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시한 단어이다. 그는 이들의 집단을 형성 중인 계급(class-in-the-making)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새로운 계급적 주체로서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적 계층으로 보았다. 그는 베버의 관점에 따라 전통적 노동계급이 개별 특징을 지닌 7개의 집단으로 분화되었음을 설명하는데, [그림 3]처럼 가장 위에는 사회 지도자 집단인 엘리트(elite)를 두었고 그 아래에 풀타임 봉급생활자인 샬러리아트(salarariat)와 전문가 집단인 프로피시언(proficians)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장 핵심(core) 집단인 동시에,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old working class)이 위치하며 가장 맨 밑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계층(unemployed/lumpen proletariat)이 있다. 그리고 줄어든 노동자 계층과 미취업 계층 사이에 그가 정의하는 불안계급(precariat)이 위치한다. 기존 노동자 계층으로 편입될 수 없는 불안정한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이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림 4] 전통적 노동계급의 분화로 출현한 불안계급의 구조도 (연구자 작성)



이러한 불안계급의 위치성 속에서 Standing(2011, pp.31-68)은 불안정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역과 세계화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급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는 생산의 측면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지구화되고 유연해지면서 노동은 불안정해지고 재상품화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은 훈육과 재생산의 역량을 상실하여 노동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 속에 고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개인들이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않은 채 노동을 찾아 끊임없이 배회하고 유목하는 이주자(migrants)의 특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부조 등이 약해지고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를 상실한 거류민(denizen)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은 Standing(2011, pp.76-91)이 여성과 노인, 소수자, 장애인, 범죄자 등과 더불어 불안정한 노동에 진입하는 것으로 꼽은 대표적인 집단이다. 현재의 청년들은 장기 고용의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일을 배워가야 하는 중첩된 불안의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독립 초기의 인내를 버텨낼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가족 간 연대가 낮아지고 해체되면서 세대 간의 호혜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교육의 상품화와 표준화에 따라 고등 교육이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부채를 양산하는 감옥으로 전락한 것을 문제시하였다. 급하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인턴 열풍(intern crazy)과 같이 무급 또는 적은 급여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미래에 대한 가망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청년들은 점차 불안계급으로 진입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단일한 '계급'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불안계급으로서의 특징은 충분히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계급으로 정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불충분하며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Munck(2013)은 불안정 고용이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닐 수 있으며 유럽 중심주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지적하였고, Jørgensen(2016)는 불안한 이민자들의 일상 속 실천을 사례로 들며 그들이 어떻게 불안해지는지 그 과정

에 불안정성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계급의식(self-consciousness as a class)’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Johnson, 2011), 불안계급으로 호명된 구성원들이 과연 스스로 동일한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Standing(2011, p.26) 또한 이에 대해 자각하며 불안계급은 아직 대자적으로 연대해야 하고 정치세력으로 발화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Wright(2016)는 불안계급이 생산 관계 내에서 동질적인 구조적 위치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질성과 다계급성을 직시하는 이론화가 더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실제로 상당수 청년들에게 불안한 노동 경험 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풀타임 일자리의 노동주의를 거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양가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동일한 청년기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성에 진입하는 과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진입한 것만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정립하기보다는 다소 느슨한 의미로서의 집단의 개념을 상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안계급 논의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각각의 개별 주체에 작용되는 과정을 구체화한 것에 있다. 비정규 노동이 가진 불안정성을 일정한 계급이나 유형, 집단으로 성급히 규정하는 것에 앞서, 그들이 가진 공통된 불안정한 조건(condition)에 대해 보다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Frase, 2013). 즉,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불안의 논의를 다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3) 불안정 시공간적 확장

이때, 불안정성을 형성하는 조건은 단지 임금노동과 자본화된 상품과 같이

노동과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는 집합적 소비의 공간이자 재생산의 공간(Castells, 1977)으로,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일상생활과 소비문화, 정책 및 이데올로기의 영역들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며 확장되고 심화된(최병두, 2018). 그리하여 Foti(2004)는 불안이란 고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채무, 복지 제공, 사회적 관계에의 가능성까지 모든 삶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Neilson & Rossiter(2008)는 불안정성을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정치적인 접근으로 확대하여 불안을 '표준(common)'으로 간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Waite(2009)는 불안 공간의 개념을 지리학의 측면으로 확장하며 이에 내재한 리스크와 취약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종합하면,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불안정화(precairization)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7).

생산과 노동, 계급의 영역뿐 아니라 재생산, 소비 주체 영역으로의 불안정성의 확장은 Lefebvre가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주장한 사회적 공간(social space)<sup>4)</sup>의 이론 틀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Lefebvre는 포드주의로 태동된 후기 자본주의의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시간(역사)성뿐 아니라 그 사이의 관계들을 잇는 공간성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다. “사회적 공간, 특히 도시 공간은 고전적인(유클리드, 데카르트식) 수학적 공간이라기보다 밀푼이유처럼 ‘층층이 쌓인’ 다양성의 공간으로 서로 침투되거나 서로 포개지는 공간”(Lefebvre, 1991, p.86)으로, 사회적 관계는 공간을 통해서만 실재적인 존재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Lefebvre, 1991, p.404). 즉,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 아닌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이중, 삼중의 사회관계들이 상호 교차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박영민, 1997).

---

4) 사실 이러한 공간에의 관심은 학문적인 관심이 시간(역사) 중심 사고에서 공간 중심 사고로 전환되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도시공간이 인간 생활과 생산을 위한 장으로 부상하고, 각 도시공간들을 이어주는 세계적 네트워크가 자본과 권력, 정보와 기술의 사회공간적인 순환을 이루는 과정에 학자들이 주목하면서 철학과 사회이론 분야에서 공간에 대한 연구가 증대하였다. 비단 르페브르 뿐 아니라 푸코, 기든스, 카스텔, 하비 모두 자신들의 연구 주제에서 공간의 문제를 긴밀히 연계시켰고 이를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으로 부르기도 한다(유승호, 2013; 최병두, 2011).

흥미로운 것은 Lefebvre가 전 생애 걸쳐 소외(alienation)의 개념에 대해 집중하며 재생산의 위기를 직시하였다는 사실이다. Lefebvre(1975, p.90: 이영빈, 1997에서 재인용)는 소외를 “자신의 사회적 활동이나 생산물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 다시 자신을 이질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자본축적이 소비, 여가 생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임노동에 의한 생산의 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재생산 영역까지 확장됨에 주목하고, 소외가 종국에는 인간의 삶이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최병두, 2018). Lefebvre에게 도시의 일상 공간은 소외가 구체화되는 시공간이다. 그는 사회적 공간 개념의 고찰을 통해 소외가 노동, 생산의 경제적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 특히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확장되고 발현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공간적 실천(perceived space, 지각된 공간)’-‘공간의 재현(conceived space, 인지된 공간)’-‘재현의 공간(lived space, 체험된 공간)’으로 공간의 유형을 개념화한 뒤, 각각의 변증법적 관계에 따라 공간은 ‘생산’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추상공간에서 차이공간으로의 이행<sup>5)</sup> 속에서 대안적인 사회 공간을 형성되고, 이를 통해 탈소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이러한 소외와 함께 도시 내 사회적 공간의 형성 과정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삶에서 발현되는 불안의 핵심 요건을 이해하는 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Standing(2011, pp.22-27)은 불안계급이 경험하는 사회병리적인 징후로 4A, 즉 소외(alienation)<sup>6)</sup>, 분노(anger), 걱정(anxiety), 아노미(anomie)를 꼽으며 불안정성은 좌절과 박탈감, 만성적인 걱정,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 등 복합적인 상황과 감정을 수반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단순히 노동, 생산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5) 부연하자면, 공간의 생산 과정의 세 가지 유형은 서로 변증법적 관계로 뒤얽히며 전개된다. 최초의 자연에서부터 시작된 공간은 절대공간, 역사공간, 추상공간, 모순공간, 그리고 차이공간(대안적 공간)으로 이행된다. 이때 Lefebvre는 추상공간에 내재한 이중성을 지적하며 해당 공간을 전유하는 자본과 국가 이면에는 이에 저항하는 운동도 잠재해 있음을 주장한다. 갈등과 모순을 통해 차이공간이 형성되며 추상공간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최병두(2018) 참조.

6) 물론 Lefebvre의 소외 개념이 사회 공간적 병리현상 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산물로부터 분리되고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총체적인 상황을 포괄한다면, Standing은 소외를 노동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상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일상적, 심리적인 감각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되는 감각이자 현상이다. 도시 공간은 생산관계가 개인들의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재생산되는 공간적 맥락(Saunders, 1986/1998, p.171)이기에 그 일상 속에서 발화되는 불안정성은 시간성, 사회성 뿐 아니라 공간성을 함께 가진다. 즉, 각 요소의 단일한 성질만이 아닌, 도시 내에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는 시공간(time-space)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 주체들마다 특정한 시공간을 형성하고 점유하고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 또한 고유의 시공간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시간과 공간으로 재분해하여 이론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청년들은 생애의 과도기적 궤적 속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형태의 시간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구적 변화의 흐름과 맞물리며 가속화되고 있다. 그 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주지하다시피 노동이다. 포드주의 이후 생산기구가 변화함에 따른 시공간 압축, 노동자 시간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연 노동의 급속한 확대, 특별 훈련 과정의 소멸,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포스트-포드주의의 생산 방식 등으로 인해 그 노동의 시간성은 유래 없이 변화 중이다(Olivier, 2004). 그에 따라 청년들이 처한 노동과 사회의 시간은 단일한 경로를 벗어나 다양화되며, 노동과 노동 외 시간이라는 이분법 틀을 탈피하여 중첩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시간 리듬을 갖게 하였다(장세룡, 2015). 요컨대 청년들은 더 이상 청소년기에서 장년기로 이행하는 명확한 시간 단위 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간 길이의 간격과 구성 속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유동적인 시간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삶의 방식, 태도와는 다른 시간성 속에 삶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그 모범답안은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생존 과정에 놓여 있다. 그 과정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산관계 속 삶의 불안정성이다. 청년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부유하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도 불안의 시간 리듬이 연장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령 현재는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불안정한 경험은 미래를 더 이상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이

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핸들이 고장 난 채 빠르게 달리는 차에 탑승한 것과 같다.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르게 제반 여건이 변화하지만,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삶의 경로를 갖추고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불안은 공간성을 함께 갖는다. 그들에게 사회적 재생산은 노동 단위로서의 재생산을 포함하여 일상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육체적인 활동과 행위들을 함께 수반한다(이진옥, 2012). 이러한 재생산의 관계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대가 되는 적절한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중 주거 공간은 삶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자본화된 도시 속 상당수의 공간들은 일정한 금전을 지불해야만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이 가진 다차원적 가치를 소거하고 단위 면적당 비용으로만 귀결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필수적인 재화이며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공간을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매개를 통한 재생산의 기능이 충족되기보다는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의 수준의 축소로 귀결된다.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들은 이러한 공간적 소외와 배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은 노동의 불안정한 시간성을 기초 공간 단위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공명하며 증폭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 공간과 같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관계적일수록 그 불안과 소외 현상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년들의 관계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 다층적 시공간의 형성과 확장으로 귀결되게 된다.

#### 4) 불안지대(precairous zone)

각 주체들의 노동-공간(생산-재생산)의 관계성에 따라 다층적 시공간이 형성된다면, 그 개별적 특징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불안을

중심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형성되는 시공간을 ‘불안지대(precairous zone)’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준거로 살펴본 Lefebvre의 사회적 공간은 소외, 불안과 같은 도시 문제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일상 공간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사고 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Lefebvre의 공간 개념이 지닌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일상공간의 개별 주체에 대한 관찰과 설명을 위해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시공간의 단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보다 한걸음 더 다가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tanding이 논의한 불안계급의 대상들, 특히 여기서는 청년층으로 돌아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관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회적 공간 개념 틀 속에서 미진했던 개별 주체들에 대한 논의를 불안계급이란 대상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두 준거 틀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관계적 개념을 통해 도시 공간 내 생산-재생산에 대한 이론적 보완을 시도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하다.

누가 불안과 소외를 더 강하게 느끼는가?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도시의 특정한 시공간에 속하고 어떻게 이를 (재)생산하는가?

불안지대의 개념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불안지대란, 도시 공간 속에서 불안의 주체들이 지닌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며 불안이 가중되는 시공간이다. 다시 말해 개별 주체들의 다양한 불안정성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공간상으로 표출되어 지대(zone)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대는 무형이자 유형의 유동적인 시공간으로, Lefebvre(1992/2013, p.127: 최병두, 2018에서 재인용)가 설명한 사회적 공간이 지닌 이중적 맥락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즉 행위(불안)의 장이자 매체이고, 현실적인 동시에 잠재적이며, 양적이며 질적인 공간인 것이다. 고정된 상태만이 아닌 운동성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Lefebvre는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순응과 저항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불안지대 또한 이

와 유사한 측면에서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 내에서 왜 특정한 계층, 집단에게 불안이 가중되는지, 또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와 불안정화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 증가와 감소의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시공간을 진입하게 되고 또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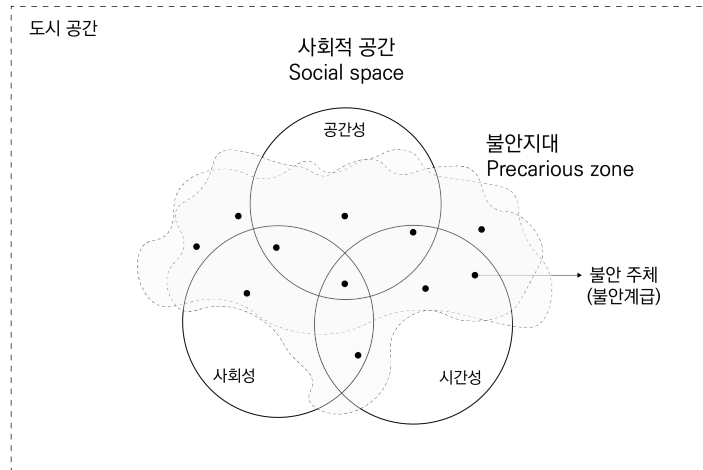
특히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실체를 넘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또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박인권, 2015). 다시 말해 불안정 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주거,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성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노동의 조건들과 자본의 축적이 더욱 심화되는 주거 공간과의 불일치가 불안지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불안지대는 도시 속에서 결코 단일하게, 혹은 균등하게 배치되지 않는다. 주거 공간과 같이 일상생활은 물리적 공간, 환경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Soja(2010, pp.72-73; 팍노완, 2013, 재인용)는 지리공간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기에 이와 연동된 공간적인 불평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자본이 추동하는 차별화, 균등화의 역학은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패턴을 공간상에 구체화한다(Smith, 1984/2017, p.174). 즉, 한정된 지리공간에서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이상 특정한 지대를 차등적으로 점유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공간은 불균등, 불평등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안지대의 개념은 불안이 도시 공간 속에서 일정한 시공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불안이 추상적인 개념인 동시에 일상공간 속에서의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불안의 조건을 체화한 인간 주체(앞서 불안계급으로 명명된)들의 생산-재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 또한 항상 공간상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안이라는 특성이 단일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관계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도시 내에서 일정한 불안정 시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림 5] 불안지대의 개념도 (연구자 구성)

## 2. 청년 주거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 노동과 소득 요인

주거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는 주택 시장 연구 대상자들의 소비와 지출 여력의 측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노동은 이를 확보하는 1차적인 수단이기에 노동의 위기와 불안정성은 주택 시장의 하위 소비 계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은 소득 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청년들의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에 내재한 불안정성의 특징과 그 양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의 노동 자체가 지닌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청년들의 특수성 때문에 겪는 부가적인 불안정성을 함께 포착한다.

먼저 해당 청년들이 어떻게 비정규 노동에 진입하고, 이를 수행하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김수영, 하은솔, 김영(2020)은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살펴

보았다. 이를 경제적, 관계적, 존재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정규 노동에서 발생한 불안이 오히려 비정형 노동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즉, 노동에는 본원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규적인 노동에서도 불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불안정한 노동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자발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비정형 노동을 선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2019)는 한국의 청년 프리랜서들의 질적연구를 통해 노동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는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계약의 불명확성, 낮은 협상력 등 노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휴식의 개념이 모호한 노동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그 적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에서 나타나는 노동 불안정성의 심각성과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용관계, 소득, 사회보험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 내에서 노동 불안정성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포착하였고, 소득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저연령, 저학력 집단이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성은 불안계급의 속성과 유사하다. 노동 진입 과정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처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불안계급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청년층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 고용 변화에 따른 소득 불안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주거 불안정성으로 이어짐이 확인된다.

먼저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택의 구입 또는 점유, 임차의 영향을 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현정, 김진영(2020)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와 주거불안 경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증부 월세의 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주거비 자립도 또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보증부 월세

계약 형태로 서울에 거주할수록 주거 불안정 문제를 가장 크게 겪었으며, 간접적으로는 주거비 인상이나 재계약과 같은 거주 권리문제도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수욱, 김태환(2016)은 점차 둔화하는 소득증가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과 임대주택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률, 소득증가율, 임대료지불능력(RIR)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의 고용 상태, 소득 불확실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불 가능한 주택 재고를 감소시켰고 그 중 중·저소득층 청년가구는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수가 80~90% 수준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 규모에 따른 불안뿐 아니라 소득의 변동성도 주거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용래, 정의철(2015)은 소득변동성과 주택점유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효용극대화 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노동패널(KLIPS)’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점유형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일수록, 교육기간이 커질수록 소득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소득 변동성이 커질수록 주택소유보다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변동성의 경우 35세~50세의 연령대가 가장 낮고 65세 이상이 소득변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소득 변동성이 10% 할 때 주택소유 확률은 0.4% 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불안은 결국 자산형성을 어렵게 하여 더욱 장기적인 주거 불안을 형성한다. 이소영, 정의철(2017)은 청년층(만 20~39세)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임차거주가 상대적으로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항상 소득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년층이 겪는 고용불안, 저임금 등이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가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정희주, 오동훈(2014)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2인의 청년 가구와 40대 집단 간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1,2인 청년 가구는 무상지원이

나 대출 등으로 주거비를 마련하였을 때 월세보다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산형성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사회적 요인

청년 주거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주거 불안정성의 경험은 사회적 관계,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거주 공간을 둘러싸고 성인기로의 이행, 가족과의 관계, 자산 및 공간의 질 격차, 거주지역 내의 정주환경 등의 측면이 복합되는 주거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거 공간은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요구되는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된다.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2017)은 청년들의 주거 빈곤 진입 경로와 주거 불안 경험을 사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하였다. 고시원 등에서 살아가는 5명을 대상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에 홀로 상경하여 가족과의 분리, 공간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계획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그 불안과 잦은 거주 이동에 따른 삶의 계획의 어려움과 불편함,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한 안전이나 불쾌한 경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영주, 박인경(2020)은 청년 1인가구가 주거환경으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의 방음과 소음, 환경의 쾌적성에 대해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은 소득과 주거안정, 건강 등을 지목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으며, 소득이 낮고,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노동 위기는 청년층 고유의 불안 요인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청년들이 겪는 고용과 소득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 뿐 아니라 가족

과 사회 기득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심리·정서적 측면, 인적 자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상미, 윤효은, 김한성(2019)은 청년 고용의 문제를 청년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그 속에 내재한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수급가구 11명의 면접을 통해 빈곤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청년들은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을 자신들의 삶의 장벽이라고 이해하는 한편, 가족의 빛과 부양의 문제, 책임감과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주거 불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끼며 불안정성을 체화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복지 혜택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면서 미래의 준비 과정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거 독립 과정은 젠더와 가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진영(2017)은 청년들의 주거 선택과 생활 과정에서 젠더와 계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시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였고,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성별화 된 경험임을 드러내었다. 특히 계급이 젠더와 교차할 때 젠더와 관련된 요소가 확장되거나 제한됨을 밝혔다. 정민우, 이나영(2011)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경험을 통해 독립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계급이나 젠더, 연령, 가족 이데올로기 등이 서로 충돌하거나 협상하며 그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독립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보였다. 제도적 결혼을 통한 가족의 재구성이 독립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 독립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이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단순히 주거 문제 뿐 아니라 공간에 내재한 독립을 규정짓는 요소들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최근 가족,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들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살피는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소영, 이창무(2019)는 청년들의 주거 상향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자가로 전환할 확률, 전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자녀의 순자산이 부모의 순자산보다 주거 상향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스스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였다. 김영미(2016)는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평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기회 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매우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대학진학,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 형성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주거 이동 요인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은 생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동 과정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심리적 비용으로 인해 한 주거지에 머무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지나치게 잦은 주거 이동은 비자발적인 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을수록 주거 공간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일상생활의 불안은 높아지게 된다(노승철, 이희연, 2009).

먼저 소득 수준 별 주거 이동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공통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이동 기회 및 주거 상향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희선(2019)은 소득계층별 주거 이동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년 동안 주거 이동을 실시한 가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구직 여부가 주거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주할 확률은 낮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이동확률이 급격히 높아진 점인데, 동일 연령 내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그 확률은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이동의 자유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홍성조, 안건혁(2011)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간 주거 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

든 소득계층에서 유의미한 주거수준 개선이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 개선정도는 낮았다. 특히 역내, 역외이동을 구분하였을 때, 역내이동일수록 주거수준 개선 정도가 낮아져 지역수준이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노승철, 이희연(2009)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을 주거 불안정성의 지표로 하여 주거 이동을 통한 주거불안정성 변화요인을 다항로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향이동비율이 작고 지역 주택시장 특성이 빈곤층 주거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의 주택시장의 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은 1인 가구 혹은 주거 빈곤층과 같은 집단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립한 다수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거 이동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경우에 직업과 고용에 따른 주거 이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조미현, 송재민(2020)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 차원에서 1인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직업과 주택을 중심으로 요인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직업요인에 의한 인구이동 수가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거 이동에는 주택 요인보다 고용 및 경제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들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사회에 첫 진출하는 피고용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2019)은 1인가구로 재편되는 가구형태에 주목하고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분포와 주거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이동유형 특성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인접구로의 이동이 많은데 비해, 청년층의 경우 이동 빈도가 높고 이동 반경도 훨씬 넓었다. 특히 주택으로 인한 이동 사유보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 사유가 더 높아 청년층의 경우 주거 이동에 직업요인이 큰 영향임을 확인된다.

한편 청년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외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에 주거 이동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이주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 이동에는 자발적인 측면과 비자발적인 측면, 자가와 차가의 점유 형태 등에 따라 혼재하여 나타나고 이는 주거 불안정성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이민주, 2019).

이민주, 박인권(2019)은 이를 주거 이동을 통한 공간적 배제<sup>7)</sup>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주거 이동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동기에 주목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하락을 살펴보았다. ‘주거실태조사’의 5개년 자료를 결합하여 서울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층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주택시장 요인이 주거 공간의 공간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은 주택가격, 아파트 비율이 대표적인 지역 요인이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공공임대 재고 수,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과 같은 도시정부의 정책 변수들은 배제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수가 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인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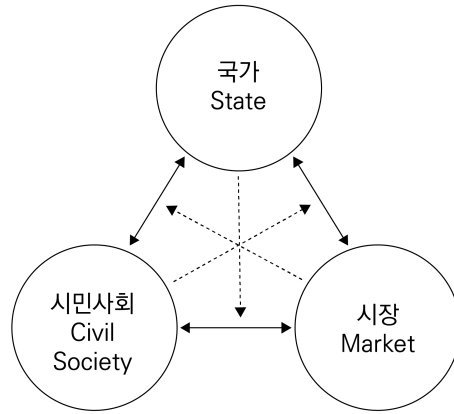
이때 해당 연구에서는 그 역학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Wright(2011)의 국가·시장·시민사회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Wright(2011, p.407)는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국가(state), 시장(market),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보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과 시장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의 행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시장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또한 그 활동이 활발할수록 국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국가와 시장 간의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시장 또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Wright, 2011, p.408). 이처럼 Wright의 모

---

7) 여기서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는 사회적 배제가 공간적 요소를 계기로 실현된 현상으로, 사회적 약자가 주거를 비롯한 생활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고립되거나 각종 기회와 자원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제약된 상태와 그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형은 세 영역이 대립, 매개, 중재하는 역할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6] Wright의 국가·시장·시민사회 모형  
(출처 : Wright(2011), p.407, 연구자 작성)

본 논문에서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화를 둘러싸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관계)과 같은 다양한 주체와 영역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현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화하는데 있어 Wright의 모형이 좋은 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론 모형의 구성에 있어 함께 활용하고자 하였다.

#### 4)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과 소득,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비자발적 주거 이동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존의 사회적 틀 속에서 청년층을 대상화하여 규정한 후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도시 공간 혹은 지역 주택시장의 측면에서 청년들은 주택을 소비하고 이동하는 대상일 뿐, 청년들의 주체적인 위치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많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청년들은 일정한 나이의 범위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만 규정되고 그 내의 청년들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재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청년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기에 왜 지금의 청년들이 불안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어떻게 다른지, 그 실질적인 경험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졌으나 각각의 요인들이 불안의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과 경로의 전반에 대해 탐색하고 고찰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생산적 차원의 노동 과정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이해된 측면이 크다.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겪는 문제만을 강조할 뿐, 이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서 겪는 다양한 내·외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청년들은 처음으로 홀로 다양한 공간들을 전전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공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는 만큼, 그 과정 전체에 걸쳐 소득과 주거의 불안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청년들의 노동 위기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되, 그들이 일을 수행하는 다양한 과정과 태도를 포착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들에 내재한 불안정 요인들이 어떻게 불안을 더 가중하는지 청년들의 주거 경험 자료에 바탕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 독립을 시작하여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불안을 형성하고 증대하는지 불안정화의 과정을 고찰한 것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청년들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들, 국가의 정책이나 지역의 주택시장, 마주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불안을 감소하거나 증대시키는지 그 관계를 모색해 본 것에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 3. 연구 분석 틀

본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주거 불안을 통해 구체화되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선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였다. ①청년들을 통상적인 인구통계학적 범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성과 시대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험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 ②청년 주거 불안을 형성하는 각 요인들이 삶의 불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과 경로에 대해 탐색하고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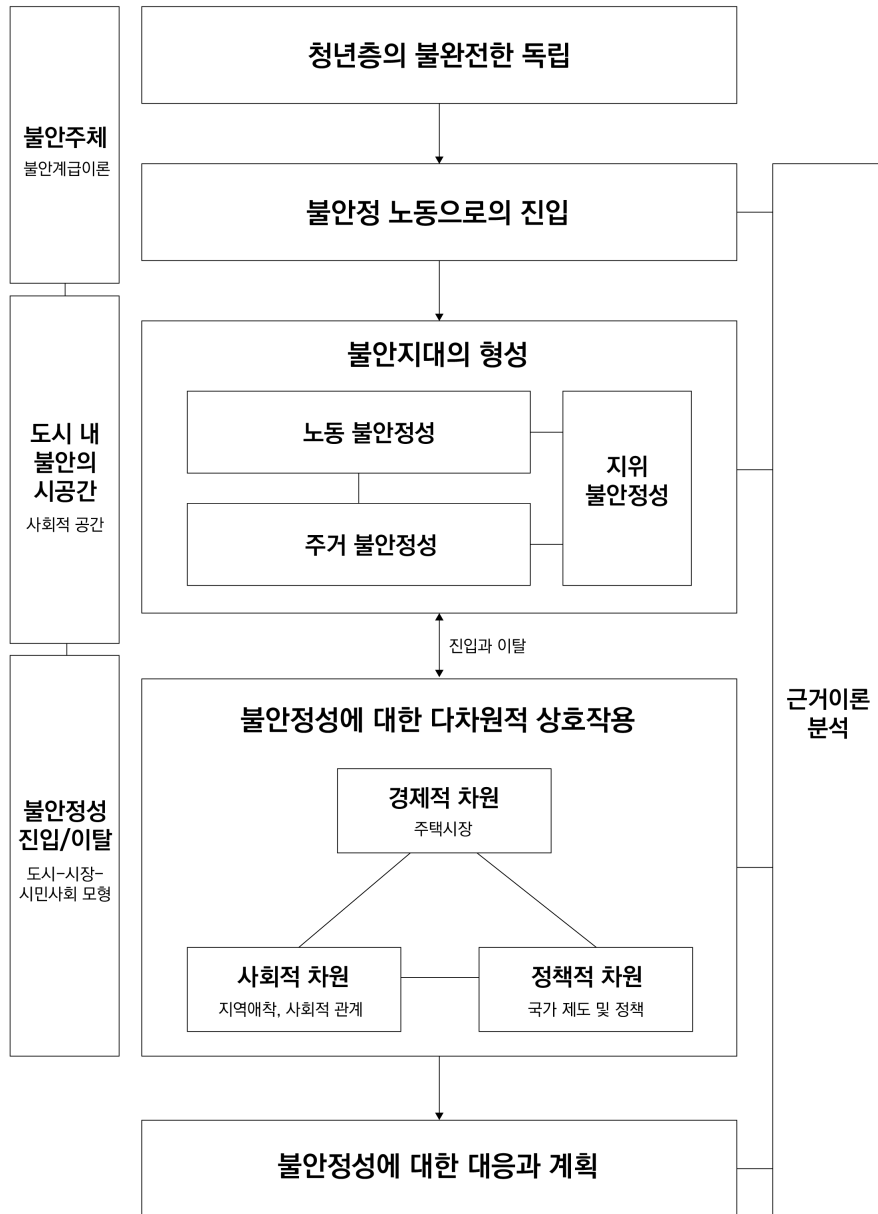
위 내용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 노동과 주거 경험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독립에서부터 불안정 노동으로의 진입,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노동과 주거 경험의 경로를 생애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불안정화 과정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하고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불안지대’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안 주체 중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화 과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독립 후 불안정한 노동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청년들에 내재한 불안정성 요소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불안을 지속하는 시공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불안지대의 진입·이탈 경로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주택시장), 정책적(국가제도 및 정책), 사회적(지역애착, 사회적 관계) 차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그 후 청년들의 대응과 계획을 살핍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모든 연구 자료는 청년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며 근거이론의 방법을 통해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다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년들이 갖는 불안의 교차 속에서 어떤 불안지대가 형성되고 고착되는가? 둘째, 청년들이 불안지대에 진입·이탈하게 되는 과정 및 경로는 무엇인가? 셋째, 불안지대의 청년들은 어떤 공간적 대응 및 계획을 실천하는가?

이상의 흐름을 도식화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연구 분석 틀

### III. 연구방법 및 자료

#### 1.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 1) 근거이론 방법의 필요성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 속에서 연구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즉 인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조직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자료 안의 패턴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Bogdan & Biklen, 2007).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Glaser & Strauss(1968)에 의해 만들어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이미 형성된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둔 자료(data)에 근거를 두고(grounded) 귀납적으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론이다(Glaser & Strauss, 1968; Strauss & Corbin, 2015; Birks & Mills, 2015). 이는 연구자가 이미 형성된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이론이 생성되도록 하는 귀납적인 연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그에 대해 '기술'하고 기술된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성을 구축(Hallberg, 2006)하여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과 미흡한 연구 과정이 한계점으로 지적되는데, 근거이론은 비교적 엄격한 분석 절차와 틀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근거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과정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뼈대를 두고 있기에, 청년층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

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근거이론 연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론이 조사과정의 산출물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이론이란 ‘그 범주와 개념이 핵심범주에 통합되어 무엇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설명적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Strauss & Corbin, 2015/2019, p.16). 즉, 현실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개념과 범주들로 나누고 그들의 관계성을 구축하여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harmaz, 2006/2013, p.138). 따라서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는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과 미흡한 연구 과정을 보완하며 타당성 있는 이론이 ‘출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엄격한 분석 절차와 틀이 요구된다.

## 2)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

한편, 국내에서는 패러다임 모형과 같이 특정한 학파 또는 세대가 제시한 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연구 경향이 우세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김은정, 2017). 모호한 데이터 분석의 과정에서 분석의 지침이 되는 모형이 제공되고 연구자는 그 틀에 맞추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기만 하면 되는 용이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수동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LaRossa, 2005). 그러나 근거이론은 결코 단일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연구 방법론이 아니다(Denzin, 2007). 1967년 처음 소개된 이후 근거이론은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관점 속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실천적인 발전과 변화가 요구된다(Chun Tie, Birks & Francis, 2019). Charmaz(2006/2013, p.26) 또한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근거이론의 기본적인 분석 과정을 충실히 따르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능동적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1차 코딩	2차 코딩	3차 코딩
클레이저와 스트라우스(1967)	코딩과 사건의 비교	범주와 속성 통합	이론 구체화
클레이저(1978)	개방 코딩	선택적 코딩	이론적 코딩
스트라우스와 코빈(1990, 1998)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차마즈(2014)	1차 코딩	초점 코딩	이론적 코딩

[표 4] 각 코딩 절차에 대한 학자 간 비교 (Birks & Mills, 2015, p.104 재구성)

[표 4]와 같이, 학자들의 이론과 절차에 대한 철학적 입장에 따라 세부적 명칭, 진행 과정에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의 핵심 원리는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1, 2, 3차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코딩(coding)의 큰 줄기 속에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과 메모(memoing)를 수행하고, 범주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론적 통합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단계별 코딩을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 초기(initial), 중간(intermediate), 고급(advanced) 코딩으로 지시하며 가장 통합된 수준에서 정리한 Birks & Mills(2015, pp.104-128)의 것을 차용하였다.

### (1) 초기 코딩(Initial coding)

1차 코딩인 초기 코딩은 중요한 단어나 단어의 집합체를 찾고 적절한 명칭을 붙이는 단계이다. 자료를 쪼개어 사건들을 비교함으로써 유사성 또는 차이의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분석 단계에서는 기록된 자료를 문장별로 해석하여 이름을 붙이는 줄별 코딩(line by line cod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명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자의 선입견이 포함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분석 방향이 수립되면, 범주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분절된 코딩들을 종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위 코드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1차 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개념적 가

능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바탕을 갖출 수 있다. 초기 코딩 단계는 특히 성찰적 활동이기에 메모 등을 통하여 초기 분석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문하며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Birks & Mills, 2015, pp.48-49). 본 논문에서도 특기할 측면이 있을 때 메모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코딩들을 검토하며 수정 및 통합 과정을 거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중간 코딩(Intermediate coding)

2차 코딩인 중간 코딩은 초기 코딩에서 도출된 코드들 간의 개념적 분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1차 코딩과 별도의 과정이라기보다 이어지며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코드 간 비교와 통합을 통해 비슷한 사건, 행동, 상호작용에 따라 하위범주를 이루고, 보다 상위 차원의 범주(categories)로 그룹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이때부터 설명력을 지닌 개념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범주들의 관계 속에서 다차원적이고 넓은 개념의 질서를 묘사할 수 있다. 즉, 중간 코딩의 핵심은 범주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코드 간 지속적인 비교를 거치며 범주화가 진행될수록 부족한 속성과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도출한 개념적 패턴과의 갭(gap), 부족한 연결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절차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수행한다. 이론적 표집이란 이론의 출현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석과 자료 수집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근거이론의 표집 과정으로, 분석되는 범주들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Glaser & Strauss, 1968; Charmaz, 2014; Birks & Mills, 2015). 본 논문에서도 일시에 모든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범주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코드를 발견할 수 없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하였을 때 자료의 수집을 중지하였다.



### (3) 고급 코딩(Advanced coding)

마지막 분석 절차인 고급 코딩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서로 연결시키거나 통합시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초기, 중간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형을 제시하지만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급 코딩 과정을 통해 코드와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이론적 코딩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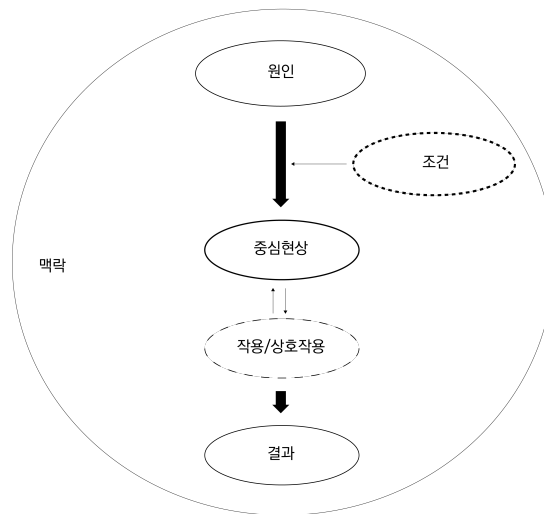
Glaser(1978)는 3차 코딩의 과정을 분절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앞선 단계에서 범주들로 이루어진 가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고급 코딩 단계에서 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뒤, 이론으로 통합·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Strauss & Corbin(2015/2019, pp.168-178)은 축코딩의 과정으로 패러다임과 매트릭스 모형을 제시하며 이론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분석틀을 설명하였다. Charmaz(2014)는 마지막 단계가 최종 산출물의 명확성, 정확성을 향상시키지만 반드시 모든 프로젝트가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거이론에서 가장 모호하고 논쟁적인 부분이 바로 3차 코딩의 단계이다. Birks & Mills(2015, p.98)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범주들의 발전일 뿐, 분석의 틀은 연구자가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Glaser(1978)가 근거이론을 정립하면서 6C로 제시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되, Strauss & Corbin(2015)의 패러다임 모형이 갖는 유용성을 고려한 이론적 코딩 유형<sup>8)</sup>을 도출하였다. 각 범주들의 관계가 포괄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원인

---

8) Glaser(1978)은 원인(Cause), 맥락(Context), 수반된 사건(Contingence), 조건(Condition), 공변(Covariance), 결과(Consequence)가 포함된 6C 외 18개의 이론적 코딩을 제시하였고, 이후 반대쌍(paired opposite), 제시(representation), 척도(scale), 단위 정체성(unit identity) 등 (Glaser, 1998)으로 확장한 바 있다. Strauss & Corbin(2015/2019)은 패러다임 모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제시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저서에서 조건,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의 3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Cause) - 조건(Condition) - 중심현상(phenomenon) - 작용/상호작용 (action/interaction) - 결과(Consequence)로 이어지는 분석 틀<sup>9)</sup>을 형성하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의 질문 속에서 설명 틀이 구체화되며 각 범주들의 조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storyline)이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그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 경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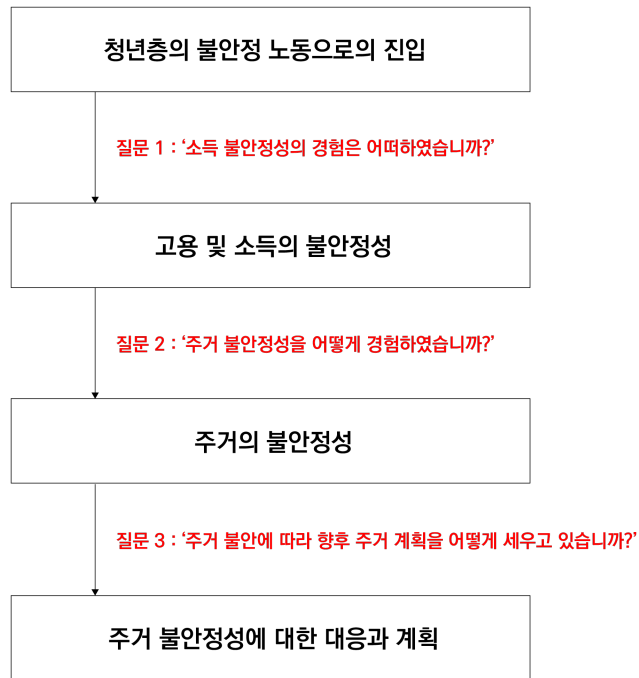
[그림 기] 고급 코딩 과정의 분석 틀 (연구자 재구성)

## 2. 연구 문제의 구체화 과정

발견에 기초를 두는 근거이론의 특성상, 최종적인 연구 문제를 미리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 청년층의 ‘노동 불안정성과 주거 불안정성의 경험 과정’이라는 초기 연구 키워드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5~7월 동안

9) 여기서 맥락(context)이 제외된 이유는 맥락이란 많은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며, 어떤 상황의 일부, 문제, 문제 및 이에 관련된 작용과 상호작용의 사건, 환경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2015, p.166). Glaser(1978) 또한 6C 중 하나로 이론적 코딩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모든 코딩군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주거 불안이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맥락의 개념을 정의하였기에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자와 이미 알고 지내 온 청년 5인을 대상으로 노동, 주거와 관련된 불안 경험을 듣는 파일럿 인터뷰(pilot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의 과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아직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위기감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 불안은 직접적인 주거 유지의 문제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따라 그 경험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파일럿 스터디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림 8] 청년층의 불안경로에 따른 질문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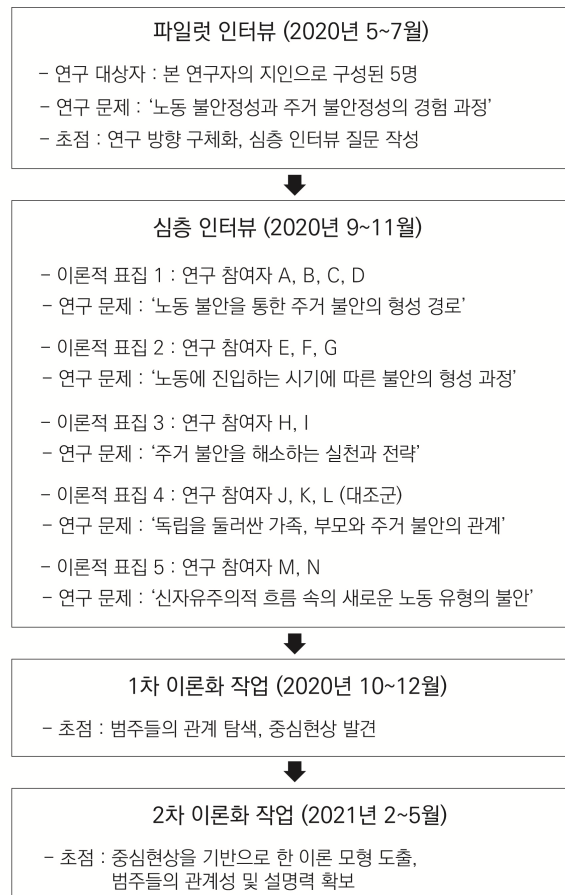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어떠한 주거 불안을 경험하였습니까?’라는 상위 질문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림 8]의 주거 불안 경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소득 불안정성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의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을 통해 특수고용노동, 비정규 노동의 경

험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주거 불안정성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의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독립 후 경험한 주거 이동 과정을 포함하며, 소득 뿐 아니라 주거 불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주거 불안에 대한 대응 과정에 따라 향후 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의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였고, 주거 불안정성이 향후 주거 소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하였다. 세부 질문의 구성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총 14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사전에 모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표집에 따라 필요한 표본을 연구 진행 과정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첫 번째 이론적 표집 과정으로 연구 대상자 A, B, C, D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안을 증점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때 청년층이 노동에 진입하는 시기가 범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였다. 통상 청년들은 학업이 종료된 후 구직 활동을 통해 노동에 진입하지만,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충분히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이론적 표집에서는 이른 시기에 노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 E, F, G의 경험의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노동 불안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 속에서 ‘함께 살기’와 같은 대안들을 통해 주거 불안의 감소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 H, I의 경험을 수집하였다. 한편, 청년들은 부모와 단번에 분리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 독립을 하였다가 도시 회귀하기도 하는 등 가족 및 부모의 존재가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노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연구 대상자 J, K, L의 경험을 수집하였다. 특히 이미 독립한 청년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조군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최근 불안정 노동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연구 대상자 M, N을 모집하여 다소 미진하였던 불안정 노동과 주거 불안의 관계를 보충하였다. 이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연구 문제 구체화 과정

### 3. 연구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자의 선정

#### 1)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는 크게 3가지의 경로로 모집하였다. 먼저, 주변 지인을 통해 연구 대상자 모집문을 전달한 후 해당 조건에 맞는 연구 대상자의 소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연구 대상자를 추가로 섭외하였다. 이때 해당 방법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용이하나, 표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sup>10)</sup>,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모임 등에 연락하여 연구 대상자를 소개 받거나 모집문을 공고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끝으로 온라인 SNS에 공고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였고, 녹취를 통해 자료를 전사<sup>11)</sup>하였다. 통상 인터뷰의 초기에는 경험의 전달이나 묘사력이 다소 감소하기에 약 30분~1시간가량을 할애하여 최소한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인터뷰 도중 대화의 흐름이 연구 주제에 벗어나게 되는 경우 연구 대상자 스스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인터뷰 내용을 조정하는 태도도 보였으나 그럴 때에는 연구 대상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중에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경제적인 활동과 주거 이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인터뷰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분석한 기본적인 코딩과 범주들은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 바탕을 두었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 단행본, 기사 자료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선정

###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

---

1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가사도우미협회, 직장갑질 119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11) 인터뷰의 전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어 맞춤법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용어와 말투를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인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직업군에 속하거나 이러한 노동을 통해 주요한 수입을 획득하였던 자들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불안계급의 주요 대상일 뿐 아니라 실제로 타 직종보다 직접적이고 빈번한 소득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은 연구의 목적과 정책, 생애 주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연령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범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연령 구간은 연구 대상자들이 스스로 청년임을 자각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범주인 만큼, 가장 타당도가 높은 기준이라고 판단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들이 겪는 주거문제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수준이 높은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발생되므로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2회 이상의 주거 이동을 경험한 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주거지의 이동은 주거 유형의 변화, 학업, 취업 등 일반적인 경우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주거비용의 문제, 임대인과의 갈등 등 다양한 동인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주거 하향, 공간적 배제 과정을 포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 장소에서 오래 거주한 것보다 빈번한 이동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거주 불안정성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거 불안 경험은 각 연구 대상자들이 마주한 주거 불안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구성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수집된 연구 대상자는 남성 6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만 26세(1994년 생)부터 만 32세(1988년 생)까지 분포하였다. 독립 후 다양한 주거 유형을 경험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연구 대상자를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 이동 횟수는

1~11회까지 분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L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력으로 주거비 및 생활비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 대상자는 주거비(보증금 포함)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보조 받았다. 고용 형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6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6명은 계약직, 인턴,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고 2명은 특수고용형태로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월 소득은 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월별로 큰 소득 편차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ID	성별	연령(만)	현 근로 형태(직업)	월 소득 편차(만원)	이동 횟수	현 주거 공간 / 임차유형
1	A	여	1991년 (29세)	프리랜서 (건축설계사)	100~250	6회	투룸(+친언니)/전세 (서울시전세대출)
2	B	남	1992년 (28세)	프리랜서 (사진작가)	80~230	11회	공유주택/월세 (서울시 매입리츠)
3	C	여	1993년 (27세)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0~300	3회	투룸/월세
4	D	여	1990년 (30세)	계약직(1년) (문화·전시기획자)	200	2회	원룸/월세
5	E	여	1992년 (28세)	파트타이머/대학원생 (행정보조)	70~100	6회	기숙사
6	F	남	1994년 (26세)	파트타이머/대학생 (각종 아르바이트)	80~150	3회	1.5룸/전세 (LH대학생대출)
7	G	남	1989년 (31세)	인턴(정규직 전환) (마케팅, 촬영보조)	210	6회	원룸/월세
8	H	여	1994년 (26세)	계약직(1년)-취업준비 (콘텐츠 플랫폼 잡무)	120~150	4회	쓰리룸(+지인)/월세
9	I	여	1991년 (29세)	파트타이머 (사무 보조)	180~190	9회	쓰리룸(+지인)/월세
10	J	남	1990년 (30세)	프리랜서 (GX 스피닝 강사)	0~230	4회	부모님과 거주
11	K	여	1992년 (28세)	프리랜서-계약직 (온라인방송 기획자)	170~240	5회	부모님과 거주
12	L	남	1992년 (28세)	특수고용-정규고용 (제품기획자-기업사원)	250~300	1회	부모님과 거주
13	M	남	1994년 (26세)	특수고용 (플랫폼(디자인) 노동자)	80~250	4회	투룸/월세
14	N	여	1988년 (32세)	프리랜서 (타투이스트)	0~180	11회	스튜디오 일부/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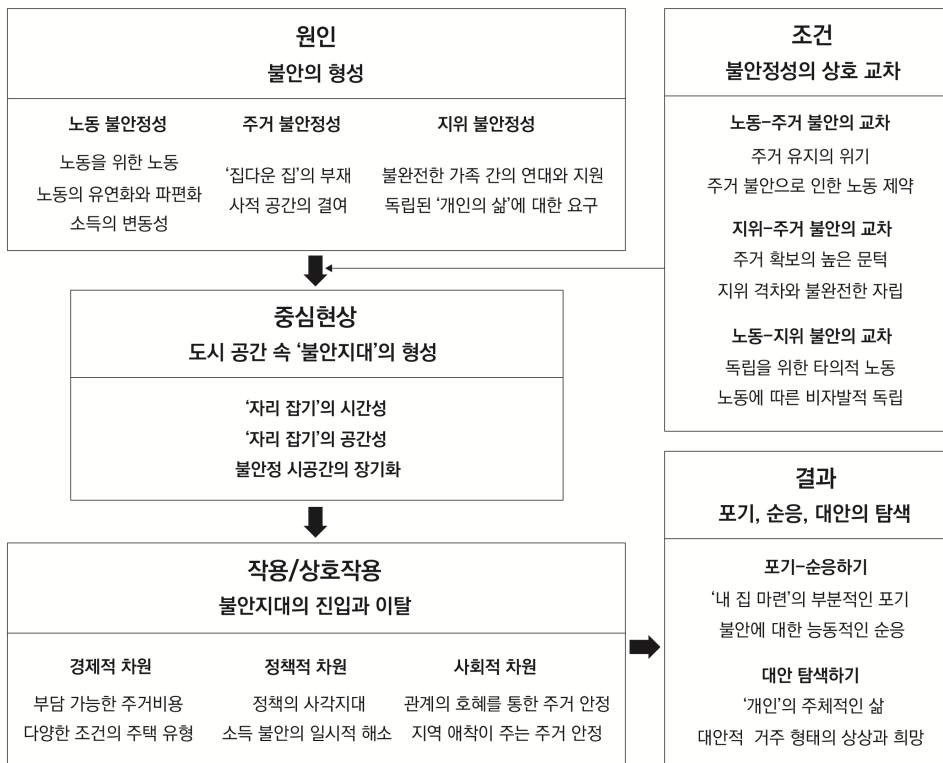
[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



## IV. 청년층 ‘불안지대’의 형성 과정 분석

### 1. 범주의 발견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14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수차례 초기코딩과 중간코딩을 시행한 결과, 총 144개의 코드들과 75개의 하위범주, 2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고급 코딩의 단계에서 5개의 이론적 코딩으로 재구성한 분석 틀에 따라서 범주들의 관계성을 탐색하고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3개의 핵심 범주로 정리되었다. 다음 [그림 10]은 범주, 핵심범주를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코드들은 [부록 2]로 제시하였다.



[그림 10] 근거이론의 분석 틀에 따른 범주화 과정

## 2. 원인 : 불안의 형성

### 1) 노동 불안정성

먼저 노동 불안정성은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불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소설가 Virginia Woolf가 그의 저서 『A Room of One's Own』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생활비용)과 방(거주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 구분되는 차원의 요소들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경제적인 자원으로 환산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독립 시 누군가 금전이나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을 통해 해당 요소들을 직접 획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청년들이 노동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은 학업, 구직, 진로 준비 등을 이유로 단기적이고 불규칙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것은 독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청년들이 가진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독립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시간과 금전 간의 유연한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F의 경험처럼 끊임없는 계획과 실천을 통해 그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

*“엄청 단기적이고,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다음 달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항상 있죠. 그리고 일을 해도 돈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잔고를 보고, 들어올 돈 계획을 따져보면... 미리 미리 이걸 계산해 놓고 움직여야 되요. 그래서 불규칙적이지만 일은 있는 데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F]*

이러한 과정은 청년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노동에 진입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하고 수입은 적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노동의 탐색 시간은 줄여주지만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조건의 노동을 선택하는 동인으로 작동하게 한다. 더욱이 불안한 상태에 대한 걱정,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은 일을 하는 도중에도 항상 제2, 제3의 일을 보험처럼 계속 찾아보

게 만든다. 불안정한 일의 양만 늘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Standing(2011, pp.56-57)이 묘사한 ‘불안의 덫(precarious trap)’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학교 교육 후 획득되는 일자리가 상당수 임시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불안의 주체들은 당장의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막다른 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덫’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스펙과 자기계발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노동 구조 속에서 이를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고 점차 ‘괜찮은 일자리’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 지구화된 노동 시장 속에서 일은 더 이상 노동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쉽게 생겨나고 기존의 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단 ‘이것저것’ 일을 구하고 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유연하게 변화하는 노동 시간이 갖는 규율에 청년들 스스로가 혼용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G의 경우처럼 이로 인해 더 악조건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노동자의 ‘시간’만 필요로 하는 상황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G는 혹시나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배움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새로운 일에 뛰어 들었지만, 결국 자신의 노동력만을 원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만다.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힘들어져서, 좋아하는 일이라면 버티고 할 텐데, 군대 전역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다 보니까...틈틈이 일본어를 배우는 와중에 ‘여기라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일본 의류 회사에 들어갔는데, 진짜 1도 배우는 것 없고 (웃음). 배송 쪽 알바만 하다가. 아이씨, 여기서 알바만 하는 것은 의미 1도 없다, 안되겠다.” [연구 대상자 G]*

유사한 맥락에서 북미의 임시적인 노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David & Houseman(2010)은 실업 후 첫 일자리를 임시적인(temporary)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연간 소득 및 장기적인 수입이 더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남을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일이 없거나 충분한 탐색 시간 없이 급하게 선택하는 일은 대개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끊임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일을 하며 삶이 나아지기 보다는 더 악화 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며 이는 현재 청년들의 노동 불안을 심화하는 요인이 된다.

### (1) 노동을 위한 노동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이러한 노동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현재의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고충 중 하나는 제대로 된 노동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차적인 노동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있다. 정식 일을 획득하기 전까지 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일은 구하는 과정 뿐 아니라 유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약 단기적인 일을 전전하는 경우, 매 회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시간, 그리고 일에 적응하는 시간 등이 함께 수반된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들여 수행한 단기적인 노동은 대부분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순 노동에 가까운 ‘물경력’으로, 현재의 노동이 미래의 노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노동의 시간성은 실제 노동 뿐 아니라 그 전후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으로 형성된다.

*“파트타이머를 정규직으로 뽑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개인적으로 더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일이 단순 노동에 가까운? 저도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요. 일단 소위 물경력이라고 하잖아요. (했던 일들은) 물경력이었고.” [연구 대상자 H]*

그리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소한 2~3달을 버틸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 또한 진입과 이탈이 용이한 불안정한 일의 특성상, 본인 외에 누군가 그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하여 일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희망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업주가 부르면 무리해서라도 일을 가거나 원하지 않는 일까지 떠맡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정

한 일자리에 진입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머물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실 속의 문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지원 제도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이 있다. 실질적인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된 청년의 수로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고용된 업체와는 별도의 제3의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소속된 업체와 실제로 수행한 일이 달라 향후 일을 구하거나, 본인의 경력을 입증하는데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장에서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청년들은 업체의 문제보다는 정책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자리에 치중된 지원이 청년에게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소득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노동으로 인한 물경력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임시적인 노동만 늘어날 위험이 있다.

*“소개를 받아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갔는데, 그 사업이 점점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려고 있는데, 소개한 분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쪽 일만 조금 도와주고 있어라, 월급은 거기서 정부 지원금으로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홍대 일(소개한 분)을 도와주는데, 그게 점점 미뤄져서 8월부터 12월까지 홍대 일만 했어요. 그쪽 일만 하는데 월급은 나랏돈으로 받고 (웃음). 진짜 애매한, 이래도 되나.” [연구 대상자 G]*

본인이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는 보장되나 본 노동을 위해 투입되는 부가노동의 압박은 훨씬 심해진다.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든 결과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난다. 경쟁이 심해지고 임금이 아닌 수당의 일을 지속할수록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노동 시간도 함께 늘어나 개인의 삶을 돌볼 시간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하는 만큼 버는’ 일이지만, 상당수의 경우 개인이 완전히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 외에 투입되는 시간은

근로 소득의 불안정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서 일감을 얻는 경우, 보이지 않는 관리자의 감시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훈육한다.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 제공 방식이나 업무 형태는 유사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선전과 자기희생이 필수적이다. 요컨대 광고비를 내고 상위 노출을 획득하거나 노동 외의 시간을 서비스로 제공하여 높은 평점을 유지해야 한다. M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리며 일을 이어가고 싶지만, 노동 조건이 가진 ‘피 말리는’ 고충을 토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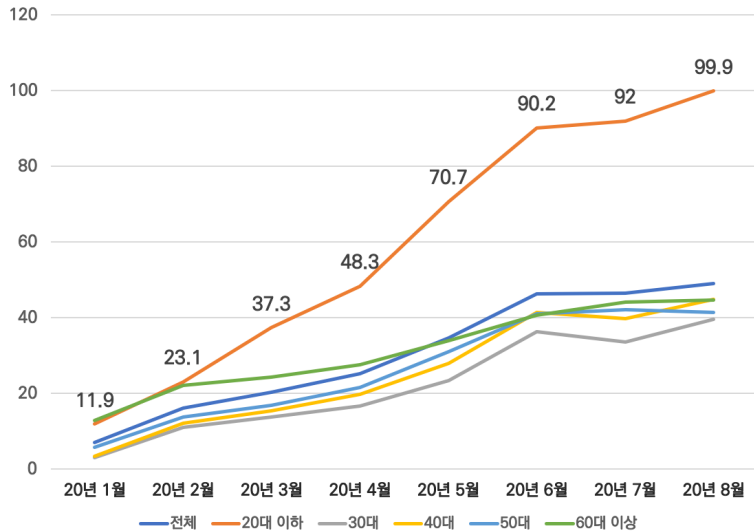
“일단, OO이라는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결제를 해야 되요. 수수료는 무조건 20%이고요...여기도 클라이언트가 진정한 갑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끝내고 나서 리뷰를 남기게 되는데, 진짜 폭탄을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통 과정에서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불편했다, 아니면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다...그래서 5점이 만점인데, 한 3점 받으면 페이지가 두 개는 뒤로 밀려가요. 그럼 또 일이 안 들어오죠. 4.8 밑으로 내려가면 재생 불가라고 볼 수 있어요 (웃음). 진짜 피 말려요.” [연구 대상자 M]

상기의 내용처럼 상당수의 청년들은 여러 고용 형태로 불안정 노동에 진입하지만, 대부분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이미 수행 중인 노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또 다른 노동 시간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도리어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하게 된다.

## (2) 노동의 유연화와 파편화

증대되는 불안정한 노동의 또 다른 위험은 노동 위기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일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고용 조건과는 다른 형태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모호한 업

무구조 등으로 인해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청년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며 유연하게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2019년 처음 발발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할 때까지 지속된 COVID-19의 상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 연구 대상자들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거나 일감을 상실하였고, 운이 좋게 당장은 일이 끊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전가되거나 하던 일이 쪼개지고 파편화되면서 노동이 가중되기도 한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 노동의 경우 인원을 가장 유연하게 감축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가장 실질적인 타격을 입으며 아래 [그림 11]의 그래프처럼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증감률을 보았을 때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대의 경우 전년도 대비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비율로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노동 위기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집단임을 시사한다.



[그림 11] 전년도 동월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감률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에서만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국가 위기로 인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청년들의 노동에 내재해 있던 불안정한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고용자의 이익 추구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속성을 공유하는데서 오는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L은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계약직으로 있었던 곳은 OO기획이었는데, 거기가 운영되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정규직은 많이 뽑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따오면 정규직은 예를 들면 팀장급 한 명, 밑에 대리급 한 명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구성된 뒤 프로젝트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요. 6개월짜리면 기간에 맞춰서 계약하고 연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그리고 이제 파견직으로 다 바꾸는 추세고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들, 재계약 문제 같은 것들도 있으니깐...근데 파견직은 용역회사에서 FEE를 받아가기 때문에 계약금보다 더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죠.” [연구 대상자 L]

즉, 프로젝트 단위 또는 개별 일감 형태의 일들은 그 특성상 유연하고 파편화된 노동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주로 경험이 부족하고 소득이 급한 청년들에게 일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하는 노동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일까? 이에 대해 Sennett(1998/2002, pp.80-85)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유연한 변화의 본질은 과거와 단절하고 다가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도록 개혁하는 것이기에, 정형성에 대항해서 새로운 자유가 출현했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말한다. 즉, ①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능력, ②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신감은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인간성의 특성이지만, 그 체제 내의 하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의 언급처럼 이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층에게 더 큰 실존적 불안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나뉘는 게 너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8시간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너네와 달라. 그래서 휴게 공간을 저희는 못 썼거든요. 라운지를 저희는 못 썼어요. 처음부터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렇게 (저희) 존재를 지우는 식의 차별들이 만연했죠.” [연구 대상자 H]

이렇듯 청년들은 각자가 가진 자질과 처한 상황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동 조건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지만, 그럼에도 손에 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이 통과의례처럼 되어버린 사회의 규율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불안감을 최대한 희석시킨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어려움,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차별적 감정들 또한 증대되며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3) 소득의 변동성

불안정한 노동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로서 본 논문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높은 소득의 변동성이다. 그동안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인·가구 단위의 소득 규모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연평균 또는 월평균과 같이 1년을 시간 단위로 하여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낮을수록 하위 계층에 속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체계는 소득의 크기를 비교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노동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은 단지 소득의 크기만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들쭉날쭉한’ 변화 폭을 갖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훨씬 큰 변동성을 가지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바꿔 주셔서 매장 알바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방학 때는 항상 그렇게...들쭉날쭉해요. 학기 중 한 달에 80만 원은 벌었고, 방학 때는 150~16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I]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준의 소득 변동성을 경험하지만 특히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의 경우, 어떤 달은 소득이 ‘0’으로 수렴할

정도로 소득 규모의 편차가 크며 들어오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았다. 일이 끊기거나 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와 책임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해당 고용 형태는 대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비상금을 적립해두는 형태로 소득의 변화에 대비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며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큰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뭘 회사라면 일정한 소득을 받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많이 컸어요. 4개월 동안 없었던 거죠. 수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회복이 완만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2.5단계가 터졌잖아요? 또 2주를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힘들어지는...예전의 절반 정도 벌고 있어요. 심각하죠.” [연구 대상자 C]

“제가 하는 GX 강사 일은 한 만큼 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하면 아예 수입이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입이 정말 거의 0이었어요. 그 때가 3, 4월 때, 그리고 또 최근 9월 달. 정말 0이었죠.” [연구 대상자 J]

불안정성으로 인한 생활의 위기는 C와 J의 경험처럼 COVID-19 상황 속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다. 이는 삶의 불안정성이 노동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계획에 맞추어 삶을 꾸리기가 어려워 상시적인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의 변동성은 연중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절성을 띠기도 한다. 소위 ‘시즌’이라는 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소득의 시차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대학(원)생이 크게 겪고 있는 문제로 학기와 방학 간의 소득 편차는 절반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 학기 중에는 공장 시간을 이용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노동 시간에 따른 소득의 편차로 인해 ‘옷 따위는 살 수 없는’ 빠듯한 생활을 지속한다. 게다가 학교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업 외의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학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순환 속에 놓인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방학 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며 최대한 수입을 벌어드려는 압력으로 나타난다.

“학교 다니면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어 낸다는 게. 저도 뭐 그렇게 살아 왔지만 진짜 힘들어요. 주말도 솔직히 과제하면서 써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말을 풀로 알바를 해야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벌어요. 토요일, 일요일 온전히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그렇게 벌어도 집에서 지원이 없으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옷 한 벌 사기 힘든 금액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 대상자 F]

“저는 시급으로 받았는데 거기도 시즌 별로 행사가 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 그렇게 막 시즌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행사를 하고 전시를 하고, 달마다 매번 달랐어요. 한가한 달은 50만원 받기도 하고, 많이 받는 달은 막 1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했어요.” [연구 대상자 H]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자산이 부재한 청년들에게 소득 변동성으로 인한 위기는 누적될 수 있다는데 있다. 물론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하지만 ‘빠듯함 위에 빠듯함’이 쌓이며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미래에 더 큰 불안정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인 지출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오랫동안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다. 소득과 지출 간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유지하거나 할부, 대출과 같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금융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모아둔 저축 통장을 해지하거나(연구 대상자 J) 신용 카드가 연체되는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연구 대상자 C), 개인의 자산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향후 주택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연구 대상자 I)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빠듯함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카드에도 계속 쌓이고 해서, 막바지 즈음에 제가 대출을 한번 받았고, 빵꾸도 나고, 점점 계속 너무 허덕일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이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을 한번 받았고. 일이 바쁠 때는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그 때 갚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I]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정한 노동]**은 청년들의 독립 과정을 지연하고 삶을 꾸리고 계획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 분석된 <중심현상>이 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주거 불안정성

앞서 노동 불안정성에서 논한 바와 같이 주거 공간은 청년들의 독립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시 속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며 정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 이사 온 청년들은 마치 이주민처럼 낯선 공간 환경 속에서 새롭게 삶을 꾸려나간다. 이때 휴식 공간이자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거 공간이 ‘집다운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여기서 ‘집다운 집’의 의미와 맥락은 상대적이다. 과거에 비해 더욱 상품화된 주거 공간은 단순히 수면과 휴식의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바람과 욕망이 일정 부분 주거 공간에 투영되며 그에 따른 소비문화를 표상하는 시장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민우, 김광현, 2007). 따라서 지.옥.고<sup>12)</sup>라 불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한 주거 불안이 있는 한편, 주거 공간의 질이 가진 상대적인 차이도 불안감 형성에 일조한다. 특히 정량적인 가액으로 주거 공간이 환산되고 미디어나 SNS상에서 등장하는 타인의 주거 공간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주거 공간이 지닌 상대적 위치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동시에 SNS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난을 감출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이다. 가상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영역을 제공하고 그 속에는 일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잘라낸 채 보기 좋은 순간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급은 아니더라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근사한 옷을 입으며, 하루 세끼는 아니더라도 식사를 무작정 거를 정도로 고충을 겪지는 않는다. 이러한 ‘우

---

12)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텔)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아한 가난의 시대'<sup>13)</sup> 속에서 불안정한 삶은 오히려 청년이 가진 아름다움이 자기 삶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전리품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일상공간에서 빈곤은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소득 수준은 주거 공간을 통해 실체화된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 어디선가 시끄럽게 들리는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간 내부 뿐 아니라 그 공간적인 위치에서도 나타난다. 주소지에 찍힌 자치구와 행정동은 청년들의 지위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도시 내의 불안계급은 공간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다.

*“잘 몰랐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격차? 뭐라고 해야 하지, 갭이, 많이 컸어요. 어떻게 보면 저나 그 친구나 노력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생활도 비슷하고.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 여기서 주거 불안정성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싸구려 원룸에서 사느냐, 기숙사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부모님과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런 갭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F]*

F의 경험처럼, 청년들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보다 주거 공간을 통해 실질적인 계급 차이를 경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노동 조건으로 청년들이 규합되기에는 노동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며 파편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소득 수준은 엇비슷하기에 일상생활에서 그 차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간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불안은 결코 감추거나 줄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 조건이나 소득 수준, 문화 자본만으로 불안계급적 특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한 공간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서 더욱 강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작가 김지선은 동명의 에세이를 통해 현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빈곤감을 지적하고, 상대적 빈곤이 광범위하게 내재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우아한 삶을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빈곤과 어울리지 않는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빈곤의 절대적 해소보다는 일종의 정신승리로서의 빈곤을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 (1) '집다운 집'의 부재

1인가구로서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거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공간적인 불안을 호소하였다. 반지하에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과 같은 열악한 경험을 하고(연구 대상자 B), 고시원, 세어하우스, 기숙사와 같이 잠만 잘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닭장 속에 사는 기분'을 느낀다(연구 대상자 B, E, F). 또 거리로 개방된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이가 있진 않은지 매번 주위를 둘러보며 안전한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연구 대상자 A).

“반지하에서 살 때였어요. 어느 날 고향에 다녀왔는데 앞에 그 배수구가 뭐 막혀 있었는데, 물이 창문을 통해 엄청 들이친 거예요. 물이 자박자박할 정도, 문턱은 못 넘을 정도로? 거실에 물이 애매하게 깔려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되고 방은 안 젖었으니까, 너무 늦어서 그 상태로 그냥 잤어요 (웃음). 그리고 다음 날에 함께 살던 형과 같이 치우고...” [연구 대상자 B]

“이게 진짜, 가족들 사는, 닭장이 이런 거구나 느꼈고요 (웃음). 그래서 여기 살 때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웠어요. 학교 가깝다는 이유 빼고는. 옷 넣을 공간도 부족했고.” [연구 대상자 F]

“항상 외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혹시 누가 숨어 있을 까봐 괜히 어두운 계단 올라갈 때는 무섭고. 이 집만 유일하게 현관문에 동그랗게 밖을 내다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게 없지 해.” [연구 대상자 A]

불안을 형성하는 다양한 물리적 조건들은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사라지거나 반대로 추가되기도 한다. 연구 대상자들은 주거 공간의 요소 중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사이를 오가며 주거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적합한 평면 구조, 공간의 쾌적성, 거주하고 싶은 삶의 방식 등과 같이 공간 경험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집다운 집’을 이루게 된다. 이 중 부족하거나 부재한 요인들이 늘어날수록 주거 불안정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한편, 민간의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자의 한정된 지불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극단적인 주거 공간을 양산해내기 이른다. ‘잠만 자는’ 기능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소거해버리는 것이다. 이해미(2020, pp.135-141)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쪽방 비즈니스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공간 쪼개기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하나의 원룸을 많게는 4개의 쪽방으로 쪼개 임대하는 대학가의 주택임차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고스란히 응축된 지역이다. 그래서 그는 청년 주거에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면적인 문제를 품고 있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문제는 도시 풍경(urban scape)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빈민들이 밀집된 외국의 슬럼(slum)과 달리, 청년들의 가난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각기 흩어져 있어 그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OO동 파출소 있는 쪽이었는데, 주거 용도가 아니었던 곳을, 거의 창고처럼 있는 곳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1층 대로변에 대문이 달려 있는데, 화장실 이런 건 새로 개조되었고. 이전에 어떤 용도로 쓰였던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주거 용도는 아니었어요.” [연구 대상자 G]

G의 이야기처럼, 그가 겨우 구한 집은 외관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1층의 그럴싸한 주거지이지만 실상은 교묘히 주거의 탈을 쓴 창고 같은 곳이었다. 하루 종일 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진 곳에서 그는 삶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한다. 최저 주거기준은커녕, 편법으로 만들어진 주거 공간은 도시 속에서 공간적 소외를 심화시키며 청년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집다운 집’이 아닌 주거 공간에서는 삶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주거 상향의 욕구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훨씬 더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 (2) 사적공간의 결여

주거 독립 경험이 지속될수록 연구 대상자들은 ‘나의 공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음을 확인된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내 공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물건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공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는 사적공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주거 공간에 개인 공간이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적공간의 결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형성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주거 공간계획도 자리 잡고 있다. 1인 주거 공간은 여전히 임시적이며 거쳐 가는 ‘이행기의 공간’이라는 계획 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1인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데 반해, 이렇게 과도기적 거주 공간은 지나치게 협소한 그저 작은 ‘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리되고 독립된 공간에 대한 욕구를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청년주택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혜택<sup>14)</sup>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 등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 전 징검다리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실제 주거 면적의 기준이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역세권 기준 조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을 14~20㎡의 범위로 자유롭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14~16㎡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조례 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기준’에서 제시되는 최소면적인 15㎡이 기준이 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조례의 기준은 오히려 최소의 면적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14) 지하철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 필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기여분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공공성을 이유로 금융지원 및 주차 기준 완화,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도 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어	신혼부부
전용면적	15㎡ 이상	30㎡ 이상	30㎡ 이상

[표 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세대 별 전용면적

구분	1인, 2인 세어	신혼부부
세대수 비율	70%	30%

[표 7]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세대원 수별 세대수 권장 비율

평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5평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전용면적은 오랫동안 거주하기에 결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소셜 믹스(social mix)라는 이유로 2인의 세어형,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유형도 의무적으로 공급되지만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자의 편의 위주로 개발,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 중에는 G의 경우처럼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알아봤는데, 혼자 사는 방은, (웃음) 엄청 너무 좁던데. 둘이 사는 방은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 솔직히 전 그거는 좀, 못할 것 같거든요 (웃음).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 사람이랑 뭐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조금 알아보다가 각 방은 또 너무 좁고 그래서, 아씨 이걸 안 되겠다. 내 집만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기는 찾아만 보고 말았어요.” [연구 대상자 G]*

실제로 고성민, 김효선(2021.05.07.)<sup>15)</sup>이 취재한 용산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미달 사례는 G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달은 오직 세어하우스형(2인 1실)에서 발생했는데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주택이 가진 사적공간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공유경제의 유행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주거 공간

15) 고성민, 김효선(2021.05.07.). ““세어하우스, 꼭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용산 청년주택 미달 쇼크”, 조선비즈, 2021.05.21. 검색,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 EHTD4TRBH4/](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 EHTD4TRBH4/)

에 대한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주택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서 그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는 못한다.

위의 사례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많은 연구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인해 용도가 구분되지 않는 공간 구성을 지적한다.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연구 대상자 I)을 받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나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연구 대상자 H, I, J)된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며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삶을 반영한 주거 공간을 연구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J는 제대로 된 1인의 주거 공간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동시에,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실천에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온전히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개인으로서의 독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이 생기긴 했지만 방 알아보거나 찾거나 하면 혼자 살기엔 너무 작거나, 넓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고시원 그런 것 말고, 다양한 1인 가구 그런 게 많이 생겨나면, 아무래도 주거비도 적당히 되고. 좀 뭔가 나가고 싶은,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겠고. 그런 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연구 대상자 J]*

물론 주거 공간이 반드시 ‘1인’에 기초하여 계획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평등하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적 공간이 부족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주거 공간에 기인한 불안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 열망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이를 수 있을 가망성이 없다고 느낄 때, 연구 대상자들은 큰 불안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위 내용들과 같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온전한 집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부재할 때 [주거 불안정성]이 증대되며 이는 <증심현상>이 발현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 3) 지위 불안정성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은 앞서 노동, 주거 불안정성에서 살펴본 생산-재생산의 측면뿐 아니라 독립을 둘러싸고 청년층이 마주하는 다양한 지위와 각기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들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청년층의 독립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변해왔으나 통상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회적 자립의 분기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독립은 하나의 시점으로 종결되는 생애 이벤트가 아니다. 19~25세 시기를 별도의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sup>16)</sup>로 지칭한 Arnett(2000)의 논의처럼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이 수반된다. 모든 조건들을 완비한 후 독립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Lothaller(2010, p.109) 또한 청년기를 인생의 러시아워 시기(rush hour of life)로 지칭하며 “교육이 끝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때로 일과 경력의 요구, 가족과 개인의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요컨대 청년기는 이전과 다른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이다. 바꾸어 말해 청년들에게 제시되는 각종 사회적 규범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각각 충족할 수 없을 때, 더 큰 중압감이 주어지며 불안정성은 심화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되는 지위와 역할이 양가적이며 일견 모순적이라는 데 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족주의의 역할과 그에 따른 실천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으로서의 자립된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가치관 속에서 청년들은 방황하며 불안한 삶을 지속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상가족에 내재해 있던 규범과 제도적 특성들이 더 이상 단일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Beck(1986/1997, pp.180-192)은 이를 두고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

16) 학자들에 따라 성인모색기, 성인도래기, 성인이행기로 각각 명명하기도 한다.

Modernization)’의 개념을 통해 가족의 있음/없음 사이의 다원적인 개인적 생애들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가족 이데올로기는 근대 산업사회 이후 핵가족이라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서 그 정형성을 갖추게 된다. 이때 핵가족은 결혼을 전제로 형성되며 성별 역할에 따른 노동 분업으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그 속에 잠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했던 노동력의 재생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점차 물질적 번영과 풍요가 지속되면서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근대성의 기본 원리가 부상하게 되었고, 정해진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핵가족 규범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가족 이데올로기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해체해버린 것이다.

Beck의 설명은 청년들 내 작동하는 지위, 규범의 이중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현재 한국 사회도 그 발전과 성숙에 따라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도록 하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년들은 더 이상 가족에 부여되는 지위, 역할 또는 산업사회의 노동에 속박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획득하게 되었다. F의 언급처럼 자유로운 지위를 가진 개인으로서 노력하고 성취하는 삶을 강조하는 역할이 청년에게 부여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며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능력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결혼을 하려면 신혼집 구하고 독립을 해라...근데 당장에 그런 조건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셨고. 어떻게 보면 서른 살 중반까지도 개인의 커리어가 엄청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점점 커리어라는 가치가 커지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하진 말고. 일단 여러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연구 대상자 F]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대적 핵가족의 특징들과 한국 특유의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등이 국가의 복지 체계와 결합하면서 여전히 강한 제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립, 2015). 문화 또는 종교적

전통으로서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사실 모든 계층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오히려 사적 행위 및 관계,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차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장경섭, 2018). 가족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토대이며 가장 기본적인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가족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친구가 취준(취직준비)을 벌써 3년 째 하고 있거든요. 자꾸 안 되고, 미끄러지고.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근데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관계에서 지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취준하는 딸로서 생기는 죄책감...그래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알바해서 당장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지원이 없으면 독립할 수 없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연구 대상자 E]

이처럼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전통과 근대, 현대의 가치관이 뒤섞인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이 처한 본 모습(권용혁, 2011)이며 그 속의 이중적인 규범 속에서 청년들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E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죄책감’의 감정 속에서 삶의 불안정성은 촉발되고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불안정한 가족 간의 연대와 지원

이처럼 가족은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leaving home”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우처럼 독립이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 사회에서는 부모의 영향보다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같이 성인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경우, 가족이라는 변수 또한 중요하게 작동한다. 즉 독립이 단순히 분가를 통한 독립가구의 형성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분리-결합의 반복 속에서 점진적으로 도달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의 상호관계와 이에 따

른 연대 및 지원은 청년들의 독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하여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존재는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연구 대상자들은 가족 간의 연대와 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집을 구하기 전 잠시 머물 수 있는 일시적인 안식처가 되어 주기도 하고(연구 대상자 D, I), 급격한 소득 위기가 닥쳤을 때 1차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연구 대상자 F)이기도 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들도 동일하게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연구 대상자 C). 가족은 주거 불안을 덜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실제 생활에서도 위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완충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서울에서 집을 꼬박 한 달 동안 구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수원에 있는 오빠네 집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연구 대상자 D]

“형한테 좀 빌려서 갚거나 하면 되니까. 사실, 주로 형한테. 형이 돈을 벌어서, 스스로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도 부모님께 돈을 잘 안 빌리고, 저는 형한테 돈을 빌려서 쓰고 갚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F]

아빠가 건설업 이쪽을 하시는데 최근 큰 타격이 있으셨나 봐요. 저도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 처음으로 (금전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뜻 바로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빠도 힘드니까...(그래도) 여기 이날 돈이 들어오니 어떻게든 그 때 꼭 출게 하셔서...죄송하고 감사했죠.” [연구 대상자 C]

그러나 이런 측면은 가정의 해체 등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가족의 역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도리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 간 비공식적 부양의무를 요구하는 현 제도적 구조상 국가복지의 상당 부분이 가족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모든 것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역으로 부모(혹은 가족)를 부양해

야 하는 지위에 처하게 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제대로 된 독립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완전 어릴 때 2학년 때 좀 이혼을 하셨고. 그 때부터 사실 아빠랑 같이 안 살아서.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동생 뭐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사실 이런 상황에서, 키워주신 본가(할머니)에 월에 항상 2~30만원씩 보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온 상황이고.” [연구 대상자 G]

특히 교육기회에 있어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청년들의 약 62.2%<sup>17)</sup> 가량이 부모님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F와 같이 아무런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학생과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해야하는 고난의 상황으로 진입한다. 그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였고 생활비와 주거비를 벌기 위해 본업 외의 시간을 쪼개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인 일에 종사하며 독립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중 일부는 경제적 활동이 우선 되어 학업을 병행할 수 없을 때는 극단적으로 자퇴로 이어지기도 하면서(연구 대상자 G) 학생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등 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가 서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부담을 안 드리려고 등록금도 제가 다 해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연구 대상자 F]

“처음 학비는 모두, 전부 학자금 대출로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일단 대출이 있고, 학자금 대출, 집안에 송금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맨날 쪼들리고, 쪼들리고, 쪼들리고 그러다 보니 전역하고 학교로 안 가고(자퇴). 바로 취업을 해서.” [연구 대상자 G]

이처럼 청년들 사이에서도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갖게 되는 지위와 역할의

---

17)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생의 62.2%가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으며, 장학금(24.8%), 대출(7.3%), 스스로 벌어서 마련(5.7%)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가족의 역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한국 사회에 내재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2) 독립된 ‘개인의 삶’에 대한 요구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온전히 독립하여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취업과 같은 노동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노동 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와 연관된다. 더 이상 노동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청년들은 각자도생, 생존주의<sup>18)</sup>, 능력주의<sup>19)</sup>와 같이 살아남기 위한 태도들을 체화한다. 따라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거나 갓 자신의 능력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청년들에게는 일단 독립 후 살아남기 위한 과업이 우선시된다. 이것이 온전히 달성되지 않는 한, 결혼 또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개인의 능력이)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의 능력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정) 환경 정도 되겠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결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죠. 결혼의 전제조건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연구 대상자 F]*

특히 독립 후 이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포기’하는 경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청년들도 처음부터 개인주의적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 초기에는 막연히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 집을 얻고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내 일’ 하나 제대로 꾸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차갑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독립

---

18) 김홍중(2015)은 청년층을 ‘생존주의’ 세대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생존주의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초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자신의 존재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는 마음의 역동”이다.

19) 능력주의(meritocracy)는 1958년 사회학자 Michael Young이 처음 제시한 단어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말한다(성열관, 2015). 그는 능력주의로 인해 인간의 평등이 사라지고 차별이 강화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비판하였으나, 최근 능력주의는 ‘능력에 대한 공정한 기회 확대’와 같은 공정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박권일 외 (2020) 참고.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냉혹한 현실을 깨달으며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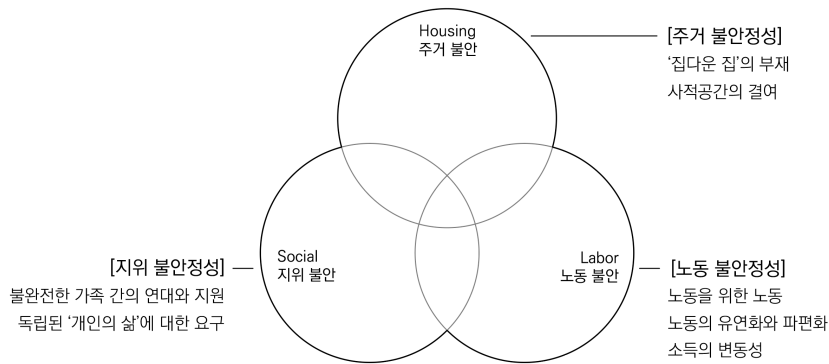
“사실 저는 결혼을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깐, 혼자 되게 많이 자립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상대방과 '반반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차갑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 내 일을 안정적으로 만들자.” [연구 대상자 N]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사회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낀다. 가족주의의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주의적 태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비춰지기 쉽다. J는 해외와 비교하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개인으로서의 독립’을 장려하거나 보조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개인을 ‘스스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역설적 상황을 토로한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지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자산에 일정 부분 기대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없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19, 20살만 되면 나가서 사는 게 당연한데, 개인으로서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 우리 (사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학업 등이 아닌) 당장 너무 일찍 독립하는 것도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자립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결국 스스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대상자 J]

청년들에게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이중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자립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재확인하며 장기적인 계획은 유보하며 당장의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지위 불안정성]도 <중심현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안정성 요소들은 청년들마다 개별적 속성으로 나타나기에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위 세 요소는 모두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원인>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3. 조건 : 불안정성의 상호 교차

#### 1) 노동-주거 불안의 교차

1절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단지 개별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는다. 각각의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 뿐 아니라 각 불안 요소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그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안들이 서로 교차할 때 각각의 불안정한 요소가 가진 특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각 불안의 교차를 통해 확인되는 범주들은 각 불안 요소 간의 상호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중심현상>으로 이행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교차 과정은 도시 내 특정한 불안정 시공간성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 도시 내 청년들은 그들의 처한 노동의 시간성 속에서 삶을 꾸려가게 되고 이는 도시 공간, 특히 주거 공간과의 결합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로서 자본화된 공간을 노동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노동과 주거의 유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치로 인해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며 발현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노동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교차를 살펴보면, 우선 주거 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상호간의 불안정성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독립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전월세 형태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자력으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청년들의 경우 노동 불안으로 인한 소득 문제는 주거 공간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주거 공간이 노동의 불안을 증폭하기도 한다. 주거지에 대한 선택지가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그 위치는 도시 공간상에서 일정한 노동 제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1) 주거 유지의 위기

앞서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문제, 특히 높은 소득의 변동성은 청년들의 일상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공간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과정임을 연구 대상자들은 토로한다. 우선 이구동성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지적한다.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때 흔히 쓰이는 RIR<sup>20)</sup> 지표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많이 알려진 문제이고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부분은 그 미시적인 비율의 변화이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주거 위기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월세든 대출 이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생활비의 큰 부분을 매달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부담이고, 불안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숨만 쉬어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연구 대상자 H]

---

20) Rent Income Ratio의 약자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나타낸 용어이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9.3%로, 20.8%이었던 2018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RIR이 30%가 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31.4%로, 약 1/3의 청년층은 소득 대비 훨씬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거비가 정규적인 노동의 소득 발생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안정한 노동이 갖는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주기와 매달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주거비의 주기가 일치하지 못할 때 불안의 공백이 형성된다. 그 공백의 시기가 길어지거나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편차가 벌어지게 되면 주거 불안이 증대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전에 준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소득 불안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소득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맞게 생활비를 사전에 최대한 절약하며 일부는 저축해 둔다(연구 대상자 B, C, F, G, J). 또 거주 조건은 열악하더라도 반지하와 같은 주거비가 최대한 적은 주거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F, M).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노동 위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청년들은 주거 불안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 대상자들은 월세가 밀리거나(연구 대상자 I),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연구 대상자 C)을 경험하였다.

*“점점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월세 이번 달 것도 어떻게 하지? 빌려야 하나? 이런 상황까지 갔다가.” [연구 대상자 I]*

*“갑자기 소득이 0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두 달 동안 월세를 못 냈어요. 다행히 그 집주인 분이 ‘조금 힘드시면 그냥 보증금에서 까 주겠다’, 그래서 까겠다고, 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3,4월 두 달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 때 딱 (노동 상실로 인한) 멘탈이 무너졌을 때여서 차라리 월세라도 그렇게 하고.” [연구 대상자 C]*

C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높은 보증금은 때로 주거 위기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 장치가 된다. 따라서 강제적인 퇴거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주거 불안 문제를 겪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퇴거 위험만 회피할 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은 감소하는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차후 주거지를

이동할 때 자산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는 경계선 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소득 위기에 따른 불안은 직·간접적으로 주거 불안으로 전환되며, 끊임없이 잠재적 주거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만든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안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의 집이 마치 높은 보증금, 전세와 같은 역할을 하여 불안정 노동에 따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평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독립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J처럼 독립의 시기가 지연되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집에서도 이제 좀 포기해서 빨리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면 좋은데, 너도 편하고 나(부모)도 편하고...근데 이렇게 (소득 불안 및 변동성) 문제가 계속 생기고 돈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나가지 못할 뿐이죠.” [연구 대상자 J]*

이처럼 일상생활의 미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의 변동 문제는 단순히 소득의 규모의 크고 작음 이상으로 주거 공간의 유지, 나아가 독립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주거 불안으로 인한 노동 제약

위와는 반대로 청년들의 주거 확보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제약은 청년들의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1차적인 목표가 되고 이를 충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노동에 대한 선택 과정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주거 공간의 재생산 위기가 다시 생산의 노동 위기로 이어지는 역의 관계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구체적으로 노동 기회의 제약 및 탐색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주거 공간의 위치로 인해 노동 기회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통상 일자리에 따라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의 위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도시 내에서 자신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청년들과 같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 공공 임대주택 등과 같이 주거 지원 정책을 받아 거주할 경우 대부분 한정된 지역에 비자발적으로 주거 공간이 주어지기에 더욱 특정한 위치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실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제약이 발생해 조건에 알맞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지의 제약은 일자리의 위치에 따라 주거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닌 주거지에 따라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어렵사리 확보한 해당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1순위가 그거였어요. 집에서 가까운 것. 왜냐하면 지금 LH<sup>21)</sup>가 되었고 설령 취직을 못하더라도 졸업유예를 해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서 2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게 만족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직장을 가까운 데를 구해야겠다, (연구자 : 조건과 상관없이?) 물론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관련된 일들은 대개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한강 안쪽으로, 강북으로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거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연구 대상자 F]

“(집을 옮길 수 없으니) 항상 집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집에서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바를 홍대 쪽에서 구한 것도 여기 집에서 홍대 쪽으로 되게 가까웠으니까. OO동 그 쪽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집이랑 엄청 멀지 않았으니까. 만약 강남이나 그런 곳이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애초에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연구 대상자 I]

그 이유는 역시 높은 주거비에 있다. F의 이야기처럼 대기업과 같이 높은

21)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정식 명칭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F는 그 중 대학생 전용으로 받은 것이며, 소득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3순위로 지원 등급이 매겨진다. 순위 별로 이자율에 차등이 있으며 단독거주 시 2021년 현재,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학생 신분일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기에 F가 졸업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이상, 대개 유사한 노동형태와 임금조건을 지닌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일자리만 자신의 선택지에서 제외(혹은 포기)하면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반면 도시 내에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주거 공간을 우선하는 것이 삶의 불안을 낮추는 가장 핵심 요건이 된다. Standing(2016)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시간과 노동을 쏟아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즉, 위와 같은 전략은 노동 기회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오는 손실보다 주거 공간을 고정시켜두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청년들의 경제적 판단을 보여준다. 총 비용을 줄이고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적절한 노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높은 주거비는 노동의 탐색 기회도 제약한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행 하는 노동이 때로는 더 나은 일을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I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음을 토로한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는 것이다. 당장의 주거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등을 통해서라도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에, 교육을 받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의 '틈'을 상실하게 된다. 주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 불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주거비를 내기 위한 거죠. 그 외에는 제가 다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문제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문제고,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가장 부담이 크고...영상 일을 좀 더 오래 준비하고 싶은데,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걸 더 못하게 막고 출퇴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주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매달 내야 하니까. 매달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뭔가 '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어도, 아닐지라도 일단 구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연구 대상자 II]

특히 과도한 노동에 지치거나, 번아웃(burnout)을 경험하더라도 휴식을 취

할 수 없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노동은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거비는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집이 노동의 재생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비자발적인 노동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 셈이다. 따라서 주거 공간을 계속 유지를 위해서 휴식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또 다시 불안정한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 2) 지위-주거 불안의 교차

다음으로 지위와 주거 불안정성의 교차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각각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독립 초기에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 또는 장래의 주택 계획에서 나타나는 주거 불안과 연관되는데, 청년이란 지위가 갖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요소 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었다.

각 불안이 교차하는 상호 관계의 근저에는 금융 자산(특히 보증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모로부터 이전되는 자산의 차이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 및 시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청년들의 지위나 역할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맞은 주거 공간이 부재한 것도 청년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이를 1인가구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였다.

### (1) 주거 확보의 높은 문턱

청년들이 독립을 시작할 때 부모 혹은 가족의 경제력 차이는 가장 명확히 드러나며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된다. 아무런 기초자산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정한 금액의 목돈이 없는 이상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문턱이 너무나 높은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월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보증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기 거주용 주택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24개월 이상을 보증금을 요구하기에 최소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수준의 목돈이 필요하며 전세로 눈을 돌리면 그 금액은 몇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에 주거 독립을 한다는 것은 ‘보증금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만큼 보증금은 주거 독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사실 집을 구하면서 조금만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았다면 이렇게까지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전화 하면서까지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은 집이 있었을 텐데. 2,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이르지 않았을 텐데.” [연구 대상자 G]

연구 대상자 중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일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공통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 주거 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A와 G의 경험은 그 차이를 잘 보여준다.

“집에서 받은 것은 보증금, 그러니까 학생일 때는 부모님이 내 주셨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언니랑 나랑 월세를 반씩 부담했고요. 보증금만 계속 부모님 돈으로 들어가 있고, 각자 25만 원씩 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증금만 더 마련하면,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겠네? 그래서, 보증금 차액을 더 마련해서 투룸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드디어 각방 쓴다 그러고. (웃음)” [연구 대상자 A]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할머니집이 안산이라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너무 빠세 가지고 자취는 해야했는데, 집을 구할 돈은 없고...다행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형 중에 혼자 독립을 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이 전세금이랑 이런 거 다해서 선릉에 전세로 집을 구하고, 저는 거기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연구 대상자 G]

A의 경우 부모로부터 약 5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받고 첫 독립을 시작하였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시장의 시세를 고려했을 때 결코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 상향을 실현하고자 할 때, 그 자산이 기초가 되어 ‘차액만 더 마련하면’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였다. 반대로 G는 아무런 지원이 없

는 상황 속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자산 없이 월세만 내는 상황으로 인해 다음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청년들 간에도 가족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며 이는 청년들 내에서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차등적인 지위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정우성(2015)은 ‘목돈사회’의 논의 속에서 목돈을 요구하는 사회적 병폐를 지적한다. 주택 보증금 뿐 아니라 교육비, 병원비, 권리금, 결혼비용과 같이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목돈이 개인, 특히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이 처한 상황도 그의 논지와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생활비용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청년들의 경우 초기 목돈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초기 자금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획득된다는 점에서, 보증금은 청년들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 계급을 상징하기도 한다. B는 초기 보증금이 없어 얼마간의 돈을 모을 때까지 아는 형의 집을 전전해야 했고 일부 연구 대상자(D, G, H, I)들은 주택비용 마련을 이유로 미래의 준비를 위한 저축을 포기하기도 했다.

*“고시원에 있다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 만들 돈은 안 돼서 계속 선배형네 얹혀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보증금 한 300만 원정도 겨우 마련되어서, 그래서 OO동 쪽의 원룸으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연구 대상자 B]*

이처럼 한 번에 큰 비용을 요구하는 주택시장의 특성은 청년 내의 불안정한 지위를 선명하게 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격차들은 주거 공간 외의 모든 생활로도 연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집중하다보면 이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삶의 요소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성취해야 할 생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서 요청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들 곁에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 주거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면서 ‘효심이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

에, 이루고 싶었던 꿈을 점차 포기하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다.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안정 노동을 하며) 살아 왔는데, 계속 돈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꿈을) 좀 내려놨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많이 내려놨죠. 그렇게 되면 주거문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OO 어플을 일주일에 한번씩 봐요 (웃음). 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 괜찮은데. 그렇게 '아이씨! 나갈꺼야!'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월세나 전세값 보면, 쓰읍, 다시 또 효심이 막. 효도 마음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되고 (웃음).” [연구 대상자 J]

농담처럼 설명한 J이지만, 해가 갈수록 자립과 멀어지는 상황의 불안감을 그는 표정에서 숨기지 못했다.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지위, 성취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 사이를 방황하고 청년들은 점차 공고히 되는 불안정 시공간 속에 처하게 된다.

## (2) 지위 격차와 불완전한 자립

청년들의 독립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 또한 주거 불안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주거 공간은 각자의 지위와 상황을 가늠하고 보여주는 공간적 지표이다. 이때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 혹은 가족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과업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물론 집의 유무가 결혼을 결심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3포, 5포와 같은 N포 담론<sup>22)</sup>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교훈으로 현재 청년주거정책 또한 주요 초점은 여러 주거 혜택들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형성을 이행하도록

22)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의미하고, 5포는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의 포기가 추가된다.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을 자조하며 형성된 용어로,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기과정 또한 청년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 아닌, 불안정성 요소들의 교차를 통해 청년들 내에서 차등적으로 발생하고 증대되는 것으로 본다.

유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도 왜 청년들의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단지 주거 공간의 부족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일까?

지위-주거 불안의 교차 속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발견은 주거 공간은 청년들 각자의 지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의 청년들은 더 이상 집 자체의 유무로 결혼 및 가족 형성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개인의 자립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주거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곧바로 결혼 및 가족 형성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보다 개인으로서의 자립’을 우선시한다는 H의 언급처럼 현재 청년들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등의 가족 형성의 문제는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독립’을 이루려는 삶의 방향 전체와 연동되어 있다.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주거문제를 압도하지 못하거든요. 저 개인의 주거문제가 중요하지. 물론 결혼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이 독립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자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건 제 고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H]

문제는 주거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청년들이 자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거 공간의 확보는 개인의 수준을 압도한다. 즉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부모,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청년들 내에서 주거불안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과 달리 주거 공간은 개인 자립의 실천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과 가족의 지위의 격차, 그에 따른 불완전한 자립은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가장 큰 조건이 된다.

이경미(2016)는 이를 ‘계층화된 젊음’으로 표현하며 청년층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들에 주목한다. 그는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문제시하며 현재의 청년세대가 계층화된 사회화를 본격적으로 겪은 첫 세대라고 정의한다. 가족 간 사회 경제적 지위, 삶의 질의 격차의 영향력으로 인해 대학

진학, 취업, 소득 전반에 걸쳐 청년들 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논의하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공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다. 즉 부모의 지위가 청년의 지위로 이전되는 공간적 영역인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불가항력적인 요소라고 단정 짓는다.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 오히려 ‘목표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지만,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한다? 근데 전세는 최소 1억~2억 이렇게...내 수준은 전세를 목표로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게다가 서울에 집은 뭐 10억?! 목표치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D]

이진순(2014)은 이러한 이유를 한국 경제가 자산 중심의 저량(stock)경제화가 된 것으로 본다.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는 자산 등 저량보다 소득과 같은 유량(flow)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증산층은 소득을 저축하여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급격히 저량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로 분배의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저량 사회에서는 과거부터 축적된 자산이 중요하고, 이는 부모를 통해 이전되는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과거의 청년에 비해 현재 청년층이 겪는 주거 불안에는 변화한 시장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 대상자들은 각자가 가진 세부적이고, 다양화된 지위와 조건에 맞는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역으로 말해 1인가구와 신혼부부가구 사이에는 현재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주택 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에 따른 주거 공간을 뜻한다. F는 1인 가구를 좌약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며 다양성이 있는 1인 가구형태가 나타나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청년들 대부분은 결혼 이전의 1인 가구가 당연하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의 1인가구를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걸 평생의 1인가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대의 형태로서 1인가구를 인정해 준

다면, 그걸 발전시키고 다양성이 증시되는 정책을 만든다면. 오히려 제대로 1인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뒤에 가족을 이루는데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 대상자 F]

단조롭고 임시적인 ‘1인 가구’ 공간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립에 있어 또 다른 주거불안으로 다가온다.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주거 공간정책과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까지 지위와 역할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희망하게 된다. 단지 청년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서 자립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 3) 노동-지위 불안의 교차

끝으로 노동과 지위 불안정성의 교차에서는 독립, 노동 과정에 대한 자발적·비자발적 상황이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형성된 범주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각각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립에 대한 요구가 타의적 노동으로 진입하게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역으로 비자발적인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다.

#### (1) 독립을 위한 타의적 노동

청년들에게 독립의 의미는 ‘복잡’하다. 청년들이 성인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이라는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립은 꼭 이루고 싶은 청년기의 종착지이다. 그러나 여건 부족으로 성취가 요원할 때에는 삶의 가장 큰 부담감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상반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독립에 점차 다가간다. 문제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취해내야 할 때이다. 불가피한 독립의 상황 속에서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활동이 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타의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은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시킨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부모 또는 가족의 영향이 일차적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도적 가족이 해체되거나 정상적인 가족의 부조를 획득하기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일찍부터 경제적인 독립 과정에 뛰어들게 된다. 부모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설령 학교를 다니는 중이거나 군대를 다녀온 직후라도 생존의 문제는 각자의 지위나 상태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본업에 집중해야 하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있는 대로’ 불안정 노동들을 찾아 나선다.

“현재는, 불규칙적인 건데,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거든요, 웬만하면. 옛날부터 이어진 거긴 한 건데, 호텔에서 웨딩 플라워 쪽 해서, 결혼식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주말이면 나가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연구 대상자 F]

“평일에 000에서 구했던 것은 출판단지 쪽에 가서 도서 같은 거 옮기고, 나르고,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친구랑 같이 노가다, 막노동도 해 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평일에 할 수 있는 것 다. 이게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그 시간에 맞는 거 아무거나 있는 대로 찾아서 수익이 될 만한 것 다.” [연구 대상자 G]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을 꾸려 나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나거나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들은 겪지 않는 것들을 본인은 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노동은 상당 부분 타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학생과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열심히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쓸 생각도 없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돈 앞에서 F는 분노감을 비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화나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1천만 원을 모으더라도 저희 같이, 일 많이 하고, 그것도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1천만 원은 어디에 쓸 생각도 없이 바로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 게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연구 대상자 F]

지위-노동 불안의 교차에서 발견된 것 중 흥미로운 것은 각자의 독립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되는 노동도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하더라도 자립을 위해 노동의 지위를 습득하고 원활히 생존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노동이 수행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 가정의 교육 환경, 부모의 증용으로 나타나지만(연구 대상자 M), 생존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연구 대상자 K, M). 유연하게 노동을 수행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관이 좀 있는데, 대학 와서는 자립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빼고는 제가 독립을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근데 진짜 힘들어요.” [연구 대상자 M]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많은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로 선택도 물려받을 돈이 있으면 간섭 받는 것이고,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중산층에 태어나도 그걸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자기 쪼대로 사는 거고...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급비나 급식비 같은 것들도 제 통장에서 인출되게 했거든요. 저는 빙땅치면서 경제를 배웠어요 (웃음). 돈에 대한 권한과 결정은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 대상자 K]

자기 ‘쪼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의 지원 없이 모든 권한과 결정을 본인이 하면 된다는 K의 말처럼, 타의적인 노동에도 자립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에 따라 그 비자발적 성격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부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다. N은 자신이 ‘돈이 별로 안 되는’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노동에 뛰어들었다.

“제가 괜히 (돈 안 되는) 미대를 갔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일을 놓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연구 대상자 N]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청년들은 제대로 된 독립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타의적인 노동에 진입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을 상실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순환 고리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

## (2) 노동에 따른 비자발적 독립

미완의 독립에 의해 불안정 노동을 지속하게 되는 위의 과정과는 반대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독립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미 독립한 노동자들의 경험을 다루는 본 논문의 목적상, 연구 대상자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다른 불안정정보다는 그 빈도가 훨씬 낮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불안이 증대될 잠재적인 위험은 상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앞서 3장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연구 대상자 3명을 이론적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일종의 대조군으로 수집된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안정하더라도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연령에 따른 독립의 압력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 확인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언제나 편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공간적 독립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항상 구성원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매일 보는 가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생기면서 ‘항상 나가고 싶은’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연구 대상자 J). 특히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부모가 보호자의 관계로만 남지 않는다(연구 대상자 K).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동등하게 나누지만 집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내 면적’만 존재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사실 가족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

요. 3대가 같이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점점 더 불편하죠. 제가 일이 끝나면 11시 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인데, 저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들어와요...주말에도 집에 잘 안 있어요. 불편하죠. 어디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카페라도 나가게 되고, 항상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구 대상자 J]

“음, 이체를 해서 정확하게 드리진 않는데,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같이 사는 주와 부가 있는 상태이지만 원래는 사실 주와 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1/n인데. 그게 안 돼서. 명이가 엄마꺼니까 (웃음).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도, 생활비를 내면서도, 내 면적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큰 불만이죠. 나는 뭔가 식탁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니까.” [연구 대상자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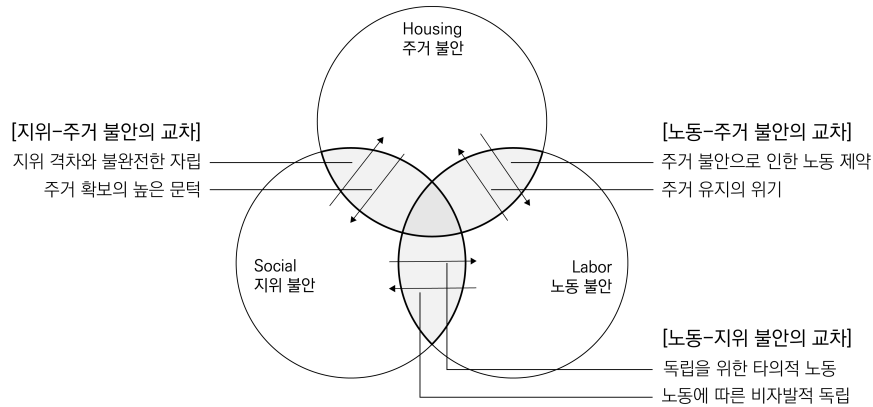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이 불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을 하고 있는 이상 집이 더 이상 보호의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캥거루족’처럼 부모의 공간에 얽혀 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언제 품속을 벗어날지 의문을 품는 가족들의 잔소리를 감내해야 한다. 독립을 할 수 없지만 독립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즉,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아직 자립할 준비는 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비자발적 독립으로 이행해야 할 잠재적인 조건이 된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주거비 50만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삶의 퀄리티는 낮아졌을 거고. 그러니까 50만원씩 알 바로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원을 벌어야 하니까.” [연구 대상자 E]

E의 언급처럼, 독립하는 순간 벌어야 하는 소득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삶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현정, 김진영(2020)은 과도하게 높은 임차 비용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는 순환하여 부모세대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독립에 반드시 자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에

게 강요하는 독립에 대한 압박은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뛰어들게 하고, 이는 다시 가족의 상호 간 경제적인 불안과 주거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거-노동-지위 불안정성의 교차]로 나타난 범주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이 어떻게 상호 간의 불안을 심화하고 중국에는 격차와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앞선 원인의 요소들을 매개하는 동시에 <중심현상>이 발현되는 조건이 된다.



[그림 14] <조건>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4. 중심현상 : 도시 공간 속 불안지대의 형성

앞서 불안정성의 세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불안이 증대되고 또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공간 내에 불안지대(precarious zone)를 형성하는 주된 <조건>이 된다. 불안지대는 도시 공간 내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삶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시공간으로 불안의 주체들은 이 시공간을 형성하고 또 속하기도 하면서 점차 고착화된다. 불안지대는 단일한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시공간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적 정의를 가지는 공간이다.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서 불안지대의 형성이 가장 <중심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하였다. 이때, 여기에는 ‘자리 잡기’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기저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자리 잡기란, 청년들이 실천하는 노동과 거주, 그리고 지위의 각 요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위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고정된 물리적인 좌표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과 투입 시간, 공간 이동, 역할의 변화와 같이 생애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상의 위치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리 잡기’에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모두 가지며 복합되어 나타난다. 자리 잡기가 어려운 불안지대 속 청년들은 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안이 상존하는 시공간이 구성되는 것이다.

불안지대의 개념이 갖는 역할은 어떻게 불안지대가 형성되거나 축소되고 사라질 수 있는지, 그 구성과 관계성을 변증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 있다. 만약 개인이 가진 불안정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고 누적된다면, 불안은 심화되고 불안지대 내에 강하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불안의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해소되거나 점차 완화된다면, 불안지대에서 점차 이탈하며 삶의 불안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불안지대 내에 속하고 또 얼마나 각 원인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가에 따라 불안정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불안지대는 개별적인 불안정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불안 주체인 청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그 격차와 불평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고 틀을 제공한다. 후술하겠지만 불안정성을 형성하는 조건에 따라 불안의 주체들은 불안지대에서 유동적인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불안지대 내에서 청년들이 겪는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소가 더 불안을 강하게 형성하고, 또 누가 불안에 더 취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저마다의 상이한 불안의 조건 속에서 불안지대에 고착되거나 이탈하고 재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각자가 희망하는 위치에 자리 잡는 과정이 어려워지며 지연될수록 점차 불안은 삶의 일부로서

체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 1) ‘자리 잡기’의 시간성

대부분의 일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통상 수습기간으로 불리는 것으로 청년들 또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만연한 현 상황을 점차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시간을 불필요하게 들여야 할 수 밖에 없을 때이다. 앞서 2절에서 상당수의 불안정 노동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때 그러한 노동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몸을 혹사할 정도로’ 저임금에 높은 근로시간을 가진 일에 지속적으로 내몰리다보면 어느 한 일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노동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불합리하고 유연한 노동 시간의 구조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돈을 받으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기가 어려울 금액이잖아요, 서울에서도 지내야 했었고. 그 때 당시는 진짜 열정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어리고 좀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했었고.” [연구 대상자 C]*

또한 청년기에서 노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분석자료』에서는 청년들이 통상적인 첫 취업까지 평균 16.8개월, 그리고 총 671만 3천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는 정규적인 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일을 얻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금전이 요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발생하는 돈 중에는 교육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을 얻기 위한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일종의 ‘자릿세’ 같은 개념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자리’를 잡기 위해 다시 자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M은 플랫폼에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고 J 또한 교육비와 더불어 노동 권리를 얻기 위해 ‘생각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비용 구조와 소요되는 시간은 차등적인 자리 잡는 과정을 형성하고 그 금액을 내며 시간을 쏟아야 할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처음에는 아예 돈이 안 들어왔고요, 한 3달간 한 번도 안 들어왔다가. OO에서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처음 가입했을 때, 루키라는 것을 결제를 하면, 네, 일주일에 9만 9천원 (웃음). 다 돈이에요, 돈. 고민하다가, 결국...그럼 첫 페이지 상단에 오르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 M]

“생각보다 비쌌어요. 7~80만 원 정도. 그래서 뭐든지 시장 원리라는 게 있으니까. 다 가격도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 정도 되었던 것 같고, 교육기간은 4주였어요. 수료를 해야 그 때부터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연구 대상자 J]

이는 자발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의지에 따라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을 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나는 일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이고 해당 노동시장에서 알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되는 순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정규적인 노동과 달리,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이 없거나 발생한 소득도 무척 낮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길면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일부는 현재에도 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사진 일도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때가 아니어서, 진짜 적은 수입이어서, 다른 일도 병행하면서 겨우 겨우 살던 때였어요.” [연구 대상자 B]

“근데 수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강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힘들어요.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수습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강사들 참관을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러다가, 이런 시간이 지나야 일을 한 개씩 받으면서, 경력을 쌓아 나가고. 진짜 돈을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리 잡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초기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4~50만원. 교통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보면 되요.” [연구 대상자 J]

특히 여전히 연공서열의 중심으로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 한국 사회의 노동 평가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의 형태는 그 노동 가치를 ‘질’에 따라 온전히 평가하기 보다는 여전히 절대적 시간의 ‘양’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능력주의에 부리를 두는 비정규 노동과 그 권리가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현재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의 청년기는 불안이 장기화되는 시간성을 갖는다. 불안정 노동이 갖는 유연화와 파편화는 시급제와 같이 청년들이 투하하는 노동 시간의 양으로만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시급을 늘리거나 노동 시간을 지속해서 늘릴 수 없기에, 미래가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지며 계속해서 청년이라는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강제성을 부과한다.

## 2) ‘자리 잡기’의 공간성

마찬가지로 자리 잡기의 어려움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가족으로부터 초기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고, 독립된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적합한 조건의 주거 공간이 부재한 경우, 훨씬 더 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고 주거 이동 또한 반복할 경향이 훨씬 높아진다. 만약 소득이 불안하거나 지위에 따라 지원이 상실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주거 공간과 일정한 생활을 자리 잡기 전까지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지속된다.

“근데 정말 똑같은 돈인데, 아, 뭐라 해야 되지? 같은 값이면 여기가 정말 최선인가? 같은 돈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간이(있을 수 있나). 좋은 데는 다 뺏겼나 싶을 정도로.” [연구 대상자 D]

“올바른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부동산에 갔을 때도 저처럼,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친구랑 저랑 가면 행색으로 판단해버리고 안 좋은 집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더 큰 어른들과 가면 다른 집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연구 대상자 N]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의 여건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었다. 한 달 이상 집을 알아보거나, 많게는 30~40곳까지 방문하는 등 이사를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으로 인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원치 않은 곳에서 살게 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살 수 밖에 없어 또 다시 이전과 유사한 주거 불안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대부분 노동과정과 결부되어 일어난다. 설령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서 금전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노동과 주거는 함께 공명하며 상호 관계를 가진다. 이는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이나 현재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들의 관계성이 다른 세대나 계층에 비해 더욱 강하게 불협화음을 이루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노동에서 비롯한 시간성과 주거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은 ‘자리 잡기’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괴리와 어긋남,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불안이라는 상태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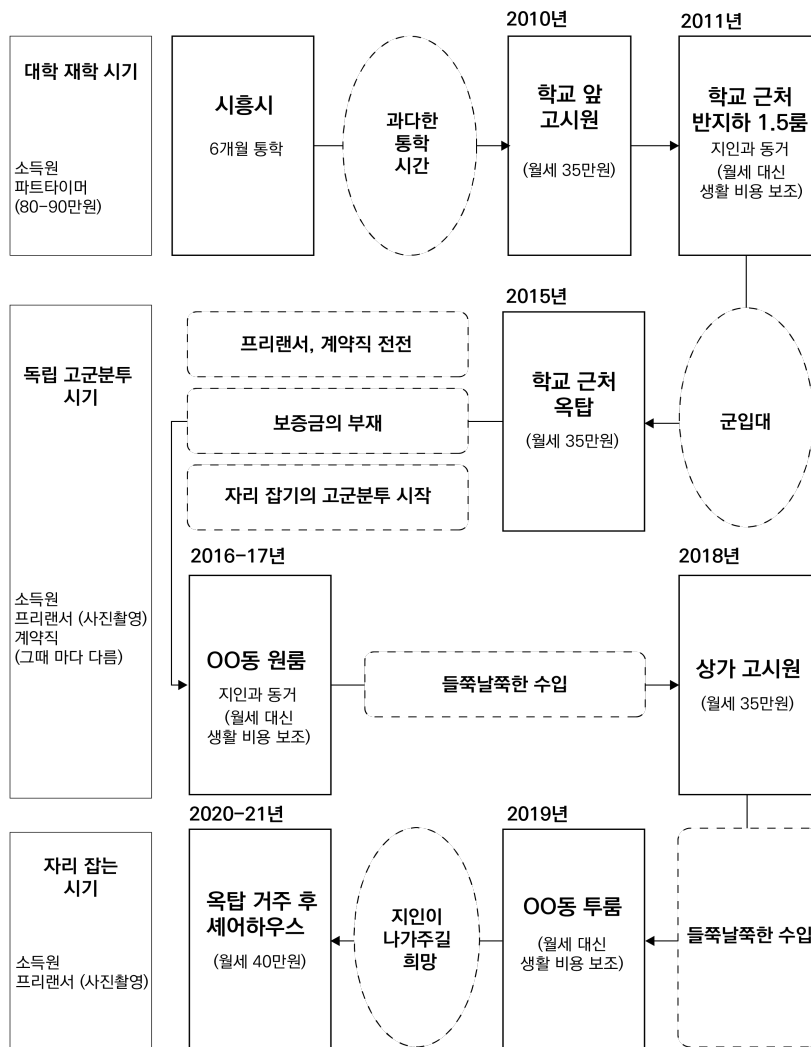
“솔직히 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있을 곳만 있으면 그렇게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중에서 최선의 공간을 찾아 보자 해서 이 집 찾을 때도 부동산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30~40군데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I]

이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B와 G의 주거 이동 궤적을 통해 시공간의 불일치 속에서 지속해서 자리 잡지 못한 채 부유하듯 이동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B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1회의 주거 이동을 경험하였다.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이동을 반복한 것으로, 여기서 고시원, 반지하, 옥탑의 주거 유형이 상당수 차지한다. 부모에게 주거를 확보할 적절한 금액을



받지 못한 그는 상당 기간을 지인의 집에 ‘엎혀’ 사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가 지닌 사회적 관계의 호혜 덕분에 큰 주거 위기는 피하였으나, 주거 공간의 상향은커녕 안정적인 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연구 대상자 B의 주거 이동 경로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불안정 노동에 따른 소득의 높은 변동성과 연관된다. 그는 인터뷰 동안 지속적으로 ‘들쭉날쭉한’ 자신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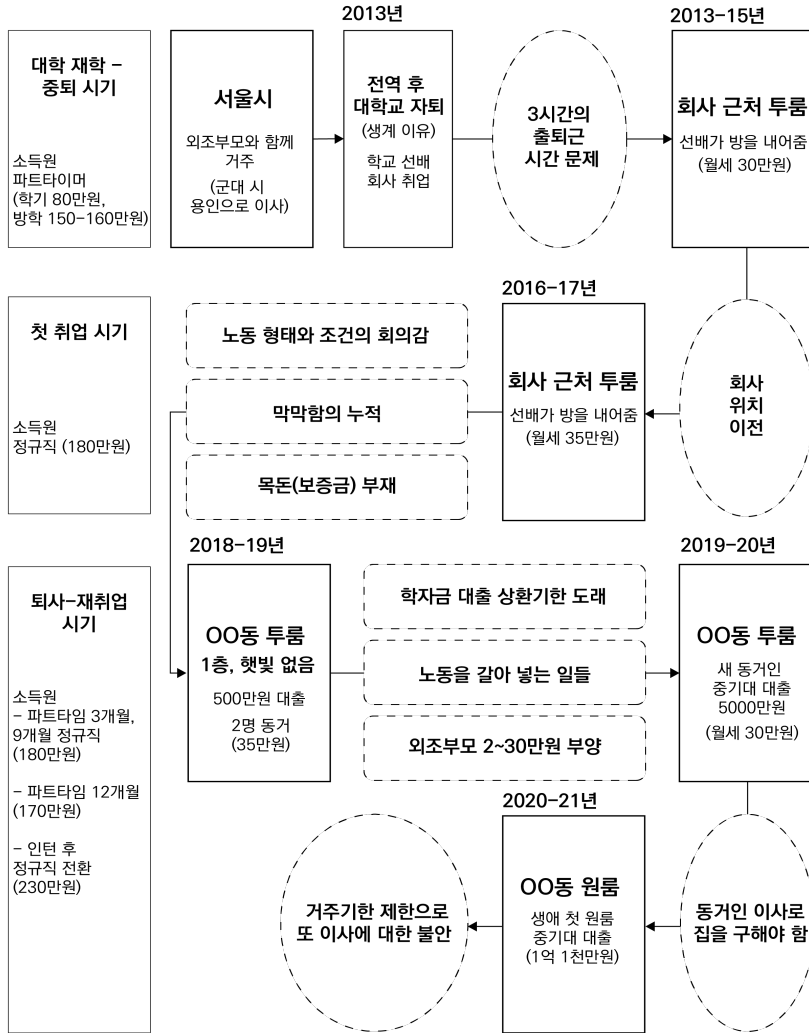
하며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물론, 자신이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일이기에 계속 고군분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2년 이상 ‘자리 잡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사정은 주거 공간으로 이전되어 나타난다. 옥탑 및 고시원, 지인의 집을 병행하며 거주하다가 가까스로 보증금을 모은 후 최근 한 세어하우스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세어하우스도 단기적인 임차 유형에 가까운 주거 공간이기에, 또 다른 이사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제가 너무 돈을 불규칙적으로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편차가 커서. 엄청 불규칙하죠 (웃음). (손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면서)...자주 얹혀서 자고, 통학이랑 얹혀서 자는 거랑 섞어서 하다가...친구가 서교동 쪽에 있어서 그 쪽에 얹혀서 1년 반 정도...이사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B]*

비슷한 연령인 G의 경우, 대학 입학 1년 후 군대를 다녀온 후 자퇴를 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한다. 1학년부터 생계 활동을 이어온 그는 학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G는 지금까지 약 6회의 주거 이동 경험을 하였고, 약 1~2년 마다 주거 이동을 실시하였다. 그가 주거 이동을 반복하게 된 주요한 계기는 목돈(보증금)의 부재이지만 그 외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거 불안을 지속시킨다. 주거를 안정적으로 임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소득으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공간을 ‘비집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그의 삶의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조건은 다양하다. 앞서 <원인>과 <조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들이 추가된다. 만 30세가 넘어가면서 학자금 대출 기간이 도래하고, 독립 후 꾸준히 외할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형태의 노동 시간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큰 회의감을 갖는다. 대학 ‘졸업장’도 없고, 번듯한 ‘기술’도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며 막막한 상황은 누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 궤적을 보듯이 노동의 시간성은 주거 공간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주거 공간이

각자의 자산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시 말해 주거비의 부담이 커질수록 생활의 불안이 지속되고 가장 가중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연구 대상자 G의 주거 이동 경로

이처럼 불안정 노동 조건 속에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은 더욱 기존에 개인이 가진 내재적 자본, 즉 주거 공간의 유무나 부모의 지원 등이 강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임시적인 상황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더욱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속에서

경쟁과 노력, 개인주의의 태도로 이를 쟁취하는 서사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은 그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개인의 노력은 개인이 가진 여건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고 완성되며 주거 공간은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3) 불안정 시공간의 장기화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 시공간 속에서 '자리 잡기'의 어려움을 형성하는 조건과 과정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불안의 조건들이 중첩되면서 장기화되면서 결국 청년기가 지연되며 불안정 시공간 내에 고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불안지대의 저변은 확대되고 노동·사회적 차원의 재생산 문제는 깊어진다.

상당수 연구 대상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본인들의 상황이 임시적이며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 내면에는 현재의 임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큰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에 임시가 붙는' 삶을 경험하면서 해당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진다. 이는 주거 불안정성의 장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현 상황은 독립 초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기는 계속하여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 속으로 밀리게 된다.

*"임시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임시에 임시가 붙고, 또 거기에 임시가 붙어서 (웃음) 임시로 사는 게 10년, 20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언제까지 임시적일까요." [연구 대상자 E]*

*"이 정도 집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맨날 너무 암울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심리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맞춰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연구 대상자 G]

Breen(1997, p.477)은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적인 준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고, ‘우발적 비대칭성(contingent asymmetric)’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시적인 상황의 누적은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고민의 시간을 빼앗아 ‘항상 맞춰서 살아야 하는’ 현재의 생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많은 연구 대상자들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준비라는 행위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처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데에도 벅차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거의 안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심리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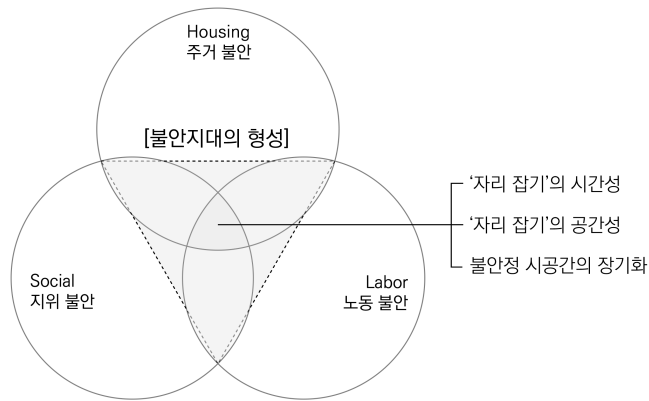
“매번 이렇게 고난이 반복되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느낌은 한 3~4년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작인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N]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보다는 항상 새롭게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 위에 불안이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 내에서도 그 격차가 확대된다. 그리고 주거 공간은 그 차이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L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은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 그에게 불안정 노동은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아실천의 한 방편이었다. 부모는 그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그 역시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였다. 그도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불안정 노동 과정과 자리 잡기의 어려움을 겪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 덕분에 ‘편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그에게서 노동의 시간성과 주거의 공간성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하나의 조건 만으로는 불안지대에 진입하지 않거나 손쉽게 이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불안이) 네 없죠. 그 부분이 제가 사실 다른 분들과하고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최소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만 알아서 해도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하죠...(돈도)

필요성에 의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굴려서 저에게 다시 주실 심산으로 법적인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주식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L]

Harvey(2005/2007, p.212)는 특정 계급의 전형적인 궤적은 그 계급을 구성하는 공간적인 요인들의 핵심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상이한 집단들 간의 생활의 차이를 더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사회적으로 위계화 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시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지대의 진입은 누군가는 겪지 않을 문제이지만 누군가는 참여하게 겪는, 빠져나오기 힘든 텃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정한 상황에 더욱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안은 고착되며 점차 불안지대라는 도시 속 불안정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16] <중심현상>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5. 작용/상호작용 : 불안지대의 진입과 이탈

### 1) 경제적 차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불안지대에 진입하는 조건들 속에서 각

자의 자리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을 지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다차원적 요소들에 의해 완화되거나 반대로 심화될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인 차원들이 어떻게 <작용/상호작용>을 하면서 불안지대를 이탈, 또는 진입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안지대에 대한 진입과 이탈의 과정을 주택시장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주택시장은 내재한 소유의 시장 논리와 함께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방향과 작용에 따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기제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지대를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1) 부담 가능한 주거비용

불안지대의 진입과 이탈에 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청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의 절감이다. 이것은 소득 대비 필요한 고정 지출을 절감하여 생활의 여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앞서 <원인>과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다.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거의 이를 수 없는 큰 과업이지만, 적어도 이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바로 ‘전세’이다. 마치 쇼윈도 앞에 선 아이처럼, 독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전세로 화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전세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종착지로 인식된다. 전세 선호의 이유는 바로 주거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고, 그 유일한 해답을 전세로 보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시장 금리의 대출 이자액이 월세 부담액보다 낮고 전세 지원 제도를 통해 저금리의 금융 상품을 이용한다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훨씬 낮아진다. 이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은 전세를 주거 확보와

유지 과정의 ‘파격적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2%대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정도 씩, 엄청 좋죠, 이전에 비해서. 거의 언니랑 합해서 20만 원씩 줄었으니까요.” [연구 대상자 A]

“저라는 개인이자 청년의 조건 속에서, 어쨌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저금리잖아요. 뭐 1억이라고 치면, 월 10만 원이니까. 그게 더 파격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희망 하는 거지. 일반 대출 프로그램이었으면 저는 전세를 못 했을 거예요. (연구자: 많이 낮나요?) 완전, 현저하게 낮아지죠. 네. 다달이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 대상자 H]

이처럼 청년들에게 전세가 생활 유지에 있어 의미를 갖는 이유는 H의 언급처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기에 파격적인 것이다. 많은 연구 대상자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제도가 다양하다고 느낀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청년들이 생애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각각 존재한다. 또한 그 이자율도 1~2% 내외로서 일반적인 대출 금리보다 낮고 장기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통하면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술인, 2~3인 이상 동거인 등 다양한 지위나 거주 형태에 맞는 지원들도 추가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 싶은 계획을 비치기도 하였다. ‘보증금, 전세금을 저축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으로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없으면 저는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고요 (웃음). 네. 지원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저축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출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구 대상자 H]

물론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세에 비해 전세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다달이 나가는 돈이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세라고 하여 월세보다 계약기간, 거주



조건 등에서 개선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월세에서는 집의 수선 및 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반면, 전세에서는 임차인의 의무로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비용으로 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좋은 선택인 것이다.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다음에 전세로 바꾸거나, 해야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계속 다짐했어요.” [연구 대상자 I]

문제는 지역주택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점차 사라지는 데 있다. 1995년을 기점으로 임차시장에서 전세의 비율이 감소하고 월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상, 2014). 서울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이 더욱 사라지고 있다. 국가 정책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 내가 들어갈 전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와 함께 ‘빡칠’ 정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세를 주거 안정의 ‘마지막 동아줄’로 느끼기 때문이다.

“네. 너무 너무 빠쳐요 (웃음). 전세 없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불안을 넘어 이제 화가 나죠. 전 국민이 월세로 살아야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탁상공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죠. 사실 전세가 거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불안을 저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 H]

“제가 요즘 정말 다행이라고 엄청 느껴요. 제가 작년 12월에 중순에 결국 이사를 하고, 전세를 구해서 살았는데 바로 몇 달 지나니까 전세가 다 사라지고 지금 친구 중에 집을 구하고 있는 친구도 전세가 너무 없다고, 집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연구 대상자 G]

이러한 분노는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이중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의 수단 중 하나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 정책을 이용하기 적합한 대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개별 주거 공간에 권리관계와 관련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알맞은 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아 주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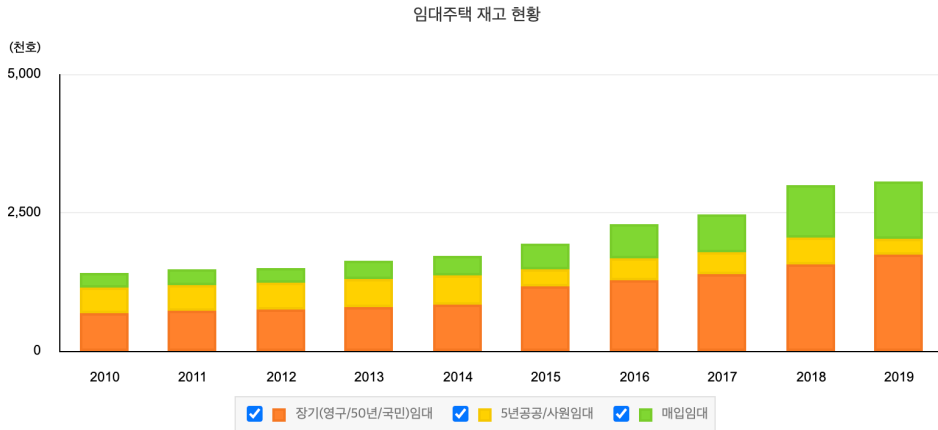
“취직만 하면 일단 중기대<sup>23)</sup> 받을 수 있어요. 80% 짜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100%도 받을 수 있는데, 100%는 제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컨디션이 중요해요. 근저당 아예 없어야 되고, 막 이렇다 할 문제가 아예 없어야 100% 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찾을 때, 100%되는 집을 되게 많이 찾았는데 저는, 100%를 해 줄 수 있는 집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결국 80%로 샀어요.  
[연구 대상자 G]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림 17]처럼,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절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역세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동의 편리성은 확보되었을지 몰라도 실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M은 당첨까지 되었으나 입주를 결국 포기하고 만다. 말만 청년주택일 뿐, 내부 상가 음식점 할인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부르주아’나 살법한 높은 주거비용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OO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그게 되었었어요. A타입이었는데, 근데 그게 88 만원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청년주거지. 그래서 관련 기사

23)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만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1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다. 연 1.2%의 금리로 최장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G가 말한 80%, 100%라는 의미는 전체 전세금액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뜻한다. 학생 신분이 아닌 일을 하면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기에, 본 논문에서 조사한 연구 대상자들 상당수도 이를 활용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를 엄청 찾아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고, 내부에 있는 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88만원이다.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만 청년주거지, 이거 부르주아 아니냐.” [연구 대상자 M]



[그림 17] 임대주택 재고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시도별자료), 2021)

이처럼 청년들에게 주택 소비에 있어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점하는 이유는 불안지대를 경제-정책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높은 공간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 축적 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여 주거 공간의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세의 효과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의 감소에 있기에,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주거 불안은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다양한 조건의 주택 유형

다양한 유형과 조건의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불안지대를 진입하거나 이탈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다양한 주택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희망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은 실제 주거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유형의 한계들을 경험한다. 먼저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거실과 방의 구성이 갖는 위계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누군가의 임대 공간에 잠시 ‘엿혀’ 사는 경우에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지만(연구 대상자 B, G)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장기간의 동거를 실천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주택시장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가족 중심의 공간 구성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다. 그러나 D가 경험한 3인 가족(부부와 한 명의 자녀)을 요구한 어느 예술인 주택의 모집요건처럼, 아직 가족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정책의 측면에서 주택 유형의 다양성은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과 정책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택 유형의 다양성은 개선될 수 있다.

“모두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투 룸, 쓰리 룸이 나오니까 한 방만 무조건 엄청 크고, 한방은 옷방 이렇게 나와서 다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방이 균등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웃음). 거실을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계속 살면서 느끼는 건데, 공용공간으로 거실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그냥 버려지게 되고.” [연구 대상자 I]

“저번에 OO 근처에 있는 예술인 주택에 빈자리가 나왔어요. 아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건이 3인 가족이더라고요. 마침 나온 게. 그래서 이 3인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야하지? 2인도 아니고? (웃음) 그랬어요.” [연구 대상자 D]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명으로 그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독립 후 혼자 거주하는 기간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연구 대상자 H, K). 주택시장에서 반려동물은 임대인

과 마찰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가 늘면서 이에 맞는 주택 유형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중개사가 반려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기'를 치며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한다. N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만에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으로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지역주택시장의 중개 문제도 함께 드러난다.

“올바른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부동산에 갔을 때도 행색으로 판단해버리고 안 좋은 집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OO으로 체크했을 때 반려 동물 가능한 것 확인하고, 입주할 했는데 관리인이 고양이 들어오는 것 보고 '고양이 키우세요?'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여기 안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달 안에 빼라고, 이사하자마자.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사기를 친 거죠. 저한테는 막 '그거 그냥 숨기시면 되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연구 대상자 N]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연구 대상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갖고 불안정성을 지속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주택 공간과 조건, 그리고 그 유형들을 탐색하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환기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 2) 정책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 논한 바와 같이, 주거 정책은 주택시장의 상황과 함께 상호작용한다. 즉,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서만 작동하지 않으며 정책대상과 함께 이를 둘러싼 시장의 기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이때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이나 시장과의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지대를 이탈하기보다 오히려 진입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 사각지대 속에서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못한 채 불안지대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소득지원과 같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불안을 완화하고 불안지대의 이탈이 가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1) 정책의 사각지대

앞서 전세주택시장과 전세대출제도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책의 작용과 상호 작용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이 혜택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현재 각 청년들의 생애시기에 맞춘 주거지원정책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은 각종 지원 제도와 실제와의 ‘매칭’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봐야’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들 사이에서 자신이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활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대출로 임차가 가능한 매물로 곧바로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비용이 맞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주거 공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인 월세에 거주하게 되고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대출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보들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는 어려운,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않더라고요. 전세를 원하기는 하는데, 대출도 생각이 있고. 정말 가끔씩 알아보긴 하지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또 대출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한정적이잖아요. 이걸 나는 어떻게 매칭해야 되지? 이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위치까지 좋으려면? (웃음). 많이 어려워서, 그냥 미뤄두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D]

정책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기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D의 경우처럼 이용하기를 포기하고 만다. D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경제적인 지위가 정책대상의 기준에서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D는 예술분야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그러나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작은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피고용자의 지위와 개인사업자의 지위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려워했다. 즉 불안정 노동의 경계선 상에서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배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지원 자격과 선정 과정은 달라졌다. 1년 이상 일을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연구 대상자 I), 현재의 COVID-19으로 인해 늘어난 정부 지원금도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그 예시로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의 형태로 종사하고 있는 B, M과 J를 비교해볼 수 있다. B, M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들쭉날쭉 발생하여 현재연도에 비해 직전연도의 소득이 나타나지 못한 반면, J는 4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다 산정 기준이 달라가지고, 건강보험료로 하면 올해 이사 오면서 갑자기 튀어가지고, 지역 가입자로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최근 3개월 소득으로 하는데 그건 약간 되기도 하고. (지원 대상으로) 집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B]

“네, 저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 이유 때문은 아니라 인턴 때 고용보험을 신청한 것 때문에. 인턴 때 딱 3달 고용보험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비교 대상 달이랑 겹친 거예요. ‘아 나 진짜 억울하다.’ 그랬는데 안 되네요. 오늘 그 문자가 와서 아침에 속이 부글부글 (웃음).” [연구 대상자 M]

“결과로 저는 받았어요. 주위에 못 받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일하고 있다는 계약서도 준비해야 하고,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그게 10개였어요. 맞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10개였어요, 10개.” [연구 대상자 J]

이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은 지원 기준, 조건 등이 완화되기를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본인과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서 탈락하여 일반 월세를 내야 하는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연구 대상자 F),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토로하였다(연구 대상자 H). 또한 지원 기준의 소득은 통상 1년 단위로 보고 직전연도로 산정되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D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분기 별로 산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는 현재의 기준이면 좋겠어요. 워낙 다들 불안정하니까, 전년도는 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정말 저도 거의 뭐, 12월, 1월 차이로 확 달라졌으니까. 차라리 지금으로부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연구 대상자 D]*

*“중소기업전세대출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아닌 알바나 일용직, 프리랜서 같은 그런 거에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되고” [연구 대상자 H]*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청년들의 경우 정책적 배제와 소외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수행하는 불안정 노동과 각자가 처한 지위의 모호함이 복합되어 나타난 양상이다. 불안지대 내에 속한 청년들은 정책의 도움을 통해 불안을 감소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들 내에서도 차등적인 이탈 경로가 발생할 수 있다.

## (2) 소득 불안의 일시적 해소

한편,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보조해주는 정책들은 모두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와 퇴직금, 또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된 국가 지원금은 지원기준이 최소화된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제도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사회보험이기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노동 형태나 지위와 같은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거지원정책과는 달리,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들은 많은 청년들에게 최소의 생존 보호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은 노동과 소득 불안의 상황을 퇴직금과 실업 급여로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데,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연구 대상자 B, G, H는 1년간량 파트타임, 계약직 등의 일을 하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다행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노동이 종료된 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된다. 연구 대상자 A, B, D, I는 모두 실업 급여를 통해 다음 일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일부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실업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빈번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면 대부분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이러한 소득 보조를 통해 생활 안정을 경험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금 원래 일을 그만두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10달 정도 되었는데, 4달 정도는 실업 급여를 받았고, 실업 급여가 거의 180만 원정도. 초봉보다 많은 거여서 (주거비가) 20만원 정도여서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요.” [연구 대상자 A]*

*“거의 160에서 170정도 나와요. 많이 주더라고요. 저번에도 받았었는데, 올랐어요 금액이. 더 오래 주고. 한두 달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코로나까지 겹쳐서. 취업이 좀 오랫동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실업급여가 좀 길게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연구 대상자 H]*

이러한 실업급여 뿐 아니라 H가 수급한 것처럼 국가재난지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을 보조해 준 중요한 안전장치였다. 물론 일회성에 그치긴 하나 이러한 제도 덕분에 소득 위기의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타계할 수 있었고 연구 대상자들은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다. 2절의 노동 불안정성에서 논의한 것처럼 불안정한 노

동이 갖는 높은 소득 규모의 변동성을 정책적 차원에서 완화해줄 수 있고 이는 다시 주거 불안의 해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3) 사회적 차원

끝으로 사회적 차원의 측면에서도 불안지대를 이탈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속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또 다른 ‘가족’이다.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부재한 이주민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얻는 도움이나 호혜는 불안을 완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는 비단 인간관계 뿐 아니라 지역공간의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거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애착과 함께 획득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불안정성을 완화하였고, 개인이 선호하는 공공시설은 주거 환경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상쇄해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은 불안지대를 직접적으로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동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다.

#### (1) 관계의 호혜를 통한 주거 안정

먼저 청년들은 주변 사람들과 맺은 사회적 관계들은 주거 불안을 직접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확보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한 없이 방 하나를 빌려주고 ‘따뜻하게’ 챙겨주거나(연구 대상자 I) 보증금 마련 전까지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다(연구 대상자 B).

“퇴사하고 한, 6~7개월 정도는 같이 거기서 살다가, 그냥 회사 대표랑 직원 사이가 아니라 형, 동생 사이로. 그 형이 워낙 동생들 잘 챙겨주고, 동생들을 좀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는 형이어서. 특히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냥 너 있을 만큼 살아도 되니까 막 쪼들리지 말고, 있다가 천천히 구해서 나가라.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내다가.” [연구 대상자 G]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형태로 안정감을 획득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함께 살기’를 시도했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호 간의 친밀도와 애정이 깊어지기도 한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연구 대상자 A), 힘든 점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기도 한다(연구 대상자 H, I).

“일단,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굳이 어디를 나가지 않고 해도, 그냥 내가 원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위해 주고, 배려해 주고.” [연구 대상자 H]

이렇듯 연구 대상자들은 주변의 사회적 관계 덕분에 주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생활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좁은 주거면적과 높은 비용을 가지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발생함을 뜻한다. 이는 상호 간의 부조와 호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 혹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일상생활의 불안을 간접적인 경로로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지역 애착이 주는 주거 안정

한편, 익숙하고 애착을 형성한 지역 공간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지역에 애착이 발생(연구 대상자 A)하기도 하고, 동네 자체가 갖는 분위기나 매력이 ‘마음에 들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연구 대상자 H). 또한 오래 살수록 지역에 대해 ‘아는 게 많아져’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연구 대상자 G, H, I). 특히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비자발적 퇴거를 요청 받았을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의 경험처럼 집주인으로 인해 집을 급하게 알아보아야 할 때,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디가 살기에 더 괜찮은지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싼’ 주거 공간의 위치

또한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공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설령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더라도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상쇄되는 효과도 있다.

“익숙해서. 여기 동네에 아직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었고, 그리고 여기 카페도 사실 전부터도 되게 많이 왔던 곳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으니까. 내가 잘 아는 동네이기도 한 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A]

“(집주인의 퇴거 요청 이후) 일단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뭔가 다른 동네로 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동네로 가서 내가 뭘 하지? 뭐 일단은 이 동네에 산 거 있으면 이 동네에서 찾아보자 해서, 동네 부동산 찾아서 좀 산 데를 구했죠.” [연구 대상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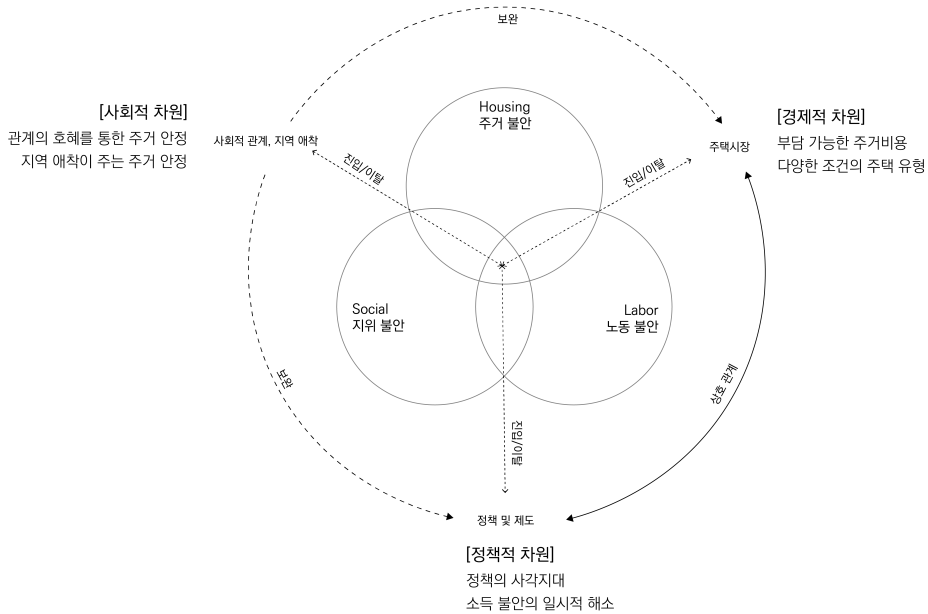
“그 동네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집값도 싸기도 했고, 이사를 멀리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근처로, 부동산 한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연구 대상자 H]

Conley & Topa(2002)는 1980-1990년 사이 시카고에서 실업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패턴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s)속에서 획득되는 정보의 교환은 좁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역 내 지인들이 거주할 경우 정보의 획득이 빨라질 뿐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도 큰 힘이 된다.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던 공간이 있어 그 곳에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연구 대상자 G), 지역 내의 자주 가던 공원에서 잠시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연구 대상자 A, F). F의 경우, LH청년전세주택으로 인해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주거지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을 좋아하는 그는 집 앞에 보이는 근린공원 덕에 오히려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동네를 더 많이 봐요. 저희 집(부모)은 아파트에 안 산 것도 있지만, 항상 산 밑에서 살아왔어요. 산 밑에, 산이 있는 곳이나 강이 있는 곳에 살아 왔어요. 어렸

을 때 계속 살았던 곳도 그런 곳이고 (부모님이) 이사 간 집도 빌라인데 산 밑이  
 에요. 전주 외곽에 있거든요...저도 여기 살면서 스스로 깨달았는데 항상 산을 끼  
 고 있거나 자연이 보이는 걸 당연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편안해요.” [연구  
 대상자 F]

이렇듯 거주 공간이 위치한 동네의 편안함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안  
 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청년들은 잦은 이동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  
 나 절대적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정주환경을 높이고 주거 공간을 둘러싼 지  
 역의 삶의 수준을 높여준다면, 정책 및 경제적 차원의 한계를 보조하고 주거  
 불안을 간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8]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핵심범주와 모형의 구성

## 6. 결과 : 포기, 순응, 대안의 탐색

### 1) 포기-순응하기

불안지대를 오가며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청년들은 점차 포기과 순응이라는 양가적인 태도 사이에 자리하게 된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스스로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지대 내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시작한다. 스스로가 가진 한정된 역량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을 내린다. 청년들은 불안으로 인해 때로는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의 삶에 대해 이성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다. 다음의 노동과 주거 공간과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 고민과 생각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 (1) '내 집 마련'의 부분적인 포기

Elster(1989)에 따르면, 이성적 결정 과정은 다음의 3가지 특성을 가진다. ①최선의 생각과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것, ②수중에 가진 것들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 ③최선의 생각과 욕망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요인을 수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 사이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청년들에게 있어 집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과정이다. 2절과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부모의 지원,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목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G는 서울의 높은 집값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소득으로는 집을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꾀보지 못했고', E는 자가의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면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하여 연일 이어지는 주택가격의 상승, 개발 호재,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부동산 투자 등 언론에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단어들에 대해 애써 무시하고 그 '판'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한

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의 세 요소 중 한 요소에 대한 욕구를 아예 ‘포기’하면 그로 인해 소요되는 감정이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솔직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은 꿈도 꺾보지도 못했고. 그거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과연 얼마를 모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자가? (웃음) 그건 전혀, 나는 할 수가 없어.’ 주택청약이나 꾸준히, 조금씩 계속 넣고.” [연구 대상자 G]

“굳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집, 전 국민의 투기가 있는 판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쟁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순간,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연구 대상자 E]

문제는 그렇다고 하여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데 있다. 자가의 포기 가 주거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지리적 사고가 확장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서울의 바깥 지역까지 잠재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의 주거 비용이 부담할 만큼만 되면 언제든 거주 1순위인 것은 주지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에 최근 주거비까지 치솟는 것을 지켜보면서 연구 대상자들은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J는 지금의 주거 문제는 도시, 서울에 국한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서울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주거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역시. 서울 안에서의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구나.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이었는데, 제가 사는 곳도 동대문이어서, 거의 교통의 메카거든요 (웃음). 나중에 불편해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좋은 주거 공간은 포기한다면) 그래, ‘경기도나 서울 외곽지역에서 집을 잡아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 대상자 J]

게다가 일부 연구 대상자들은 집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특히 지속적인 변화,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자 삶의 방식이라면, 평생 임차(전세)형태로 거주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포스트-포드주의 이후 형성된 자유롭고 유동화 된 노동의 새로운 시간성이 주거 공간이 가진 위치나 형태의 공간성을 변화시키며 도시라는 주류 공간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동인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넓게 보면 한 세기 이상 지속해 온 근대의 시공간이 변화하고 도시 주변에 배제된 공간으로의 이전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전세로 살아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변해 나가는 게...평생 전세(집을 소유 하지 않는)로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 대상자 F]*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Standing(2011, pp.325-328)은 거류민(denizen)의 자격을 정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거주 위치와 관계없이 정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청년들 또한 거류민의 삶과 닮아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권을 도덕적 차원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본다면(김대균, 2011),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높은 벽 앞에서 자가의 소유를 포기하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공간적 특징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인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서울 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주거의 안정을 찾아 이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불안정 시공간성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 (2) 불안에 대한 능동적인 순응

청년들이 불안정성에 대처하는데 있어 포기는 주로 주거 공간에 대해 나타난 경향이 강하다면, 노동에 있어서는 대부분 순응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태도 또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점차 탈근대의 시간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포드주의의 시간은 여전히 현대의 사회적 삶의 시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세룡, 2015). 따라서 당장 우수한 일자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불안정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눈여겨 볼 점은 청년들이 그 현실적 조건에 그저 순응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체념적 태도가 표출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불안정성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불안지대를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리 잡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불안정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함이 확인된다. 불안은 ‘나락이 아닌 긍정적인’ 것이고,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K와 같이 인턴을 비롯한 취업 경험을 거치며 정규적인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일을 찾기 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김수영, 하은솔, 김영(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현재의 불안은 단순히 고용 안정성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소득의 수준, 그리고 자아실현의 가능성 등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불안에 대한 다차원적 대처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그게 저를 발전시킨다고 믿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안정성이 더 불안정을 더 나락으로 빠지게 한다 보다는, 이게 나를 더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F]

“(프리랜서)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취업, 콜 센터 같은데서도 일해보기도 하고, 대기업에서 인턴 형식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알바 같은 개념으로서 일을 하기가 소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느낌 같다고 할까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스스로 발전하는 느낌이 있죠.” [연구 대상자 K]

위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안에 대처하기도 한다. 연구 대상자들은 불안정 노동을 통해서 이미 체득된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계획을 한

번에 세워 두고 그때마다 적절한 선택을 했던 생존전략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부캐’나 ‘N잡러’<sup>24)</sup>로 불리는 삶을 적극 수용하고 한 가지의 일만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지위는 더 이상 노동(혹은 회사)이 상징하지 않으며 얼마나 개인이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성취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이처럼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요즘은 ‘부캐’ 같은 게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CG (플랫폼 노동으로 하는 일) 이것도 탈피하고 싶어서...외국 사례를 보면 CG보다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쪽으로 파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지금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연구 대상자 M]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들의 태도를 순응이라고 본 것은 그것이 불안지대 내에서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불안지대는 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불안이 없어질 수 없기에 불안과 잘 지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태도와는 별개로 불안정한 삶은 일정부분 이들의 삶의 방식을 강제한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불안지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를 갖는다. 각자도생의 생존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시공간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지대 속 생존법칙을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내면화한다. 따라서 이들의 태도는 기존의 노동의 시간성과 차별을 갖는다는 점에서 능동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시간성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순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불안함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 불안하면 안정적인 상태여서 안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너무 불안함에 못 이겨서 스스로 납득 시켰다거나...불안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 내가 불안함과 잘 지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A]

이처럼 청년들이 불안에 대한 태도는 탈출과 공존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

24) 부캐는 온라인게임에서 파생된 용어로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이며, N잡러는 2개 이상 복수의 일(job)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태도의 노동자를 지칭한다.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불안의 근원적인 요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불안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 2) 대안 탐색하기

청년들이 불안지대 내에서 포기과 순응의 전략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한다. 각자가 한 ‘개인’의 주체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갖는다. 청년으로서 가지는 지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각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 공간과 결부하여 대안을 탐색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거 공간은 삶의 가장 근간인 동시에 지위를 상징하고 노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청년들은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불안지대를 벗어나고자 한다. 아래의 범주 내용에서 그 공간적 실천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다.

### (1) ‘개인’의 주체적인 삶

청년들에게 개인으로서의 자립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결혼과 가족의 형성은 자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최종 목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그 시공간성을 거부함으로써 제도적 가족이라는 관념에 회의감을 형성한다. 특히 노동과 주거 불안의 경험이 지속되며 주거 마련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상황은 이를 가속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당장에 내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나 하나 살아 가는 데도 버거운 여건이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그 것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당장에 나 하나도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챙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능력 안 되면 안해야죠.” [연구 대상자 F]

“결혼할 때도 사실 신혼부부대출? 이런 게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쪽으로 알아 봐서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굳이 내가 결혼을 필요로 할까? 내가 살면서 혼자 이렇게, 살아나가기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웃음), 결혼을 하면 나아지나?” [연구 대상자 G]

그러나 이런 사실이 청년들이 가족 형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안지대의 시공간 속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 모색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사이로 느끼며(연구 대상자 E) 부모와의 일방적인 주종 관계를 탈피하고자 한다. ‘가족신고’의 개념을 제시한 K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반드시 남녀의 혼인 관계로만 가족이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개인과 개인이 상호간 부조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책임감 있는 관계성’을 통해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족, 그러니까 혼인신고처럼, 우리 가족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별도로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신고’처럼, 결혼과 거의 유사한 정도? 이 보호자가 나를 케어 할 권리가 있다든지, 보험에 권리가 있다든지, 가족 형태로 묶여져 있는, 하지만 결혼은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가족 신고. 그런 게 존재를 하면 책임감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게 되지 않을까.” [연구 대상자 K]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Beck & Beck-Gernsheim(1995/2006, p.284)은 제3의 대안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화가 가져온 모순적인 변화가 가족을 선택하느냐 또는 직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귀속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실제적인, 별도의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가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방향이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주거 문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대안적 거주 형태의 상상과 희망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불안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거주 형태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 대상자들은 이미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함께 살기’ 방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탐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독립된 공간은 확보하되, 동네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연구 대상자 A) 이웃 개념을 통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연구 대상자 H, I). 이러한 거주 형태는 특별한 것은 아니나 불안지대 속에서 연대를 통해 불안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이다.

“불안 상황 자체가 집 문제 뿐 아니라 이런 고용 문제 이런 길로 얽혀 있다 보니까, 동네에 혼자 있으니까, 저도 같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서로 같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저도 같이 만나는 것도, 대면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살면 좋겠다.” [연구 대상자 H]

“불안의 해소를 위해 공동생활의 형태를 계속 찾을 것 같거든요. 어떤 동네 커뮤니티라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이웃이 되자. 우리에겐 이웃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같이 사는 건 아니어도 이웃, 동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불안 해소)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 [연구 대상자 I]

특히 온라인, SNS 등으로 사회적 관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거주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일상생활 속 불안의 해소가 지역 내 물리적인 환경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문영(2001)은 빈민들의 연구를 통해 그들이 취하는 전략이 지역의 장(field)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비공식경제를 상징하는 가족, 친척, 이웃의 네트워크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의 ‘장’과 만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생존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불안이 공유될 수 있는 불안지대 또한 특정한 로컬리티의 공간을 가지며 그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을 구체화하고 연대의 기반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의 해소도 단순히 추상적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간성을 함께 가지며 주거 공간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로 하고 또 상상하고 있을까? 2절

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1인 가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서 1인 가구라는 말은 단순히 ‘원룸’으로 상정되는, 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구조를 가진 주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대상자들마다 그 사용의 맥락은 조금씩 달랐다<sup>25)</sup>. 연구 대상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였지만, 그 근저의 공통점은 ‘개인’의 주체로서 온전히 꾸려갈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독립 후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주거 공간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청년기가 장기화되며 성인기로의 이행이 더 이상 결혼으로 대변되지 않는 생애 속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기본값(default)’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범주 내에도 다양한 1인 가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연구 대상자들은 생애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여러 공간성을 지닌 주거 공간을 요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개인으로 자립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인데, 사람들이 이제야 이걸 분리(개인과 가족)해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둘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의 ‘디폴트’가 된 이상 이걸 분리해 보는 거죠.” [연구 대상자 E]*

연구 대상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거칠게 분류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가족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길 주장한다. 노동의 시간성 변화, 사회 내에서 분화되는 다층적 집단에 따라 청년기는 계속해서 ‘재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성을 가진 1인 가구를 정책·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를 희망한다. 요컨대 가족 구성의 변화나 1인 가구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 짓는 기준을 탈피하기를 원한다(연구 대상자 F). 실제 정책의 적용에서도 1인가구와 가족으로 양분된 정책

<sup>25)</sup> 가령 건축을 공부한 A에게는 전형적인 원룸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했다면, F나 G, J에게는 독립에 필요한 주거 공간 전반을 지칭했다. I, H에게는 탈출한 주거 공간이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공간의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연구자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1인 공간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1인 가구 혹은 1인 공간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많았고,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통합하는 대상으로 ‘1인 가구’를 사용하였다.

설계는 가급적 지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연구 대상자 D).

“1인가구가 평생 갈수도 있으니 정책이 같이 지원을 해 줘야죠.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형태가 다양성을 다 무시한 형태였잖아요, 이제 와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에는 만들어진 것이 너무 크고,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회는 다양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 대상자 F]

또한 물리적인 공간의 차원에서는 면적과 공간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5평도 되지 않는 좁은 1인가구의 면적은 장기 거주에 적합하지 않다. 문제는 1인 가구 유형과 2인 이상의 신혼부부 유형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공간유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연구 대상자 F, J). 여기에는 우선 보다 넓은 면적의 1인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단순히 잠만 자게 설계된 1인 가구의 협소함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집의 면적과 구성을 요청한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주거 면적의 비가역적 속성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면적을 줄여서 다시 방을 구하느니 차라리 거리가 먼 것이 좋을 정도로 다시 열악한 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힘들어했다(연구 대상자 F, G, H, K).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함께 살기, 동거와 같은 2인 이상 함께 살 수 있는 균등한 공간 구성도 포함되어 있다(연구 대상자 H, I).

“1인 공간은 보통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거나 화장실, 주거 이런 쪽에 집중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홈오피스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꼭 필수적인 시대이다 보니까, 그걸 식탁에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좁죠.” [연구 대상자 K]

“진짜 이제 저는 다시는 원룸에 가고 싶지 않고 (웃음), 또 원룸은 못 살 것 같아서, 사실 혼자 산다고 하면은 거실이 있는 투룸,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막연히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뭘지 모르겠어요.)” [연구 대상자 H]

끝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다양성을 지적한다. 앞서 연구 대상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을 통해 그 근저에는 금전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이 내재해 있음을 논하였다. 여기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작정 저렴한 주택이라기보

다 각자가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비와 그에 맞는 주거 공간이다. 이는 적절한 금융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조금씩 주거 상향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안지대의 시공간에서 주거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성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주거 공간이 가진 이러한 자본적 성격 때문이다. 노동의 불안정성은 유동적이고 파편화된 노동 시간을 갖게 하고 노동 소득의 불균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의 불완전함을 공간적으로 보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이기에 주거 공간의 다양성은 다층적인 시공간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

*“자생의 의미가 크겠죠. 결혼으로 가려면 저는 개인으로서의 독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나와서 혼자 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자생이라는 것은 결국 돈 문제인데, 혼자서 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립도 하고. 1인 가구 체제라든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들이 잘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그러고 결혼을 해서...그래서 이런 한 단계 다리라는 게, ‘징검다리’ 같은 체제 같다. 1인 가구라는 것이.” [연구 대상자 J]*

종합하면 연구 대상자,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주거 공간과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1인,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 간의 갭(gap)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연구 대상자 B, F, J, M). J는 혼자 사는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자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불안지대를 단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역설적일 수 있지만, 잘 갖추어진 1인 가구 체제가 오히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여 잠재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각각의 청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V. 결론

### 1.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14명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 형성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 ‘불안지대’ 개념을 제안하여 복합적이고 동태적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의 중심현상을 ‘자리잡기’의 시공간으로 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범주화를 진행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념화하였다.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토대로 하여 Glaser(1978)와 Strauss & Corbin(2015)이 제시한 이론적 코딩을 참고·수정 후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들의 관계를 형성한 결과, 총 139개의 코드들과 62개의 하위범주, 25개의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13개의 핵심 범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에는 단지 주거 공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수행하는 노동과 각각이 가진 지위에 따른 불안이 함께 연동되어 나타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청년들이 독립과정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반된다. <원인>에서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대표적인 불안정성 요소들로 구성할 수 있었다. 각각 노동, 주거,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이중 하나의 요소라도 형성되면 청년들의 독립은 위기를 겪는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태동한 불안(precarious)은 청년들의 노동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유연화된 노동 방식, 높은 소득의 변동성은 그 대표적인 징후이다. 서울의 주택시장구조 또한 청년들의 공간적 불안을 형성한다. 집다운 집, 개인의 공간은 상실되고 있었다. 아울러 청년층이 마주하는 이중적인 지위도 불안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의미 있게 밝히고자 한 것은 이러한 불안이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불안을

가중하고 일정한 시공간을 이룬다. 그 불안의 교차성이 증대될수록 도시 공간 내에 불안지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노동과 주거, 주거와 지위, 노동과 지위 사이의 불안들은 단순한 합 이상으로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호간의 교차를 통해 불안이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은 단일한 청년층으로 규정될 수 없고, 서로 상이한 불안의 조건을 가진 주체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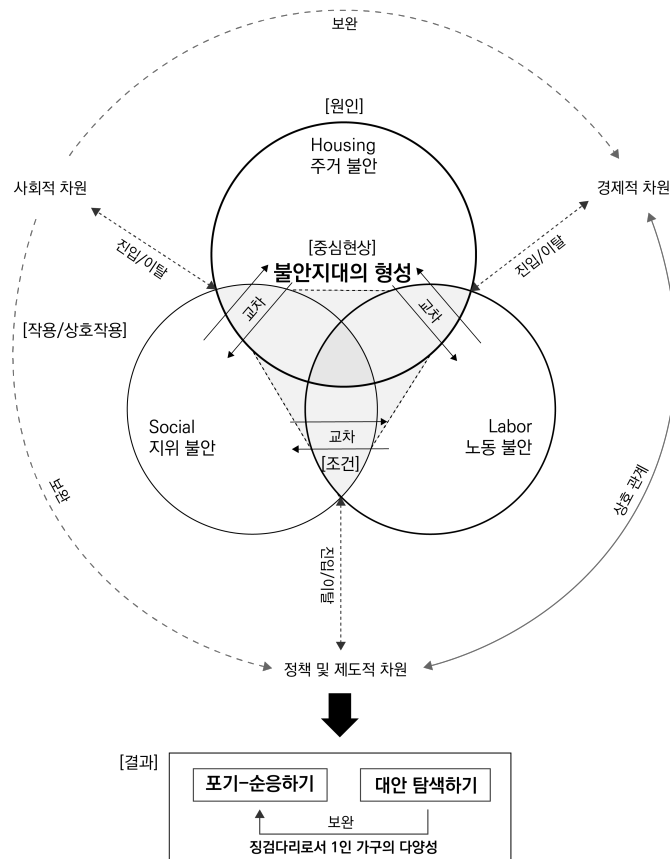
불안의 교차 속에서 불안은 더욱 공고해지며 이를 불안지대(precarious zone)로 개념화하였다. 불안지대의 형성은 <중심현상>으로서 청년들이 ‘자리 잡기’의 어려움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청년들은 노동과 주거, 지위 모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불안을 지속하게 되고, 이는 불안정 시공간의 장기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청년기가 왜 지연되고 임시적인 삶이 이어지는지 그 경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은 불안지대를 둘러싼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을 통해 완화되거나 심화되며 이를 <작용/상호작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차원들은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불안지대 내의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거 공간은 주택시장과 정책의 상호관계 속에서 지불 가능할 정도로 형성되어 불안이 완화되는 한편, 청년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적 사각지대는 오히려 불안이 증대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독립 과정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관계나 지역과의 애착은 불안을 완화시키고 시장이나 정책에서의 부족분을 충족하는 등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성 과정의 <결과>로 청년들은 포기와 순응, 또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불안정성의 과정은 ‘내 집 마련’,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하는 한편,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이는 순응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규율을 스스로 체화하며 노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서울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그 대안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혼과 가족 형성의 시기가 요원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1인 가구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완되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를 궁극적으로 '징검다리'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 정화의 요인과 과정, 진입과 이탈의 경로에 관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19]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 형성 모형

## 2. 정책적 함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거 정책적 대상을 불안의 측면에서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다차원적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들은 청년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인지하였다. 19~34세(혹은 39세)의 범위 내의 모든 연령을 청년으로 규정한 후, 정책의 우선 대상을 가리는 것은 다시 복지의 보편적 기준인 소득 수준으로 적용한다. 즉 현재까지 청년정책의 담론은 청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제시할 뿐,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불안과 위기를 살피는 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실제 삶과 현재 시행되는 주거 정책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득기준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청년 주거정책에서 소득기준은 직전년도의 평균으로 제시된다. 즉 당해 지원의 요건을 직전 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들의 소득과 지위는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작년에 소득이 있더라도 올해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현 시점에서 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지원의 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기간도 청년에게는 무척 길게 다가온다. 연구 대상자 중 소득 기준을 3개월 단위로 희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거 불안정성은 다른 불안정성과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 및 소득으로 정책적 대상을 포섭하는 것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위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조건의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불안지대의 개념 속에서 살펴본 바 있다. 누가 더 불안정할 수 있고, 더 잠재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한 것에 본 논문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되는 1인 가구와 그에 따른 다양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청년의 생애 측면에서 도출하였다는데 그 함의가 있다. 현재 청년 주거정책이 마주한 딜레마는 가족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던 청년 연령의 제한도 결국 청년들이 혼인을 통한 가족의 형성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과 가족의 형성은 더 이상 적령기의 도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개인으로서 삶의 성취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 결혼 및 가족은 그 중에 하나일 뿐, 최종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문제는 불안정한 노동과 청년의 지위가 갖는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개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획득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1인 주거 공간의 다양성이 삶의 징검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는데 있어 주거 공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공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수요의 측면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맞춘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넘어 그것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청년 주택정책의 다양성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시장과 국가 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정책에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공간 유형의 다양성, 임대차 조건의 다양성, 금융비용(경제적) 다양성으로 정리될 수 있고, 세 가지 모두 정책 및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분석의 핵심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적절히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생'의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에 있으며, 이는 청년기 이후로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셋째, 주거정책의 계획에 있어 청년들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소의 변영 대 개인의 변영은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강현수, 2010).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대체로 장소가 개인보다 우선시되어 계획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안지대 개념의 논의 속에서는 반드시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의 불안이 누적되고 증대되는 불안 주체들은 주택 소비 여력의 부족으로 장소의 번영과는 무관하게 이에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불안의 교차성은 동일한 청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고 삶이 어려운 집단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현재의 위기 뿐 아니라 잠재적인 불안의 대상까지 포착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와 동시에 Standing(2011)이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층 뿐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더 불안할 수 있는 대상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누가 더 불안을 쉽게 겪을 수 있고, 또 더 크게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계획적 함의가 있다.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4명이라는 한정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 비록 연구 질문에 따라 이론적 표집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범주의 형성과 추상화 작업으로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일반화의 오류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동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그 불안의 정도가 달라짐을 고려한다면, 주거 불안정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차등적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청년 주거 불안의 형성 과정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노동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으나 연구를 통해 청년의 주거 불안은 노동의 특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그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끝으로 특정 세대, 코호트 집단이 가진 특수성이 존재한다. 현재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더욱 불안에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보편적으로 확장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서울의 청년과 그 바깥의 청년은 그 불안정성의 궤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역 공장의 청년 노동자의 삶은 현 세대보다 오히려 과거 80년대의 청년층과 더 흡사한 생애 패턴을 갖는다. 사회적 단위로서의 로컬과 전체의 시간, 그리고 전지구화 시간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시공간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주거 불안은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상이한 시공간 속에 놓일 수 있으며, 본 논문은 그 중 하나를 살펴보았을 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불안지대들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 고 문 헌

### [해의학술논문]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Bogdan, R. C., & Biklen, S. K. (2007).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Berardi, F. (2009). *The soul at work: From alienation to autonomy*.

Blustein, D. L., Duffy, R., Ferreira, J. A., Cohen-Scali, V., Cinamon, R. G., & Allan, B. A. (2020). Unemployment in the time of COVID-19: A research agenda.

Breen, R. (1997). Risk, recommodification and stratification. *Sociology*, 31(3), 473-489.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Chun Tie, Y., Birks, M., & Francis, K. (2019). Grounded theory research: A design framework for novice researchers. *SAGE open medicine*, 7, 2050312118822927.

Cook, K. S., Hardin, R., & Levi, M. (2005). *Cooperation without trust?*. Russell Sage Foundation.

Conley, T. G., & Topa, G. (2002). Socio-economic distance and spatial patterns in un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7(4), 303-327.

Denzin, N. (2007). Grounded theory an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London: Sage, 2007), 454-471.



Findlay, A. (2005). Editorial: Vulnerable Spatialit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1, pp. 429~439.

Foti, A. (2004). Precarity and N/european Identity. Interview with Merjin Oudenampsen and Gavin Sullivan. *Greenpepper Magazine*.

Frase, P. (2013). The precariat: A class or a condition?. In *New Labor Forum* (Vol. 22, No. 2, pp. 11-14). Sage CA: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Gergen, K. J., & Williams, B. (2014). 61.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pp. 318-3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Glaser, B. G., Strauss, A. L., & Strutzel, E. (196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research*, 17(4), 364.

Glaser, B. G. (1978).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Theoretical sensitivity*. University of California.

Gordon, D. M. (1996). *Fat and mean: the corporate squeeze of working Americans and the myth of managerial 'downsizing'*. New York: Kessler Books/Free Press.

Gill, R., & Pratt, A. (2008). In the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precariousness and cultural work.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1-30.

Hallberg, L. R. (2006). The "core category" of grounded theory: Making constant compari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3), 141-148.

Johnson, C. G. (2011). The urban precariat, neoliberalization, and the soft power of humanitarian design.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27(3-4), 445-475.

Jørgensen, M. B. (2016). Precariat-what it is and isn't-towards an understanding of what it does. *Critical Sociology*, 42(7-8), 959-974.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Klein, O. (2004). Social perception of time, distance and high-speed transportation. *Time & Society*, 13(2-3), 245-263.

Lim, H. C., & Jang, J. H. (2006). Neo-liberalism in post-crisis South Korea: Social conditions and outcom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6(4), 442-463.

LaRossa, R. (2005). Grounded theory methods and qualitative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837-857.

Lorey, I. 2010. "Becoming Common: Precarization as Political Constituting." *E-Flux Journal* 17(January), pp. 1~10.

Neilson, B., &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51-72.

Munck, R. (2013). The Precariat: a view from the South. *Third World Quarterly*, 34(5), 747-762.

Polivka, A. E. & Nardone, T. (1989). On the definition of 'contingent work'. *Monthly Labor Rev.* 112(12). 9-16.

Pickvance, C. G. (1976). Housing, reproduction of capital, and reproduction of labour power: some recent French work. *Antipode*, 8(1), 58-68.

Rodgers, G., & Rodgers, J. (Eds.). (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aite, L. (2009). A place and space for a critical geography of precarity?. *Geography Compass*, 3(1), 412-433.

Wright, E. O. (2011). The 'triadic' model of society in Somers' Genealogies of Citizenship. *Socio-Economic Review*, 9(2), 405-418.

Wright, E. O. (2016). Is the precariat a class?. *Global Labour*

Journal, 7(2).

## [국내학술논문]

강현수. (2010). 기획논문: 지역밀착형 개발 전략 : "장소의 변영"과 "사람의 변영": 두 접근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과 사례. 地方行政研究, 24(3), 3-32.

곽노완. (2013).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철학사상, 49(-), 289-310.

권용혁. (2011). 개인과 가족. 사회와 철학, 0(21), 241-268.

김대균. (2011). 주거권의 도덕적 토대에 관한 연구. 倫理研究, 1(81), 5-25.

김은정. (2017). 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 : 『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3), 37-70.

김안나, 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 93-124.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社會科學論集 47.2 : 27-52.

김영주, 박인경. (2020).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4 : 241-250.

김수영, 하은솔, 김영. (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1, 89-127.

노승철, 이희연 (2009). 주거 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507-520.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 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2, 110-140.

박지현 (2020). 청년세대 주거 빈곤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43-159.

- 박영민. (1997).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9(-), 194-217.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 박인권. (2017).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공간과사회, 27(4), 36-78.
-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1-20.
- 박순용. (2006).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윤리에 관한 소고. 미래교육학연구, 19(1), 1-29.
-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 (2019).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분포과 주거 이동 분석. 한국인구학, 42(4), 91-119.
- 백승호(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 정책 제21집 제2호, pp.57-90.
- 서정희. (2015).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노동정책연구, 15(1), 1-41.
- 신용상. (2014). 금융 포커스 : 임대차시장 월세화의 정책적 함의: 수익성 저하를 중심으로. 주간 금융 브리프, 23(22), 10-11.
- 오근상, 오문현, 김은영, 남진 (2013).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거 상·하향이동에 관한 연구. 국토計劃, 48(5), 127-144.
- 유수진, 조희선. (2019). 청년세대의 주거공동체 경험을 통한 식구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7(2), 139-155.
- 유승호. (2013). 후기 근대와 공간적 전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간. 사회와 이론, 23(-), 75-104.
- 이민우, 김광현 (2007). 소비공간으로서 한국 도시주거의 현대적 특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7(1), 109-112
- 이민주, 박인권. (2019).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 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국토연구, 101(-), 49-73.
- 이병훈, 윤정향. (2001).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7(2), 1-33.

이소영, 정의철. (2017).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층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5(1), 63-89.

이소영, 이창무. (2019).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不動産學研究, 25(4), 85-102.

이진옥. (2012).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본 발전국가의 재해석.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101.

이영빈. (1997). 앙리 르페브르의 소외문제에 대한 연구. 西洋史論, 52(1), 193-195.

이용래, 정의철. (2015). 소득변동성이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구주 근로소득의 변동성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3.1 : 55-78.

이수옥, 김태환. (2016), 소득변화에 따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 추정, 『주택연구』24, 5-26.

이수연, 노연희. (2006). 외환위기 전·후 노동력 유연화와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8.2 : 143-166.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이정아, 김수현 (2017).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사회, 114,194-224.

이현정, 김진영. (2020). 민간임대주택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임차유형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 및 주거불안정 문제 경험 실태: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38(2), 69-82

안주엽. (200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勞動經濟論集, 24(1), 67-96.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장경섭. (2018). 가족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사회재생산 위기의 미시정치경제적 해석. 사회와 이론, 32(-), 189-218.

장세룡. (2015). 로컬리티의 시간성. 역사와 세계, -(47), 237-283.

조문영. (2001). 빈민지역에서 " 가난 " 과 " 복지 " 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도시연구, -(7), 227-261.

주희선. (2019).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이동 요인에 관한 분석.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7(1), 13-21.

조미현, 송재민. (2020). 서울 대도시권의 1인 가구 주거 이동 및 유입지역 특성 분석 : 직업과 주택 요인을 중심으로. 國土計劃, 55(4), 70-84.

정진영. (2017) 청년들의 집: 성별화, 계급화된 주거 선택과 주거 생활 - 대학동고시촌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4, 107-121.

조준모, 금재호. (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35-66.

정서연, 남궁미. (2019). 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4.3, 51-84.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 사회, 105-145.

채구묵. (2003). 비정규근로자의 인구화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단시간 및·임시직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58,276-310

최병두. (2011).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0(42), 7-38.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2), 149-172.

최상미, 윤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홍성조, 안건혁. (2011). 소득계층별 주거 이동과정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3), 91-100.

## [단행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story.
- 정우성. (2015). 목돈사회. 경기도: 에이콘.
- 박권일. (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서울: 교육공동체벗.
- Beck, U. (1997). 위험사회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원서출판 1989).
- Beck, U., & Beck-Gernsheim, E. (2006).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 권기돈, 강수역 역). 서울: 새물결. (원서출판 1995).
- Birks, M., & Mills, J. (2015). 근거이론의 실천 (공은숙, 이정덕 역.), 서울: 정담미디어·학지사. (원서출판 2015).
- Charmaz, K. (2013). 근거이론의 구성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6).
- Harvey, D. (2017).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2005).
- Saunders, P. (1998). 도시와 사회이론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1985).
- Sennett, R.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역.), 서울 : 문예 (원서출판 1998).
- Strauss, A., & Corbin, J. M. (2019). 근거이론 (김미영 외 역.), 서울: 현문사. (원서출판 2015).
- Smith, N. (2017). 불균등 발전 (최병두, 이영아, 최영래, 최영진, 황성원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1984).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sage.
- Lefebvre, H., & Nicholson-Smith, D.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Vol. 142). Blackwell: Oxford.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학위논문]

이민주. (2019).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 이동의 실태와 요인 실증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연구 보고서]

OECD. (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Paris: OECD Publishing.  
<http://www.oecd.org/publications/good-jobs-for-all-in-a-changing-world-of-work-9789264308817-en.htm>

ILO, (2012).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outcome document to the workers' symposium 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Geneva: ILO.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9787.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9787.pdf)

ILO.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534326.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534326.pdf)



## [부록1]

###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 경험 연구’ 관련 질문 내용

▶ 예상하는 불안정성 경로(부록참조)에 따라 인터뷰 가이드를 반구조화 형식으로 작성하되,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구성함

#### 1. 소득 불안정성에의 경험

“소득 불안정성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후, 어떤 일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해당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근로 기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현재 본인의 지위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로이 말씀해주십시오.

○ 지위, 일, 소득과 관련하여 장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유로이 말씀해 주십시오.

#### 2. 주거 불안정성에의 경험

“주거 불안정성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후, 본인이 처한 환경, 지위,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공간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본인의 지위(학생,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로 인해 주거공간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까?

-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해 주거 유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거주하였던 주거 공간들에 대한 유형과 특징, 그 경로에 대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 원하는 주거 공간 또는 지역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떠한 이유로 해당 주거 공간을 선택하였습니까?

- 이전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증금, 주거공간의 유형, 임대차 관계, 계약 기간 등 외부적인 이유로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할 수 없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거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자유로이 말씀해 주십시오.

- 분노나 소외감, 혼란 등 심리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거주 공간으로 인해 역으로 지위, 소득의 불안정성을 느낀 적은 있습니까?

- 소득이 적거나 거주 유지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주거 불안정성의 효과 및 대응 경험

“주거 불안에 따라 향후 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불안정한 주거 경험에 대하여 본인의 대응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어떤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그 선택을 한 이유와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각 주거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응으로 인해 주거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불안정성이 해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거의 불안정성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였습니까?

- 해당 대응에는 장래에 대한 주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불안정한 주거 경험이 삶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유로이 말씀해 주십시오.

- 금전, 투자, 직업, 연애, 결혼, 공동체 생활 등의 가치관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 집, 지역(동네), 교통, 시간 등 거주 공간의 인식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 질문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학력, 연령(출생연도)은 따로 질문 후 표기하며, 연구 진행에 따라 경로 및 질문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부록 2]

###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한 코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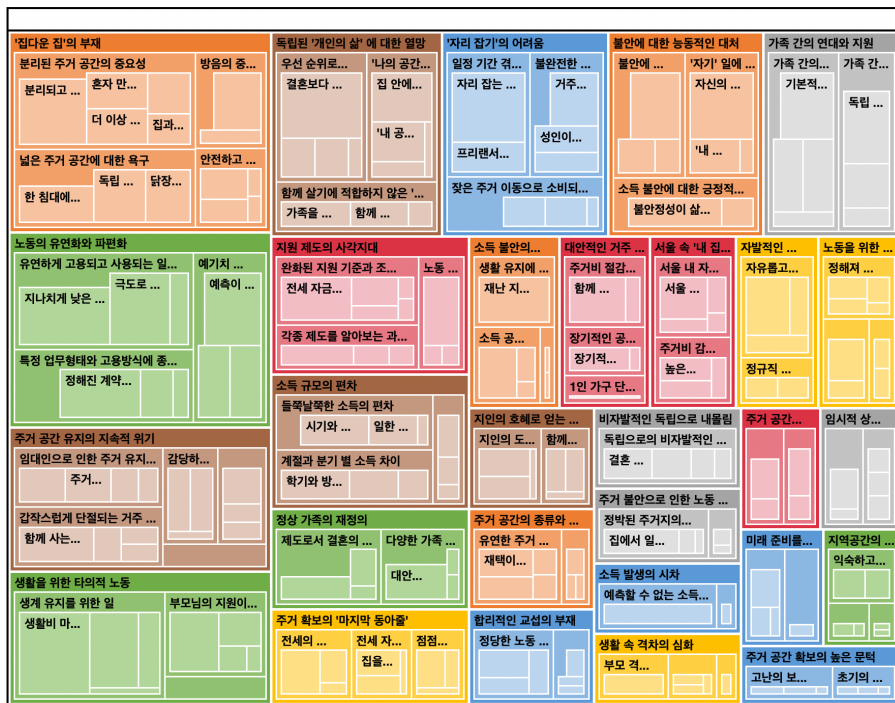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 줄코딩(line by line coding)의 방식으로 개념들을 만들고 유사한 개념들을 엮어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후 ‘범주화’ 과정에서 각각의 하위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조건>의 ‘독립을 위한 타의적 노동’의 범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다음과 같은 줄코딩의 과정을 통해 개념을 생성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여 개념을 명명하고자 하였다.

“아 그게 뭐냐면, 그게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이 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힘든데, 부모님께서서는 그거를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여유는 있다고 하세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한테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위급 시 금전적인 도움의 요청) 막상 형이 전주에 같이 사는데, 형한테 힘들다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형한테 돈을 빌려서 쓰시거나 하시는 걸 보면, 그걸 아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제가 서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부담을 안 드리려고. 등록금도 제가 다 해결하거든요. (스스로 마련하는 등록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맞는 것을 찾아 인턴, 아르바이트를 병행)”

위와 같이 줄코딩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위급 시 금전적인 도움의 요청’, ‘스스로 마련하는 등록금’, ‘시간이 맞는 것을 찾아 인턴, 아르바이트를 병행’의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비슷한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다. 해당 자료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만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스스로 마련하는 등록금’의 개념들을 엮어서 ‘부모님의 소득 지원의 부재’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또, ‘시간이 맞는 것을

찾아 인턴, 아르바이트를 병행’, 다른 인터뷰에서 발견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벽찬 개인의 삶’, ‘성인으로서의 경제적 독립 강요’의 개념들을 통해 ‘독립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동’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두 하위 범주 모두 연구 참여자가 처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노동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독립을 위한 타의적 노동’이라고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14명의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NVivo>를 활용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줄 코딩에서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다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 질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는 주관의 개입이나 편협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처럼 수집된 자료 중 언급된 빈도가 더 높은 범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관련성이 높은 참여자들을 역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20]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의 범주 구성표

다음은 분석 과정 별로 코딩의 위계를 나타낸 표이다.

〈원인〉

코드	하위 범주	범주	
예측이 어려운 노동으로 끊임없는 실직의 두려움	예상치 못한 노동조건과 실직	노동의 유연화와 파편화	
노동 불안의 직간접적 경험			
극도로 유연화 된 고용 형태	유연하게 고용되고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노동 과정		
지나치게 낮은 단가			
하청의 하청으로 조직된 업무 구조			
일정하게 종속된 고용 관계 형성	일방적인 계약방식을 통한 특정 업무의 종속		
정해진 평가시스템			
일방적인 계약 방식과 업무 수준의 결정			
본래 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 노동	끊임없는 간접 노동		노동을 위한 노동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노력	경쟁과 책임으로 인한 무한한 노동시간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는' 일을 수행			
모든 결과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			
여가생활을 하지 못해 생기는 외로움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 노동	정식 일을 얻기까지의 '물경력'		
일시적 고용만 늘어나는 과정			
재료비, 기기비 등을 구입	종사하는 노동에의 재투자		
학기, 분기, 시즌 별 큰 소득 편차 발생	시기별 소득의 차이	소득의 변동성	
학교생활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움			
일한만큼만 시급으로 지급되는 방식	들쭉날쭉한 소득 지급 과정		
공공 프로젝트 제도의 소득 지원 문제			

시간이 갈수록 삶의 고정 비용 증가	빠듯한 소득의 규모	소득의 변동성
언제나 바닥인 것 같은 빠듯한 생활의 누적		
소득이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	노동 종료 후 발생하는 소득	
프로젝트 일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소득 지급 방식		
연중 시기에 따라 소득의 범위가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소득 시기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소득		
닭장 속 좁은 주거 공간	지나치게 좁은 주거면적	'집다운 집'의 부재
무섭고 위험한 공간에 대한 두려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부재	
반지하, 고시원, 옥탑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		
서로의 소음이 통하는 공간구조	방음의 중요성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개인 공간의 욕구	'나의 공간'에 대한 열망	사적공간의 결여
용도가 구분될 수 있는 주거공간	분리된 공간의 필요성	
전이공간의 유용성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족용 평면'		
독립 여건 부족으로 본가에서 다시 거주	가족 간의 거주 기회 제공	불완전한 가족 간의 연대와 지원
형제, 친척 간 임시적 거주 공간의 제공		
위급 시 금전적인 도움의 요청	가족 간의 경제적인 지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존재		
결혼 및 독립에 대한 부모의 중용	독립을 둘러싼 이중성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종속		
결혼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	독립된 개인 생활의 어려움	독립된 '개인의 삶'에 대한 요구
부모에 대한 죄책감		

〈조건〉

코드	하위 범주	범주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	부모님의 소득 지원의 부재	독립을 위한 타의적 노동
스스로 마련하는 등록금		
경제적인 박탈감과 억울한 감정 수반		
시간이 맞는 것을 찾아 인턴, 아르바이트를 병행	독립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동	
성인(20세 이상)으로서의 경제적 독립 강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개인의 삶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상적(제도적) 가족의 호혜 상실	제도적 가족의 해체	
노동을 하면 독립해야 한다는 정서	시기에 따른 비자발적 독립	노동에 따른 비자발적 독립
‘캥거루족’이 되어가는 것의 부담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거비용	주거 유지의 위기
의식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소득 규모 및 시차로 인한 주거비 체납	소득 공백으로 인한 주거 위기	
노동 불안의 장기화로 서울 생활의 ‘탈락’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	정박된 주거지로 인한 노동 기회 제약	주거 불안으로 인한 노동 제약
직장보다 집(청년전세)을 우선하여 유지		
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은 근무지로 제외		
주거비 마련으로 인한 교육 및 일자리 탐색 시간 부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노동 준비의 ‘틈’ 상실	
여가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 상실		
‘거의 모든 것’인 가족의 경제력	독립 초기의 경제력 격차	주거 확보의 높은 문턱
부모의 격차가 청년들 간의 격차로 연결		



최초의 목돈 마련까지 장시간 소요	고난의 보증금 만들기	지위 격차와 불안정한 자립
보증금과 이사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계속 오르는 서울의 집값	저축의 단념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저축 포기		

### 〈중심현상〉

코드	하위 범주	범주
알려지고 일이 생길 때까지 '준비'해야 함	일정기간 겪는 소득 불안의 시기	'자리 잡기'의 시간성
특고노동(프리랜서) 시작 초기에 겪는 경제 적인 어려움		
일을 얻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장래의 격차	미래 준비에 관한 격차	
성인의 역할 중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지인의 방문이 부끄러운 거주 환경	주거 공간에서 경험되는 격차	'자리 잡기'의 공간성
주거비 차이가 만드는 주거 환경의 질		
집의 규모에 따른 삶의 차이		
이번에는 꼭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음	불가능한 안정된 주거 공간의 소유	
거의 '멸종'된 괜찮은 주거 공간		
적합한 집을 구하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		
'임시에 임시가 붙는' 삶이 지속됨	길어지는 임시적인 삶	불안정 시공간의 장기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누적		

기일 없는 불안에 대한 불안	가중되는 불안감	불안정 시공간의 장기화
‘맞춰서’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생활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의 도래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학비가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		
졸업(기숙사의 혜택)과 동시에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함	갑작스럽게 단절되는 거주 과정	
함께 사는 사람이 나가거나 나가기를 요청함		
‘모아둔 돈’이 없어 일이 끊길 경우 막막한 주거비	비상금의 부재	
빠듯한 생활 때문에 비상금을 모을 여력 부족		
위기에 대비하여 공간이 열악하더라도 주거비를 최소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	예상치 못한 지출들	
일에 필요한 물품이라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함		
세입자를 배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운영	임대인으로 인한 위기	
주거 유지에 비협조적인 임대인의 태도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거		

〈작용-상호작용〉

코드	하위 범주	범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유연한 주거 형태의 요구	다양한 조건의 주택 유형
재택이 가능한 주거 공간의 구성		
세어하기 적합한 평면 구성과 조건		

주거 확보의 '마지막 동아줄'인 전세	전세를 통한 월세 저감 효과	부담 가능한 주거비용
부담 가능한 전세 대출(LH)로 주거 독립을 감행		
전세가 주거지 선택의 결정 요인	점점 어려운 전세 매물 구하기	
전세 소멸 현상에 대한 불안과 분노		
국가 재난 상황을 버티는데 도움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된 국가 지원금	소득 불안의 일시적 해소
다음 노동까지 생활 유지의 안전망이 됨	소득 공백을 메우는 실업 급여	
퇴직금으로 일정 기간 생활의 안정을 얻음	생활 유지를 보조하는 퇴직금	
계약직으로 인한 전세 대출의 한계	노동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정책적 사각지대
소득 산정 기준이 너무 모호함		
중소기업을 다녀야 대출이 가능		
적합한 지원 정책과 개인의 상황을 매칭하는 문제	정책 정보의 획득 과정의 어려움	
주거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체감되지 않음	완화된 지원 기준 및 조건의 필요성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신분		
현 시점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 선정 희망		
너무 다양한 대출 기준의 범위 (근저당 없는 집)		
기한 없이 방을 내어주고 따뜻하게 췌겨줌	지인의 도움으로 주거 위기 해소	
주거비 마련 전까지 지인의 집에서 얹혀 삼		
함께 살면서 관계가 더욱 친해지고 깊어짐	함께 살며 느끼는 거주 한정감	
힘든 점을 나누며 삶의 안정감 획득		

아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가 주는 편안함	익숙하고 편안한 동네에 대한 애착	지역 애착이 주는 주거 안정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정착하고 싶은 마음		
아는 동네이기에 빠르게 새로운 이사할 곳을 탐색	동네를 통한 주거 불안의 완충 작용	
동네의 요소(녹지, 주변시설 등)으로 불안의 완충작용		

### 〈결과〉

코드	하위 범주	범주
계속 뛰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분노	'자가'의 희망 버리기	'내 집 마련'의 부분적인 포기
서울에 거주 공간을 두는 것의 회의감		
자가를 희망하는 순간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느낌		
평생 전세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		
높은 주거비용으로 지방도 고려하기 시작	주거비 감소를 위한 지방 이주 계획	불안에 대한 능동적인 순응
비대면 기술이 주거 위치 변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느낌		
서울을 평생의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음		
정규직이 노동의 근원적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함	불안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	
자본이익에 대해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복수의 계획 수립으로 불안정한 삶에 대한 대비		
유연한 근로 형태가 주는 자유로움	자발적인 비정규 노동	
능력과 의지에 따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자신과 하는 일에 대한 믿음		

주거 지원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함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필요성	'개인'의 주체적인 삶
불안 해소를 위해 대안적인 가족 형태도 모색함		
가족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의 변화를 인식함	제도로서 결혼의 불필요성	
점차 사라지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제도로서의 결혼은 생각을 하지 않음		
이웃 개념으로 함께 사는 것을 지향	장기적 공동체의 희망	
장기적으로 함께 사는 방식을 상상해 봄		
생존의 문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필요성	주거비 절감을 위한 '함께 살기'	
함께 살며 보증금과 월세 나누기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것이 '옵션'이 됨	1인 가구에 적합한 공간 계획	
1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 공간이 필요함		

## Abstract

# Conditions and processes for the formation of youth 'Precarious zone'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housing precarity-

Joon Ki Seok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of housing precarity formation among young people,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ing experience of young people engaged in precarious labor. Precarity forms a certain time-spa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nd is deeply embedded in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urban space.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under which precarity intensifies by examining the process of crossing and overlapping precarious factors inherent in young people's housing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t was intended to find a policy implication to

recognize and resolve the housing precarious of young people by examining various dimensions that can alleviate and resolve precarity.

The findings abov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ing precarity among young people is not only caused by the housing space, but also by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labor and status.

Second, the elements of precarity intersect and overlap with each other, further deepening and fixing precarity, which forms a constant time-space within urban space.

Third, young people experience more intense precarity in the space and time, which is centered on residential anxiety. And the long-term fixation within time and space results in the formation of gaps and inequalities in anxiety within the youth.

Fourth, young people have a process of entering and leaving the time frame by influencing economic, policy, and social factors through interaction surrounding anxiety.

Fifth, young people responded by experiencing instability and exploring abandonment, conformity, and alternatives of housing. They commonly sought to find stability in life step by step through the "need of various single-person household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present a multi-dimensional condition in which residential policy targets can be widely embraced in terms of precarity.

Second, the implication is that the need for continuou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various residential spaces was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youth's life.

Third, it suggested the need to consider the gap and inequality within young people in planning housing policies.

**keywords : Youth, Precariat, Precarious Zone, Precarious labor, Housing Precarity, Housing Policy**

***Student Number : 2018-26890***